

베네수엘라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 6
주요인사 / 8
외교관계 / 10
주한주재 국기관 / 14
한국과의 주요이슈 / 14

II. 경제

경제정책 / 16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 18
주요 산업 동향 / 21
정보조사 자료원 / 53

III. 경제무역통계

거시경제 통계 / 55
무역통계 / 56
투자통계 / 62

IV. 출장가이드

기후 /	66
시차.근무시간 /	67
도량형 /	67
출입국.비자 /	68
환율.환전 /	69
물가정보 /	70
교통.통신 /	72
호텔.식당 /	74
관공서 관행 /	78
공휴일 /	78
여행시 유의사항 /	79
유용한 연락처 /	80
관광명소 /	82

V. 무역

1. 무역시스템의 이해	
교역관련 주요법규 /	84
수입규제제도 /	90
관세제도 /	91
주요인증제도 /	93
지적재산권 /	93
소비자보호제도 /	94
교역관련 국가기관 /	94
2. 바이어 발굴	
시장 특성 /	95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97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99
3. 협상과 계약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102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	104
4. 통관 및 운송	
통관절차 /	107
운송 /	110
5. 무역분쟁	
분쟁해결 절차 /	111
유형별 분쟁사례 /	113

VI. 투자

1. 투자 동향

외국기업 투자동향 / 113

우리기업 투자동향 / 116

2. 법인설립

투자환경 / 117

투자인센티브 / 120

타당성조사 / 121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 122

입지선정 / 125

공장 설립 / 125

투자관련 정부기관 / 126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126

3. 사업관리

노무관리 / 129

조세제도 / 132

외환관리 / 135

4. 현지정착

이주정착 가이드 / 141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베네수엘라 (Venezuela)
위치	남미, 카리브해상 남부(북위 0도45부-12도12부 및 서경 59도-73도 사이)
면적	916.5천 km ² (한반도의 4.5배, 남한의 9.2배)
기후	온대성(카리브해 인근도시), 열대우림(내륙 아마존유역)
수도	카라카스 (Caracas / 인구 184만명)
인구	2,659만 명 (2006년 8월 기준)
주요도시	Maracaibo, Valencia, Barquisimeto 등
민족(인종)	메스티조(69%), 백인(20%), 흑인(9%), 인디오(2%)
언어	스페인어
종교	카톨릭 (전인구의 91%)
건국(독립)일	1811년 7월 5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Hugo Chavez Frias 대통령
입법부	단원제 (165석/임기 5년/'99년 12월 헌법개정)
정당	여당 - MVR당 (Movimiento Quinta Republica/제5 공화국당) 야당 - AD당 (Accion Democratica/민주행동당) COPEI당(Comite de Organizacion Politica Electoral Inde-pendiente /기독교사회당)
정부성향	민중 사회주의

나. 경제지표 (2005년)

GDP	US\$1,112억 (경상가격)
경제성장률	10.7% (2004년 17.9%)
1인당 GDP	US\$3,765 (2004년 US\$3,321)
실업률	16.3%
물가상승률	19.2%
외채	US\$327억
화폐단위	Bolivar(Bs), 건국영웅인 BOLIVAR장군의 이름에서 따옴
환율 (2006.08.29)	(정부공식 환율) US\$1.00 = 2,150 Bs (시장 실제환율) US\$1.00 = 2,650 Bs
외환보유고 (2006.08.29)	US\$337.5억
산업구조 (2005년)	석유(24.3%), 제조업(14.9%), 부동산/기업서비스(12.2%), 정부서비스(8.4%), 유통업(7.8%), 지자체/비영리용역(7.2%), 운송/창고/통신(6.9%), 농업(5.2%), 건설(4.9%), 기타(8.2%)
교역규모	수출 US\$38,748백만 / 수입 US\$15,235백만
교역품목	수출: 원유 (세계5위 수출국), 철광석, 알미늄, 보크사이트 등 수입: 기계류, 전기전자, 운송기기, 석유화학제품 등

다. 한-베네수엘라 관계

체결협정	과학기술협정('93), 문화협정('95) 외교관.관용여권 비자면제협정('94) 1개월미만 관광 무비자협정('05)
교역규모(2005년)	수출 U\$229.9백만, 수입 U\$93.6백만, 수지 U\$136.3백만
교역품목	수출: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휴대용전화기, 통신기자재 등 수입: 철강, LPG, 원유, 비철금속, 목재 등
투자	POSVEN 진출 (POSCO 합작투자기업 / U\$54,293천) -> 현재 철수함
교민	약 150명 (체류자 포함)

라. 국 토

베네수엘라는 북위 0도45부-12도12부 및 서경 59도-73도 사이의 남미대륙 동북단에 위치하며, 동으로는 Guyana, 서로는 Colombia, 남으로는 Brazil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북으로는 카리브해에 면하고 있다. 면적은 916.5천KM2로 한반도의 4.5배, 남한의 9.2배에 달한다.

안데스 산맥의 일부가 북부 해안선까지 뻗어 있고 남미 제 3의 강인 오리노코강이 국토의 중앙을 동서로 달리고 있으며 길이 213킬로미터, 폭 115킬로미터의 마라카이보 호수와 고산 지대, 저지대, 대평원 등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 기후도 다양하다.

중동부 지역인 안소아떼기주, 모나가스주 및 볼리발주 북부와 서부의 솔리아주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으로, 석유매장지역이 한반도보다 클 만큼 자원이 풍부하다.

그러나 거대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내륙지방으로는 거의 개발이 되어있지 않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 현 차베스 정부는 낙후된 내륙지방의 개발을 위해 ORINOCO APURE 라는 오리노코강 유역 개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들 지역에 공단을 조성하고, 인프라설비를 확충하는 한편 이들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

마. 인 종

베네수엘라 국민은 메스티조(백인과 인디오의 혼혈) 69%, 백인 20%, 흑인 9%, 인디오 2%로 구성되어있다. 인구 구성비에서 20%를 점하는 백인은 주로 유럽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상권은 이들이 장악하고 있다. 반면 빈민층은 주로 흑인이나 흑인계 메스티조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인종에 대한 차별은 다른 중남미국가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베네수엘라가 역사와 전통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는 스페인 식민 시대에는 사람이 그다지 많이 살지 않던 지역이다. 1900년대 이후 석유가 발견되면서 각지에서 노다지를 꿈꾸면서 또는 일자리를 찾아 모여든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이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민족들이 섞여 있다, 유럽도 스페인계 외에 이태리, 독일, 프랑스, 동구권 등 다양하며 기타 중동계, 유대인도 많은 편이다.

바. 인 구

베네수엘라의 인구는 2006년 기준 2,657만 명이며,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은 수도가 위치한 안데스 북동고원과 서쪽 안데스 사이의 지역 즉 베네수엘라 북서부 지역으로서 총 인구의 75% 이상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2.0% 정도이며 인구밀도는 22.3명/KM2('05년)으로 집계되어있다. 문맹률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10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베네수엘라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5.19%로 나타나 있다.

사. 언 어

공용어 및 상용어는 스페인어이며, 비교적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일부 상류층에서는 영어가 통용되나 대부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스페인어 습득이 필수적이다. 중하층 국민들은 영어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스페인어도 정통 스페인어라기 보다는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갈리시아지방의 사투리가 많이 섞여 있어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알아듣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아. 역 사

베네수엘라는 1498년 콜롬부스의 3차 신대륙 항해 시 발견되어 1499년 스페인 식민지가 되었다. 베네수엘라라는 이름은 처음 베네수엘라에 상륙한 스페인 인들이 마라카이보 호수 근처에 지어놓은 원주민 수상가옥들을 보고 마치 이태리의 베니스와 같다고 하여 작은 베니스라는 뜻인 베네수엘라라고 부른데 그 기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페인 식민시대의 베네수엘라는 옥수수과 사탕수수 농사가 주업인 농업 지역으로 큰 관심이 있는 지역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콜롬비아의 총독이 다스리다가, 콜롬비아에 副王이 파견되면서 베네수엘라는 총독 지배지역으로 격상되었다. 이와 같이 변방에 위치했던 것이 오히려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데는 도움이 되어 시몬 볼리발 같은 영웅이 나오게 되고, 남미 해방의 진원지가 된 결과가 되었다.

베네수엘라의 독립은 1800년대 초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1806년 베네수엘라의 추앙 받는 인물인 Francisco De Miranda가 Ocumare De La Costa에 소함대를 상륙시키려 하였으나 스페인 군에 의해 격퇴당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1810년 혁명평의회가 조직되었다. 이들은 스페인 총독을 거부하고 법원을 인정치 않았으며 다음해에는 Francisco De Miranda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비록 Francisco De Miranda는 정부군에게 잡혀 스페인으로 호송, 투옥되었으나 혁명의 불길은 가라앉지 않고 1811년 7월 5일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베네수엘라의 독립운동은 Simon Bolivar의 주도하에 본격화되었는데 그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군사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범미주의 개념을 최초로 주창한 사상가이기도 하였다. Simon Bolivar는 1813년 스페인 지배에 항거하는 최초의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의 고향인 카라카스까지도 장악하게 되었으며 대중의 지지를 받아 원수로 임명되었다.

Bolivar는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비정규군을 이끌고 10 여 년간 스페인 군대와 처절한 전투를 벌였으며, 마침내 1821년 Carabobo 전투에서의 승리를 끝으로 1819년 Angostura (현재의 Ciudad Bolivar)의회가 선포한 Gran Colombia 헌법에 따라, 과거 스페인에 의해 분할, 통치되었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를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나라가 탄생되었다. 그러나 Gran Colombia는 베네수엘라 독립영웅인 Jose Antonio Paez가 1830년 자체정부를 세우게 됨으로써 해체되었다. 이후 정치적인 불안과 투쟁의 소란스런 시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명의 지도자 사이에 권력에 대한 암투가 이어지게 되며 수차례에 걸쳐 헌법이 개정되고(1830, 1857, 1859, 1864년) 독재정권이 계속 바뀌는 과정 속에서 20세기를 맞게 되었다.

베네수엘라의 민주정치는 1935년, 27년간 철권정치를 행하였던 독재자 Juan Vicente Gomez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한 바, Gomez의 군사적 후계자들은 민주주의를 표방하여 나가기는 하였으나 쿠데타 등의 빈발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45년 쿠데타에 의해 민과 군 양위원회에 권력이 이양되면서 전면적인 개혁 작업이 이루어졌고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등 민주화가 진행되었으며, 소설가였던 Romulo Gallegos가 합헌 대통령으로 선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48년 11월 군사 쿠데타로 인해 합헌 정부가 다시 전복되고, 쿠데타에 참여했던 Marcos Perez Jimenez가 1952년부터 1958년까지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게 되었다.

1959년 3월에 취임한 Romulo Betancourt 대통령은 1960년 좌파에 의한 폭동 등으로 곤경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대통령 재임기간을 완전히 마친 첫 민선 대통령이 되었으며 또한 그는 재임 중 대통령 연임금지 헌법을 공포함으로써 베네수엘라 민주정치의 대부로 추앙 받고 있다.

그 후 민주행동당의 Raul Leoni 대통령 (1964.3-1969.3), 기독교사회당의 Rafael Caldera 대통령(1969.3-1974.3), 민주행동당의 Carlos Andres Perez 대통령(1974.3-1979.3), 기독교사회당의 Luis Herrera Campin 대통령(1979.3-1984.2), 민주행동당의 Jaime Lusinchi 대통령(1984.2-1989.2)이 집권함으로써 매 5년마다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확립하였다.

1988.12.4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행동당의 Carlos Andres Perez 후보가 제 1야당이었던 기독교사회당의 Eduardo Fernandez후보에게 승리, 1989.2.2. 취임하였는데, Perez후보의 당선으로 1958년 민주화 이래 민주행동당과 기독교사회당이 교체 집권하던 전통이 무너지고 민주행동당이 계속 집권하게 되었으며 Perez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최초의 재선 대통령이 되었다.

Perez 대통령 2차 집권 후기인 1992년 민생고와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 마침내 2차례 (92.2.4, 11.27)에 걸쳐 군사쿠데타 기도가 있었으나 불발로 끝났다. 92년 2차에 걸친 쿠데타 기도이래 Perez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실된 상황에서 93년도에는 취임시의 경호경비(약 1,700만불)유용 문제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93.6.4 대통령직을 상실, Ramon J.Velasquez 상원의원이 잔여임기 동안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 하였다.

1993년 12월 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69년-74년의 기간 중 대통령을 역임한 바 있는 Rafael Caldera가 자신이 창당한 기독교사회당을 탈당, Convergencia 당을 결성, 출마하여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서, 2차 집권에 성공, 99년 2월까지 재임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지난 40년간 되풀이 되어온 AD 당과 COPEI당의 교체집권에 식상, 변화를 원하게 되고 이에 맞춰 등장한 좌파의 우고 차베스는 서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게 된 바, 우고 차베스가 창당한 MVR(MOVIMIENTO V REPUBLICA)당은 좌파계열의 MAS당과 PPT당과 손잡고 POLO PATRIOTICO(애국지주)라는 연합을 구성, '98년 11월 8일 총선에서 40%가 넘는 높은 지지를 얻은데 이어 12월 6일의 대선에서도 우고 차베스는 52%의 과반수가 넘는 득표로 우익연합의 SALAS ROMER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99.2.2일 대통령에 취임한 차베스 대통령은 군부와 POLO PATRIOTICO의 주요인사들을 각료에 임명하고, 자신의 장기집권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즉, 선거 공약에서 주장한대로 4월 25일 제헌의회설치와 헌법개정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헌법개정 의지를 관철시켰으며, 7월 25일 실시한 제헌의회 선거에서는 전체의원 131명중 95%가 넘는 125명을 자신의 지지자들로 당선 시켰다.

제헌의회는 '99년 11월까지 헌법 개정작업을 마치고, '99.12.15일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한바, 유권자의 46%가 투표에 참가, 71%의 찬성률을 보임으로써 헌법개정안은 통과되었다. 한 언론의 출구조사에 의하면 부유층 거주지역에서는 82%, 중산층 거주지역에서는 56%의 반대표가 나왔으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빈민층들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70%가 넘는 찬성률이 나타났다.

제헌의회는 6개월의 한시적 조직이었기 때문에 2000년 초 해산되었으며, 해산전 제헌의회는 원천적 권한을 가진 초헌법적 기구로서 새로운 임시체제를 발동시킨바, 종전 상하 양원은 모두 해산시키고 제헌의원 중에서 선발된 21명으로 구성된 소의회(Congresillo)에 의회의 기능을 맡겼으며, 대법원도 총선 후 새 의회가 구성되어 대법관을 인준할 때까지 임시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주지사, 시장 등은 종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총선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당선될 때까지 현직을 그대로 유지토록 하였다.

소의회는 신 헌법에 의한 새로운 총선 일을 2000년 5월 28일로 잡고, 대통령, 국회의원, 주지사, 시장, 자치단체 의회의원 등 총 6,000명 이상을 선출하는, 말 그대로 Mega Eleccion을 추진하였다.

그 동안 권력내부에서는 차베스 대통령의 스승으로 실권을 장악한 Luis Miquelena MVR 당 총재와 '92년 차베스 대통령과 같이 구테타를 거행했던 ZULIA 주지사Francisco Arias Cardenas, 정 정보부장 Jesus Urdaneta 와 Yoel Acpsta Chirinos등 구 군부세력과의 권력 다툼이 일어난바, 차베스 대통령이 Miquelena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구 군부세력은 MVR당을 탈퇴, 반차베스 노선을 걷게 되었다. 이들은 Arias Cardenas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고 대권 도전에 뛰어들었다.

5월 28일로 예정되었던 총선은 워낙 많은 인원을 선출하는 선거임에 따라, 선거의 전산화에 오류가 생겨 제날짜에 치루지 못하고 이를 분리, 대통령, 국회의원, 주지사, 시장 등 주요 보직은 7월 31일에, 나머지 기초단체 의원 등은 9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7월 31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차베스 대통령은 대다수 빈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인해 59.2%의 높은 득표율로 재 당선되었다. Arias 후보는 야당의 지지와 차차베스 대통령과의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하는데 실패하여 38%의 득표를 하는데 그쳤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당은 과반수가 넘는 97명을 당선시켰으며, 주지사 선거에서도 총 24개 주 중 14명을 당선시켜 압승을 거두었다.

여당은 국회의원이 과반수는 넘었으나,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2/3에는 미달함에 따라 야당 일부 인사를 포섭하여, 2/3 를 거의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차베스 대통령은 향후 6년 임기 동안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장기집권 체계는 갖추어 놓았으나 차베스 대통령의 지속된 리더쉽과 비전 부재로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하락하였으며 특히 기업가 층으로부터는 하야성명까지 발생하는 등 정권기반이 초기에 비하여 불안정한 상태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2년 3월부터 시작된 정치 불안은 4월 기업, 노조, 시민에 의해 하야되었고 다시 군부에 의해 집권하는 등 정치적인 격변을 겪었다 그러나 고유가로 인한 높은 수입을 빈민층의 구제(교육, 의료, 식료품 등)에 사용하므로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빈민층의 지지를 이용, 정치안정화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지난 3년과 같은 정치적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2004. 8. 15일 실시된 국민소환투표 결과 현 차베스 대통령이 압승을 거둬서 차베스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2007년 1월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같은해 10.31일 실시된 지자체장 선거에서도 차베스파가 22석의 주지사 중 20석을 석권하였으며 시장 선거에서도 카라카스 시장을 포함한 다수의 시장직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05년 12월 4일 국회의원선거가 중앙선거위원회(CNE)에 의해 전국적으로 실행되었다. 총 투표자 11,955,956중에 2,973,872(24.87%)가 투표에 참여하였다. 기존의 MVR 당 소속 66명에서 11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기타당에서 선출된 의원도 사실상 친 차베스이기에 165석 모두 친 대통령 국회의원들이다. AD당은 33석에서 전무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따로 차베스 정권은 공공히 그 기반을 다지게 되었고, 앞으로 경제, 산업, 정치 모든 면에 있어 차베스 정권이 주도할 전망이다.

2.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베네수엘라는 대통령 중심제의 연방공화국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군 통수권을 갖는다. 베네수엘라는 '99년 12월 15일 헌법 개정을 통해 종전의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3권 분립체제에서 사회정의와 선거부를 추가한 5권 분립체제로 변경하였다. 또한 부통령제를 신설하여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직을 대행토록 하였다.

가. 행정부

2006년 현재 총 23개 부가 있다.

23개부는 내무, 법무부(종전 2개 부에서 1개로 통합), 농림부, 식품부, 과학기술부, 통신, 정보부, 외무부, 상업 생산부(종전 상공부와 농축산부를 통합), 재경부, 사회간접자본부(종전 교통통신부와 도시개발부를 통합), 기획, 개발부, 사회개발부, 노동부, 천연자원부, 국방부, 교육, 스포츠부, 고등교육부, 에너지, 석유부, 광산부, 산업, 상업부, 보건부, 문화부, 경제부, 통합경제부 이다. 이중 수석부는 내무, 법무부이다.

행정의 권한은 다른 공무원도 있지만 대통령, 부통령, 장관들이 주로 행사한다. 대통령은 국가와 행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베네수엘라 출생의 이중 국적자가 아닌 사람으로 30세 이상 되고 형사적 전과가 없어야 한다. 부통령도 동일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그는 대통령의 친인척이어서는 안 된다. 부통령은 국가 및 정부 수반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로서 그 임면(任免)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정부를 통괄한다.
- 부통령과 장관들을 임명한다.
- 대외 정책을 지시한다.
- 국제 조약을 체결한다.
- 군대를 통할한다.
- 비상 사태를 선포한다.
- 법률적 효력을 가진 포고령을 반포한다.
- 법률을 조정한다.
- 공공 재정을 관리한다.
- 국익이 걸린 조약을 공표한다.
- 법무총장과 해외공관장 단장을 임명한다.
- 경제 정책을 입안한다.
- 형 집행 연기를 허용한다.
- 장관들의 수, 조직, 권한을 결정한다.
- 국회를 해산한다.
-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나. 입법부

종전 상, 하 양원제에서 '99년 12월의 헌법개정에 의해 단원제로 바뀌었다. 의원수는 165명이며, 임기는 5년으로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 2000년 7월 30일의 선거에 의해 처음으로 단원제 국회가 구성되었다. Asamblea Nacional 이라는 기관이름으로 입법이 실행된다. 의원들에게는 취임 후 그들의 임기 종료나 사임 시까지 그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의원 구금 명령은 대법원만이 내릴 수 있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의원의 면책특권을 박탈한 후에야 그리 할 수 있다. 제187조는 국회의 책무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국가적 사안에 대한 입법
- 헌법 개정
- 정부와 행정 기관에 대한 관리자 역할
- 국가 예산 및 공공 차용 승인
- 일반적인 경제 정책 승인
- 행정부에 국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줌
- 부통령과 장관들에 대한 불신임
-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궐위 결정
- 행정부가 체결한 국제 조약과 협약 등을 승인한다.

다. 사법부**□ Tribunal Supremo de Justicia**

대법원, 고등법원, 초심법원의 3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2006년 현재 대법원은 2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30세 이상, 베네수엘라 국적의 변호사 자격이 요망된다. 대법관은 임기 9년으로 매 3년마다 정원의 1/3을 국회에서 선출한다.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

대법원의 주요한 책무는 다음과 같다.

- 헌법이 정한 사법권을 행사한다.
-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장관, 검찰청장, 법무총장, 감사원장, 민원조사관, 주지사, 군장성, 해외공관장 단장에 대해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 행정적 조례의 무효를 선언한다.
- 법률을 해석한다.
- 부처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 형 집행 정지의 근거를 파악한다. 등.
 - 대법원장 : Dr. Omar Mora Diaz
 - 제1 부법원장 : Dr. Luisa Estella Morales Lamuno
 - 제2 부법원장 : Dr. Carlos Alfredo Oberto Velez

3. 주요인사

가. 국가 원수

대통령 HUGO CHAVEZ FRIAS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 생년월일 : 1954년 6월 28일생
- 출신지 : BARINAS주의 SABANETA에서 학교 교사였던 父 HUGO DE LOS REYES CHAVEZ와 母 ELENA FRIAS 사이에 출생(아버지인 HUGO DE LOS REYES CHAVEZ는 '98년 11월 총선에서 BARINAS주의 주지사로 당선되었으며, '99년 9월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금년 총선에서 다시 주지사로 당선되었음)
- 학력 : 출생지인 SABANETA에서 초등학교 졸업 후 BARINAS주의 수도인 BARINETA로 이사, 중등학교를 다님. 중등학교 재학시 야구선수로 활약했으며 졸업 후 육군사관학교 입학
- 주요경력
 - 1975년 소위 임관.
 - 1982년 볼리발 혁명운동(MOVIMIENTO BOLIVARIANO REVOLUCIONARIO/ MBR-200)에 가입, 사회주의 운동 시작
 - 1991년 공수여단장 부임 후 1992년 2월 4일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실패, 2년 간 옥살이를 한 후 깔데라 대통령 취임 시 특별 사면으로 석방
 - 1996년 차기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고 MBR-200을 MVR(MOVIMIENTO V REPUBLICA)로 개칭, 세력을 규합하고, '98년말 선거에서 사회주의 정당인 MAS와 PPT(PATRIA PARA TODOS)와 연대, 애국지주연합 (POLO PATRIATICO)을 결성, 승리
 - 1999. 2월 대통령 취임
 - 2000.7.30 개정된 헌법에 따라 실시된 총선에서 다시 대통령에 당선
 - 2000.8.19 대통령에 재취임(임기 6년, 1회 연임가능)
 - 2002. 4월 2일간 축출, 회복
 - 2006. 8월 대통령 재선거

- 가족사항: 부인 MARISABEL RODRIGUEZ(36세)와 1남 3녀(현재의 부인과는 재혼으로 전처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었으며 현부인과의 사이에는 3살 된 딸이 있음) 부인은 99년 제헌의회 의원으로 출마, 당선되었으며, 2000년 총선에서 카라카스 근교의 미란다주 지사로 출마한다는 설이 있었으나, 심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됨.
- 취미 : 야구와 독서

나. 주요 인사 (2005.12월 기준)

1) 행정부

- 대통령: Mr. Hugo Chavez Frias
- 부통령: Mr. Jose Vicente Rangel
- 외무부장관: Mr. Ali Rodriguez Araque
- 내무 및 법무부장관: Mr. Jesse Chacon
- 재경부장관: Mr. Nelson Merentes
- 기획.개발부장관: Mr. Jorge Giordani
- 국방부장관: Mr. Raul Baduel
- 경제부장관: Ms. Elias Jaua Milano
- 산업.상업부장관: Ms. Maria Cristina Iglesia
- 정보.통신부 장관: Ms. Yuri Alexandra Pimentel
- 교육.체육부장관: Mr. Aristobalo Isturiz
- 고등교육부장관: Mr. Samuel Moncada
- 식품부장관: Ms. Erika del Valle Farias Pena
- 농림부장관: Mr. Elias Jaua Milano
- 에너지.석유부장관: Mr. Rafael Dario Ramirez Carreno
- 노동부장관: Ms. Ricardo Dorado Cano-Manuel
- 사회간접자본부장관: Mr. Jose David Cabello Rondon
- 보건부장관: Mr. Francisco Armada
- 광산부장관: Mr. Victor Alvanrez Rodriguez
- 문화부장관: Mr. Francisco de Asis Sesto Novoas
- 주택부장관: Mr. Ramon Alonzo Carrizales Rengifo
- 관광부장관: Mr. Wilmar Castro Soteldo
- 환경.천연자원부장관: Ms. Jacqueline Cromoto Faria Pneda
- 사회개발부장관: Mr. Gral. Jorge Luis Garcia Carneiro
- 과학기술부장관: Ms. Yadira Cordova
- 통합.상업부장관: Mr. Gustavo Adolfo Marquez Marin

2) 입법부

2006년 8월 국회의장단은 다음과 같다

- 의장 : Mr. Nicolas Maduro Moros (MVR당)
- 제 1 부의장 : Mr. Ricardo Antonio Gutierrez Briceno (MVR당)
- 제 2 부의장 : Mr. Pedro Miguel Carreno Escobar (MVR당)

3) 사법부

2006년 8월 현재 대법원장 및 부대법원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대법원장: Dr. Omar Mora Diaz
- 수석부원장: Dra. Luisa Estella Morales Lamuno
- 차석부원장: Dr. Carlos Alfredo Oberto Velez

4. 외교관계

가. 외교 정책

베네수엘라의 전통적인 기본 외교노선은 복수이념주의(PLURALISM)에 입각한 국제관계의 다변화에 두고 있다. 즉 친미, 친서방 외교정책을 견지함과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 및 제3국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적인 외교방향으로 삼고 있다.

또한 안데스그룹 회원국으로서 회원국간 공동시장 형성 및 페루의 재가입 주선을 통해 안데스 그룹의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중미, 카리브 제국에 대한 원유공급협정(San Jose 협정)을 통해 동 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카리브 국가연합(ACS) 초대 사무 총장국으로 피선되는 등 중미, 카리브 지역 경제통합외교를 적극 수행 중이다.

그러나 차베스 대통령 취임 후 쿠바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은 또한 '99년 NATO의 유고 폭격도 반대한바 있으며, 콜롬비아의 마약 퇴치와 관련, 미국 비행기의 베네수엘라 영공이용 요청을 거부하는 등 미국과 사사건건 부딪쳤다.

또한 2000년 7월 차베스 대통령의 OPEC 회원국 순방 시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이라크를 방문하여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바 있다. 차베스 대통령은 '90년 걸프전 이후 이라크를 방문한 최초의 국가 원수로 기록되었다.

한편, 차베스 대통령은 인근 중남미 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베네수엘라가 중남미의 중심 세력 역할을 하며, MERCOSUR와의 관계도 강화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미국과의 경제협정을 맺은 몇몇의 중남미국가로 인해 심기가 불편하던 차에 ANDEAN, G3의 탈퇴를 선언하여 단계를 밟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무기로 하여 카리브 중미지역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 2000년 10월 19일 중미 카리브 11개국과 카라카스 에너지 협력 협정(EI Acuerdo de Cooperacion Energetica de Caracas)을 체결하였다. 베네수엘라가 공급하는 원유는 1일 8만 배럴로, 도미니카 공화국에 2만 배럴, 과테말라 1만 배럴, 엘살바도르 8천 배럴, 파나마 8천 배럴, 코스타리카 8천 배럴, 자마йка 7천 4백 배럴, 하이티 6천 5백 배럴, 온두라스 5천 배럴, 니카라과 4천 9백 배럴, 바베이도스 1천 6백 배럴, 벨리제 6백 배럴 등이다. 지원 조건은 원유가의 일정부분을 외상으로 주는 것인데, 1년 거치 15년 내 상환(니카라과, 온두라스는 1년 반 거치 15년 후 일시 상환조건)이며 이자율은 2%이다. 외상으로 지원되는 부문은 유가에 연동되는데 유가가 30\$ 이상이면 25%, 24\$-30\$선이면 20%, 22\$-24\$은 15%,

20\$-22\$은 10%, 15\$-20\$는 5%로 정하였다. 쿠바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정을 맺어 1일 5만 3천 배럴의 원유를 공급기로 하였다. 대금 지불 조건은 유가와 연동, 일정 부분은 크레딧을 주며, 크레딧은 9일만에 갚는 단기와, 2년 거치 15년 상환의 장기로 구분되고 이자율은 역시 2%이다. 또한 상환방법에 있어, 의료서비스, 농공업 지원, 관광업 지원, 조립식 주택 건설 등 현물로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환방법은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다. (동 상환방법은 2001년 8월 카스트로 대통령 베네수엘라 방문 시 현금 상환으로 변경하였다고 함) 2001년 들어서는 파라과이와 수리남에 대해서도 1일 1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인근 가이아나와는 영토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1975년 비엔나협약에 의해 인근 가이아나와의 접경지역 일부를 가이아나의 지배하에 놓고 있는데, 2000년 들어 미국의 위성 발사회사에서 동 접경지대에 인공위성 발사대를 설치하겠다고 하여 문제가 되었다. 베네수엘라는 이에 적극 반대하여 무산되었지만, 동 지역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가이아나 정부가 동 지역 자원개발을 위해 외국회사에 인가해준 개발권까지 트집을 잡은 바 있다.

베네수엘라는 2000년 9월 27-28일 카라카스에서 OPEC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OPEC 정상회담은 60년대 알제리에서 개최된 후 이번이 두 번째인데, 차베스 대통령은 OPEC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OPEC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차베스 대통령은 OPEC 국가를 직접 순방하며 각국 원수들의 참석을 유도하였는데, OPEC의 역할 강화를 위한 차베스대통령의 노력의 결과로 OPEC은 과거보다는 결속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알리 로드리게스 에너지장관은 2001년부터 OPEC 사무총장으로 피선되기도 하였다. 2001년 들어 베네수엘라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4월 강택민 중국주석이 방문,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다진바 있는데, 중국측은 베네수엘라에 농업분야에서의 지원과 오리물전 공장을 짓기로 하였으며, 베네수엘라는 얼마 후 제네바에서 개최된 UN 인권위원회에서 중국의 제재에 반대를 함으로써 이에 화답하였다.

이어 차베스 대통령은 5월에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 아시아 순방에 나섰는데, 러시아, 중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발언을 계속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하반기에 석유 가격하락 저지를 위해 개최된 오스트리아 OPEC회담에서는 베네수엘라가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어 석유 최대 수입국인 미국 및 유럽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미국 뉴욕 및 워싱턴 테러 사건 후에 차베스 대통령은 "테러의 원인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적인 이스라엘 지지에 의한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주미 베네수엘라 대사가 국무성으로 소환되기도 하였다. '02년 미국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차베스 정권이 악화 조짐을 보일 경우 미국의 중남미 영향권을 감안할 때 어떠한 형태로든지 신 정부 수립에 개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은 대미 석유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 국가와 수출 및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며, 역내 통합의 방편으로 에너지 통합을 적극주장하고 있다. 특히 좌파성향의 이념적 공감대를 이루는 중국, 인도, 이란, 쿠바 및 역내 라틴국가들과 적극협력하고 있다.

2006년 7월과 8월에 걸쳐 러시아, 벨루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순방을 통해 군사적, 경제적 협력관계를 체결하였다.

나. 지역주의 참여

1) 안데안 공동시장(2006년 3월 공식적인 탈퇴선언)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5개국으로 구성된 안데안 공동시장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베네수엘라는 안데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역내국간에는 무세, 역외국과는 공동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신관세를 시행령 제2087호에 의거 '92년 3월 24일부터 적용, 시행하고 있다.

□ 역 외국 적용세율

-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및 자본재 : 무세
- 역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및 자본재 : 5%
- 제조품 : 15%
- 최종소비재 및 사치품 : 20%(사치품에 사치세 부과)
- 자동차 : 25%

2006년 3월 안데안 공동체의 공식 탈퇴를 선언하였다.

2) G-3 자유무역협정 (2006년 3월 공식적인 탈퇴선언)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3국은 '95.1.1일부로 3국간 자유무역을 실시하였는데 기본 원칙은 자동차와 농산물, 그리고 지난 '94.5월 추가로 제외된 섬유부문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멕시코는 처음에 36%를 인하하고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는 21%를 인하한 후 '95년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10년 후에는 완전자유무역을 도달한다는 것이다.

3) LAIA(중남미경제연합)

베네수엘라 상공부는 '96년 1월부터 남미공동시장 회원국과의 교역 시 특혜관세(Preferencia Arancelaria Regional: PAR)를 적용기로 하였다. PAR은 LAIA 회원국간 교역 시 적용하는 관세로서 각국이 정한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데 베네수엘라는 LAIA 회원국 중 유일하게 PAR 제도 미 시행국이었다.

□ PAR의 주요내용

-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와의 교역 시 베네수엘라는 수출에 있어서 각국 수입관세의 28%를 면제받으며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2%를 면제
-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로 수출 시는 12%를 인하 받으며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28%를 감면
- 칠레, 멕시코, 안데안 국과는 이미 개별협정에 의해 관세 감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LAIA 특혜관세(PAR)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LAIA 특혜관세(PAR) 제도는 1980년에 체결된 우루과이 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회원국의 발전 정도에 따라 관세 감면 폭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또한 현재 안데안과 MERCOSUR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선 기구간 협정 체결 이전에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진행되고 있다. 안데안은 MERCOSUR 국가 중 아르헨티나, 브라질과는 2000년중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와 협정 체결했다. 일단 국 별 협정을 체결한 후에 기구간 협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베네수엘라는 2001년 5월, 단독으로 MERCOSUR에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사전 ANDEAN 국가들의 동의를 얻지 않아 안데안 국가들과의 사이가 불편해지고 있다.

한편, 2001년 4월20-22일간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해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된 34개국 미주정상회담에서 차베스 대통령은 2005년 말 발효를 가능케 한다는 조항, 대표 민주주의 국가만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에 유보를 달아 다른 국가들의 빈축을 산 바 있다.

4)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04년 7월 8일 준 회원국으로 인정받은바 이래, 줄곧 된 차베스 정권의 노력으로 2005년 12월 9일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정식으로 베네수엘라를 MERCOSUR의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베네수엘라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창설 회원국과 같은 자격으로 MERCOSUR의 5번째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합의해야 할 관세, 품목 등 여러 사항들이 남아있고, 준회원국들과의 관계 등도 매듭지어야 할 문제이다.

안데안 공동체, G3 탈퇴 이후 남미공동시장 강화를 천명하였다.

다. 국제기구 가입

□ 베네수엘라가 가입한 주요 국제기구

- UN (국제연합 / 45.11.15 가입) 및 산하기구
- LAIA (중남미통합연합),
- ANCOM (안데스공동시장),
- OAS (미주기구),
- IDB (미주개발은행),
- SELA (중남미경제기구),
- OPEC (석유수출국 기구/ 창설회원국),
- WTO (세계무역기구 / 90.8.31, GATT 가입),
-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04.07.08 준 회원국, 05.12.09 창설회원국자격획득)

5. 주한주재국기관

가. 한국 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한국대사관	TEL: (58-212) 954-1270/1139/1006 FAX: (58-212) 954-0619 e-mail : venadmi@net-uno.net	Av. Francisco de miranda El Rosal, Centro Lido, Piso11, Caracas
카라카스 무역관	TEL: (58-212) 762-9925/9832 FAX: (58-212) 762-2263 e-mail : ktcccs@cantv.net	Edif. Seguros Mercantil Piso 6, Av.Francisco Solano con Av.Acacias, Sabana Grande, Caracas
한인회장 (정회년)	TEL: (58-212) 963-2178 FAX: (58-212) 961-0190	Res. York Palace, Apto. 41-A, Urb. El Cigarral, Caracas

나. 주재 상사

업체명	연락처	주 소
LG전자	TEL: (58-212) 202-2200/6 FAX: (58-212) 237-8325	Calle Los Laboratorios, Centro Gerencial, Los Cortijos P.B., Mesanina, Los Cortijos de Lordes, Caracas
삼성전자	TEL: (58-212) 264-2855 FAX: (58-212) 266-6069	Campo Alegre, Av. Francisco de Miranda, Torre Edi Campo, Piso 7, Ofic. 73/74, Caracas

다. 기타

명 칭	연락처	주 소
한인침례교회	TEL: (58-212) 978-0161 FAX: (58-212) 978-2098	Quinta Dasarang, Final de Calle Panama, Urb.Terrazas del Club Hipico Caracas
한국식품(Lotte Market)	TEL: (58-212) 285-2957	Res. Alcoma Local 7 y 8, Av. 2da/ Calle 3ra Transversal Los Palos Grande, Caracas
한국식당(DINDIN)	TEL: (58-212)284-8457	Av. 3ra con 7ma Transversal, Los Palos Grandes, Caracas

6.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베네수엘라 관계

베네수엘라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선린우호 정책을 유지하여 왔으며 1965년 국교수립, '83년 주한상주공관 설치, '93년 과학기술협력 기본협정 체결 등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99년 10월 차베스 대통령의 방한으로 현지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좋아져 있다.

C.A.Perez 대통령 집권 당시에 베네수엘라는 국제관계 다변화 정책에 따라 '74년 북한과 수교한 바 있다. 북한의 대남도발책동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며, 한반도 평화통일 원칙을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상주공관을 운영하다가 '99년 초 철수한 바 있다.

체결협정	과학기술협정('93), 문화협정('95) 외교관·관용여권 비자면제협정('94) 1개월 미만 관광 무비자협정('05)
교역규모 (2005년)	수출 U\$229.9백만, 수입 U\$93.6백만, 수지 U\$136.3백만
교역품목	수출 -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휴대용전화기, 통신기자재 등 수입 - 철강, LPG, 원유, 비철금속, 목재 등
투자	POSVEN 진출 (POSCO 합작투자기업 / U\$54,293천) -> 현재 철수함
교민	약 150명 (체류자 포함)

나. 현안사항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한 클레임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부품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품 미선적, 중고부품 선적 등에 따른 클레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회용 주사기의 경우 수량 부족, 물량 선적에 따른 클레임이 늘고 있다.

이런 클레임들은 한국상품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므로 대 베네수엘라와의 거래 시 우리업체의 신중하고 성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베네수엘라가 안데안 회원국, G-3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함에 따라, 한국산제품의 경쟁력 상실 등 부정적인 요인이 가시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 멕시코와의 G-3협정에 따라 콜롬비아산 타이어는 무관세로 반입되는 반면, 국산 타이어는 15%의 관세를 납부해야 함에 따라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경제공동체의 관세 인하 폭은 시간이 감에 따라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상품은 지속적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국내 상품의 경쟁력 미달로 국내산업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수입 규제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반덤핑 제소와 세이프가드 제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 초 철강판에 대해 세이프 가드가 제소되었다가 국내업계의 반발로 철회된 바 있으며, 3월에는 승용차용 타이어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제소되어 12월 반덤핑 위원회는 세이프가드 조치 타당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동건은 상업생산부의 검토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되었으나 2001년 12월 현재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조립 업체들은 수입 차의 범람으로 국내 조립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에 세이프 가드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지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정부로서는 자동차 산업의 육성이 고용은 물론 연관부품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모종의 조치는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 방법으로 현재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차 제도를 확대하여 국내 조립 상업용 차량 (버스, 택시, 소형 트럭, 오토바이 등)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한-베네수엘라간 경제협정이 없어 통상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시급히 경제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입찰 시 국가간 맺은 경제협정에 기인하여 입찰허가를 발주하는데 한국과는 계약이 없이 각 프로젝트간 정부 대 정부의 형식으로 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하반기(10월)에 베네수엘라의 제2 전력공사인 Cadafe에서 9,000km의 광케이블입찰을 중국간 경제협정에 의거 중국정부에 제공하였다. 중국 내 자국산의 광케이블 제조업체가 없어 유럽, 일본, 한국의 광케이블 제조업체와 재 협정을 맺었다. 주재국에서는 중국에 입찰수주를 준 것은 중국산을 납품하라는 내용이므로 계약위반으로 거부한 실례가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간 포괄적인 경제협정이 있는 경우 베네수엘라 정부, 기관의 입찰수주가 용이하므로 신속한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2006년 5월 차베스 대통령은 안데안 회원국, G3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였고 MERCOSUR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현재 주변국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언은 우리나라에 청신호로 작용하여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수출 다변화와 정부 대형 프로젝트에 임해야 하겠다.

II. 경제

7. 경제정책

가. 경제정책 방향

차베스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은 경기 회복을 통한 고용 증대와 인플레이 억제가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차베스 정부는 매년 경제 성장을 목표를 4.5%, 인플레이 억제는 10%선으로 정한 바 있다. 우선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투자를 크게 늘린다는 생각이며,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서는 평가 절하율을 연간 7% 이내에서 막겠다는 생각이다. 차베스 정부의 경제 사상은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즉 빈민, 대중 우선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 보장 체계를 대폭 정비했으며 토지 개혁을 통해 대규모 농장제를 없애고, 이를 소작농들에게 분배하기 시작했다. 또한 경제개혁을 막는 부정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부정부패에 대한 색출 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시스템적으로 이를 막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경제 비전과 경제방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경제발전은 민간 분야에서 주도해야 하나, 차베스 정부는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정부 주도하에 경제 개혁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99년 하반기 이후 유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 자금 사정이 비교적 넉넉한 바, 이를 투자 쪽으로 유인하는 것이 좋으나, 이를 대중들의 복지를 위한 소비 쪽으로 분배하는 경향이 커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차베스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계층간 소득을 줄이고 분배를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지속성과 일관성이 없고 그때그때 영합하는 정책을 구사하여 기업인들과 야권으로부터 정권 퇴진 요구를 받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004년, 2005년 연이은 선거결과로 정치의 안정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 가운데 계속된 고유가와 정부지출의 힘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2006년도 정부지출은 모두 정치에 맞추어 행해질 것이며 고유가의 힘으로 함께 올라갈 것이다.

나. 경제 다변화 정책

차베스 정부는 산업, 지역개발, 경제협력 등을 다변화 시켜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선 경제의 석유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서 국가경제가 유가에 따라 좌우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산업을 다변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석유산업은 고용 효과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신 정부는 고용확대 효과가 큰 노동집약산업을 중점 육성시키고자 하고 있다. 국가 개발에 있어서도 현재 대부분의 지역개발이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브라질과 콜롬비아에 접경한 내륙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내륙 개발은 이 지역에 매장된 많은 자원 개발과 아울러 고용 창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이 밝혀진 것이 없다. 대기업과 주력 육성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일부 중소기업에 대한 소규모 프로젝트만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대외적인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종전의 미국, 유럽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근 브라질, 콜롬비아 등 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또한 아시아 신흥 개도국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타 산업은 아직 개도국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대부분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연간 소득 1,000\$ 미만의 최빈 개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베스 정부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흥 개도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배우려고 하고 있다. '99년 한국, 중국 등 아시아를 순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12월 차베스 대통령의 방주, 2005년 1월 청징홍 중국 국가 부주석 방베 등을 통해 에너지 개발 협력 가속화를 이루고 있다.

쿠바와는 현재 의학, 교육, 체육분야에 협정을 통해 교수 및 기술자, 의사들을 베네수엘라에 파견했고, 베네수엘라는 의학도들을 쿠바에 파견,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다. 그 이외에 인도, 프랑스 방문과 2005년 4월 스페인의 Zapatero총리의 방문 등을 통해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2005년 MERCOSUR의 가입 등, 적극적으로 남미 경제 강대국과 관계를 모색하는 한편, 반미 경제를 선포하여 농업, 임업, 석유산업 등에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꾀하는 가운데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2006년 7, 8월 사이 러시아, 벨로러시아, 중국, 말레시아 순방을 통해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체결하였다.

다. 외환 정책

차베스 대통령은 외환통제나 급격한 평가절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으나 2003년 2월 6일부로 전면적인 외환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은 순수 외환 보유고가 200억불 이상이 되면 외환통제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고, 2003년 12월말 외환 보유고가 200억불에 도달, 고유가의 힘으로 2005년 말 300억불에 이르게 되었다. 절차상의 외환통제 완화는 있지만 계속해서 CADIVI의 실제적인 절차를 통해서만이 달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외환 통제는 계속되고 있다.

라. 외국인 투자정책

차베스 정부는 외화 확보 및 국내 산업 개발, 고용확대를 위하여 외국의 투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2000년 말부터 본격 개발되는 가스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희망했다. 그러나 가스 분야 입찰에 있어서도 매장이 확인된 부분은 국내업체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고, 알루미늄 민영화도 과거 100% 매각에서 외국인의 부분 참여로

방향을 전환하는 등 특히 자원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약간은 제한을 두는 정책을 펴고 있다. 반면 사회간접 자본 건설, 통신분야, 제조업 등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크게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 무역 정책

기본적인 무역자유화 정책은 계속 시행해 나갈 것이다. 차베스 경제팀은 인위적인 수입 규제나, 관세 인상, 반덤핑 규제, 환율 조작을 통한 수출증대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지화 고평가에 따른 국내산업 위축을 막기 위해 간접적인 수입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2000년 이후 차베스 정부가 정부 조달의 경우 국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인근 안데안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할 것처럼 보였으나 차베스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하여 안데안 공동체, G3 국가의 탈퇴를 선언하였고, MERCOSUR와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MERCOSUR의 정식회원가입으로 앞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등과 무역자유지대를 신설하는 등, 여러 가지로 협의해야 할 사항들을 남겨두고 있다.

8.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베네수엘라의 경제성장률은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2002년 (-)8.9%, 2003년 (-)7.7%로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4년 하반기 차베스 대통령의 국민투표 승리로 정치가 안정되고 국제유가도 급등세를 보여 2004년에는 17.9%라는 경이적인 성장세를 보인 이후 2005년에도 7.1% 성장했고 앞으로도 안정적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2006년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계획되어 있는데 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상 유례없이 높은 국제유가 및 이에 따른 원유 판매수입 급증, Mission이라는 명칭의 각종 대 빈민 사회복지정책수행과 정부-공공부분의 시장확대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06년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경우 2006년에도 6%의 양호한 성장이 예상된다.

가. 서민, 빈민을 위한 분배주의 정책과 사회주의 노선 강화 예상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높은 원유가격, 정치 안정에 따른 경제 회복세, 그리고 2회의 투표 승리를 통한 “볼리바르 혁명”(남미 해방의 아버지 시몬 볼리바르 장군의 뜻을 받들어 부자로부터 빈자를 해방시킨다는 차베스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대한 새로운 사명감 등으로 차베스 대통령의 populist적 사회복지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06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서민과 빈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경우 이러한 분배주의와 사회주의 노선은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차베스 정부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대된 팽창예산으로, 이중 40% 정도를 Misión Sucre(빈민층에 대한 고등교육 프로그램) 등 빈민들에 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배분되어 있고 the Mercal System에 의해 식료품, 의료용품 등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30% 내외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재집권 시에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정부 재정지출 확대는 대부분의 경우 재정적자 증대로 이어지지만 고유가 덕분에 정부 재정이 크게 증가한 덕분이다.

그러나 향후 유가 하락 시 베네수엘라는 공공부문의 과다한 인력 고용, 낮은 세수율 등의 구조적 문제로 심각한 재정적자 상태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FIEM(거시경제안정기금/석유수입 초과분을 비축, 향후 국제유가 하락 시 정부 재정에 충당하는 기금) 자금의 빈민복지 프로그램 전용은 국제유가 하락 시 정부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나. 급격한 경제 회복세

한편 이와 같은 사회복지정책 수행에 따른 정부 재정지출 증대와 고유가에 의한 부유층의 수익증가로 베네수엘라 경제는 V자형의 급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4년 판매한 자동차 대수가 134,357대였으나 2005년에는 228,378대이고, 2006년 말까지 250,000대 이상의 판매를 예상하고 있으며 핸드폰, 가전 등의 내구재 및 고급품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떠났던 외국인 투자가 급속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가격 및 외환통제 등으로 내국인 투자가 활기를 되찾는대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 원유 수익이 관건

베네수엘라는 사상 초유의 고유가로 2004년도 중 전년 대비 16% 증가한 U\$260억의 석유판매 실적(해외 자회사 판매분 미포함)을 거두었다.

이러한 막대한 석유판매 수익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각종 사회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팽창 재정 정책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반면 경제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향후 어떤 원인에 의해서 국제유가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베네수엘라가 맞게 될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전문가들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2006년 3월 31일 차베스 대통령의 원유포함 모든 자원의 직접적인 정부 주도의 국유화 선언으로 원유가격의 영향력 행사권을 확보한 가운데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다. (11월 배럴당 61.24US\$)

라. 외환통제는 지속

베네수엘라는 지난 2002.12월의 총파업 이후인 2003.2.6일부터 지금까지 외환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고정환율제 도입 및 동 환율(공정환율)에 의한 외환배정 실시가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외환통제가 외환보유고 증대에 큰 도움이 됨에 따라 외환통제를 담당하는 Cadivi(외환운영위원회)는 통제초기의 엄격한 관리에서 벗어나 외환배정기간을 단축하고 공급량도 늘리는 등 한시적으로 외환통제를 완화시켰다. Cadivi의 2004. 2/4분기 1일 외환공급량은 평균 U\$5천만 수준이었으나 9월에는 U\$7천4백만으로 증대되었다. 그러나 외환통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제 철폐 시 급속한 자본의 해외유출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외환통제

초기에는 공정한환율이 달러당 1,600Bs이었으나 '04년도 초에 1,920Bs로 20% 인상되었고, '05년 3월부터 현재까지 2,150Bs 이다.

2005년 예산안의 환율 인상폭(12.0%)은 지난 '04년 보다 낮은 수준인데 이는 최근의 고유가에 따른 외환보유고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정환율제 도입으로 평행시장(parallel market) 환율 (민간부문에서 적용되는 실세 환율)도 나타나게 되었다.

실세환율은 지난 8.15일 국민소환투표 직전 달러당 2,900Bs 수준까지 치솟기도 하였는데 차베스 대통령 승리에 따른 정치 안정으로 '06.11월초 현재 2,650Bs 수준이다.

마. 대외수입 급증 예상

베네수엘라의 대외수입은 지난 2001년도 이후의 정치, 경제적 위기상황 및 외환통제 등으로 2년 연속 약 30% 수준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안정에 따른 경제의 빠른 회복, 국제 고유가에 따른 외환통제의 한시 완화 등으로 향후 대외수입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통계치는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2004년도 대외수입은 전년대비 50% 이상 증대된 것으로 보이며 05년 역시 20-30% 증가한 추세이다. 2006년도 전체 대외수입액 또한 US\$ 306억으로 전망된다.

바. 종 합

결론적으로 향후 베네수엘라 정치가 불안정 요인은 남아 있으나 지난 3년간과 같은 극심한 혼란 상황으로 재차 빠져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제 고유가에 따른 석유수입 확대도 당분간은 지속되고 정부의 빈민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 정책 수행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베네수엘라 경제의 회복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특히 향후 2년간은 선거 특수가 예상된다. 물론 외환통제 완화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업체들의 적극적 대응이 요망된다.

베네수엘라의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단 위	2002	2003	2004	2005	2006(전망)
GDP성장률	%	-8.9	-7.7	17.9	9.3	6
GDP	US\$십억	95.4	85.5	111.2	145.2	167.1
인구	백만명	25.1	25.5	26.0	26.5	27.1
인플레이	%	22.4	31.1	21.8	15	14.0
경상수지	US\$십억	7.6	11.5	15.0	14.5	15.3
대외수입	US\$백만	11,673	8,337	15,160	33,186	30,600
공정한환율	Bs/US\$	1,399.5	1,600	1,920	2,150	2,150
실세환율(연말)	Bs/US\$		2,423.0	2,770.9	2,700	2,650
외환보유고(“)	US\$백만	14,860	21,366	24,208	38,523	37,789

자료원: 중앙은행 통계/Veneconomy/EIU

9. 주요 산업 동향

가. 전체 산업동향

베네수엘라의 산업 중 가장 중요한 산업은 석유관련 산업으로 국영 석유회사인 PDVSA는 베네수엘라 GDP의 1/3, 정부재정의 75%,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를 제외한 기타 산업부문이 27.1%, 서비스 부문이 69.8%를 차지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부터 정부는 산업 다변화 정책을 세우고 석유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의 육성에 착수, 소비재와 금속가공 산업을 시작으로 알루미늄, 철강, 석유화학 부문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석유화학 제품에 있어 Made in Venezuela를 생산코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89년 이후 경제구조 조정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 힘입어 '90 ~ '91년 중 제조업은 연평균 5.2%의 성장률을 보인바 있는데, 주로 내수중심의 소비재, 자동차 및 가전제품의 조립산업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제조업이 석유산업 다음으로 중요한 산업이 되었으나, 주로 외국기술 도입이나 다국적 기업이 많은 관계로 자체적인 기술력은 뒤떨어져 있는 편이다.

2001년 말 그 동안 지속되었던 고 환율 유지정책이 폐지되고 2월 13일부터 환율이 자율화되자 국내기업 경쟁력은 대폭 약화되면서 '02년 1/4분기 GDP 성장률이(-)4.2% 하락하는 등 경기 침체를 겪었다.

정부 지원이 없는 경우 국내기업의 경쟁력은 수입품에 밀려 시장에서 도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섬유, 의류, 신발 등 상시 근로인력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가 직접적인 수입규제를 실시했다.

2002년 정부의 경제, 정치정책에 반발하여 대규모 시위, 곳곳의 산업현장의 데모가 이어지며 달러환율의 300% 증가로 정부는 2003년 2월부터 고정환율제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실시 중이다.

2005년 차베스 정권은 고유가 시세를 이용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뿐 아니라, 천연가스 등 석유 이외의 여타자원에 대한 개발을 확대, 산업구조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3월 차베스 대통령은 원유를 포함한 모든 천연자원의 국유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는데 그 내용은 모든 자원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정부, 국제 사기업 합작 투자형태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 제1의 원유보유국으로 인정받아 정부중심의 산업발전을 꾀하고 있다.

연간 부문별 GDP 및 증가율

(단위: 1997불변가격, 백만 Bs.)

항 목	2003		2004		2005		2006(잠정)	
석유부문								
석유및 가스	4,636,217	-8.2%	5,419,104	16.9%	5,630,449	3.9%	5,461,887	1.5%
정유	1,836,012	18.8%	1,806,368	-1.6%	1,795,530	-0.6%	1,747,227	-1.3%
생산부문								
농업	2,099,705	-2.1%	2,220,041	2.0%	2,182,300	-1.7%	2,223,764	1.9%
광업	270,056	-8.5%	301,868	14.0%	293,416	-2.8%	324,297	3.1%
제조업	5,774,826	-5.9%	7,239,626	27.5%	8,057,704	11.3%	8,271,309	5.3%
전력.상수	941,050	-0.5%	1,005,946	8.0%	1,128,711	2.2%	1,086,744	2.4%
건설업	1,654,133	-39.5%	2,184,760	31.0%	2,711,287	24.1%	3,196,741	18%
서비스부문								
상업	2,826,260	-9.4%	3,545,829	26.5%	4,237,266	19.5%	4,205,619	4.5%
호텔.식당	374,929	-9.5%	429,294	14.5%	460,203	7.2%	490,841	4.8%
통신	1,162,102	-5.0%	1,280,844	11.0%	1,537,013	20.0%	1,715,716	12.0%
금융.보험	776,250	4.3%	982,623	26.2%	1,221,400	24.3%	1,108,792	4.0%
부동산. 기업서비스	3,877,107	-6.2%	4,251,783	12.7%	4,557,911	7.2%	4,597,640	2.4%
공공,비영리	1,906,045	-0.3%	2,216,730	16.3%	2,445,054	10.3%	2,483,148	2.3%
정부서비스	4,692,582	4.9%	5,337,899	12.9%	5,626,146	5.4%	5,934,676	2.0%
이자	-860,195	7.1%	-1,066,739	27.8%	-1,125,410	5.5%	-1,170,426	4.0%
국내총생산	35,667,526	-7.7%	42,035,812	17.9%	46,521,635	10.7%	47,836,853	5.2%

자료원 : BANCO CENTRAL DE ENEZUELA, VENECONOMIA

나. 광업

베네수엘라의 광업은 아직 미개발 분야가 많은 상태인데 주요 광물로는 철, 석탄, 보오크 사이트, 금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광물자원 현황

광물명	소재지	매장량	비 고
석유	Zulia주, Anzoategui주, Monagas주	781억 배럴	
천연가스	Zulia주, Anzoategui주	140조 입방피트	석유 244억 배럴에 해당
Bitumen	Orinoco강 유역	2,700억 배럴	중질유, 초중질유, 역청이 혼합된 가연물질
철광석	Bolivar주	28억 M/T	80% 이상이 high grade ore임 (Guayana지역)
석탄	Tachira주, Zulia주	90억 M/T	
보크사이트	Bolivar주	40억 M/T	
니켈	Aragua주	55백만 M/T	
Phosphate	Falcon주, Tachira주, Merida주	170백만 M/T	
Gypsum	Sucre주, Tachira주, Yaracuy주, Guarico주	84백만 M/T	

자료원 : 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1) 철광석

CVG Ferrominera Orinoco CA에 의해 생산되며, 주 수출대상국은 유럽, 미국, 일본 등이다. 2005년 수출량은 4,747,950MT로서 전년도 대비 12.1%(655,000MT)의 감소를 보였다.

철광석(Iron Ore) 생산, 수출 현황

(단위 : 천 M/T)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9월)
생산	19,990	10,568	19,644	21,561	16,046	14,947
수출	6,857	3,608	7,397	9,309	5,833	4,460
국내소비	8,993	5,229	9,974	11,407	10,214	10,487

자료원: CVG-Ferrominera del Orinoco, Veneconomy 종합

Ferrominera사는 년산 330만 톤의 펠렛 생산공장을 건설, 94년 9월에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일본의 Kobe Steel사는 년산 330만 톤의 2호 펠렛 생산공장을 건설, 97년부터 조업 중에 있다. 또한 민영화된 철강 제조업체인 Siderurgica del Orinoco(Sidor)사도 자사의 펠렛 생산 용량을 현재의 년산 660만 톤에서 8백만 톤으로 증가시킬 방침이다.

2) 석탄

총 매장량은 5.3억 톤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콜롬비아 다음으로 매장량이 많다. 대부분 석탄이 Zulia주 소재 Guasare탄전 내 Paso Diablo 광산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 광산은 국영 석유회사인 PDVSA(Petroleos de Venezuela, S.A.)사의 자회사인 Carbozulias사와 Agip Coal사와의 합작회사인 Carbones del Guasare S.A.가 운영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가장 중요한 석탄 매장지는 Zulia 주의 Guasare 지역으로 약 30억 톤(mt)의 매장량을 추정한다.

3) 알루미늄

국영 Corporacion Venezolana de Guayana(CVG)사는 알루미늄 산업분야의 재편, 자산의 매매 및 신규 민간투자 유도 등을 전담하는 회사로서 1994년 알루미늄 산업 재편계획에 따라 년 생산능력 6백만 톤의 보크사이트 생산업체인 Bauxiven사와 Interalumina사를 합병, Bauxilum사를 설립하였으며 연간 2백만 톤 규모의 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깔데라 정권 때 정부는 알루미늄 회사를 민영화 시킨다는 방침 하에 매각을 추진, 한국의 대우 등 많은 외국회사들이 관심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99년 말 취임한 차베스 대통령은 매각보다는 외국회사의 지분참여를 통한 투자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으며, 2000년 12월 프랑스의 Pechiny사가 자본 참여사로 결정되어 Bauxilum사와 협정을 체결하였다. Pechiny사는 총 2억 6천만\$을 투자할 계획이며 생산량을 40만 톤 증가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경영권은 계속 CVG가 갖게 된다.

알루미늄 생산, 수출 현황

(단위 : 천 M/T)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1- 9월)
생산량	605,293	601,295	623,531	615,036	456,860
수출량	459,952	458,266	413,615	417,408	312,912
국내소비량	142,846	148,661	207,810	179,656	116,424

자료원: Alcasa, Venalum

4) 금

중요한 금 매장지는 Bolivar 주로서 4지역(Tumeremo, El Callao, El Dorado, El Manteco)을 들 수 있다. 2004년도 금 생산량은 10.43톤에 달했으나, 금과 다이아몬드의 경우는 65% 이상이 불법채금 및 밀수에 의하여 거래되므로 정확한 생산량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Monarch Resource사는 Camorra 광산을 1994년 여름에 개광하였는데, 동사는 Canaima 조차지를 시추한 결과, 동 지역에 확인매장량 163,000온스, 추정매장량 69,000온스의 금이 매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lacer Dome사와 CVG사는 미화 1천만불을 투입, Kilometro 88 Mining District에 소재한 6,000헥타에 달하는 Las Cristinas 탐사 및 시추결과, 품위 0.7-1.32g/톤인 금 약 150톤이 매장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 농업

농업은 전체 GDP의 약 6%, 전체노동인구의 약 13%, 국토면적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후 경제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농산물 수입규제 완화, 보조금 지급 축소 등으로 침체 양상을 보여 왔다. 농축산물이 전체 농업생산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쌀, 과일, 야채는 대체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반면 밀, 콩, 식용유, 설탕, 우유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 농업의 실태

식량자급 및 식품가격에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생계비 및 실질임금 등 국가 경제안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농업은 베네수엘라 경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시되는 부문이다.

베네수엘라의 농업인구는 약 240만 명 수준으로 전체인구의 10%에 불과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석유개발 이전에 오랜 동안 카카오, 커피, 사탕수수를 중심으로 한 농업국가로서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특히 토지자원이 풍부하여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을 효율화하고 다양화할 경우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토 면적 910만 헥타 중에서 절반 이상은 농업용으로 이용될 수 있으나 그 중에서 220만 헥타만 농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된 토지면적 중에서도 약 32만 헥타만이 경작될 뿐이며 나머지는 주로 목초지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기후, 토질 면에서 봤을 때도 적도 부근에 위치 하지만 고도, 기후 및 강우량이 다양하고 해안선이 길기 때문에 농업에 유리한 면이 많다고 하겠다.

베네수엘라의 농업은 토지자원이 풍부한 관계로 조방적인 영농방식이 채택되고 있는데 토지 소유는 소수에게 편중되어 있다. 통계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의 토지 소유자는 약 400,000명에 불과하며, 각 농가의 평균 경작규모는 약 80헥타로 인접국가와 비교 시 상당히 대규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토지 소유에 있어서도 빈부의 격차가 심해, 1%의 농장이 거의 50%의

농지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농(20헥타 미만을 소유하는 농민)은 농장 총수의 약 74%에 해당하지만 그들이 소유하여 경작되는 농지면적은 전체의 약 4%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농의 경우, 농지개혁 정책하에서 토지를 분배 받았으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토지를 판매하거나, 은행대출을 위해 토지를 저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토지개량 또는 수리시설과 같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베네수엘라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75년 총 노동력의 21%에서 현재 약 14%로 감소)이 크게 줄어들고 또한 자본 및 기타 농업생산 자재도 점차 부족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차베스 대통령은 농민의 생활 향상, 농산물의 자급 자족이라는 측면에서 농업 분야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은행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농업에 대출을 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2000년 들어 농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차베스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라티퐁디움(대규모 지주제)은 이제 없다고 밝히면서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유상으로 강제 몰수하여 이를 농민들에게 분배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농지개혁에 대한 법령 제정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

2001년 들어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농업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 4월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강택민 주석은 벼농사 기술 등 농업 기술을 베네수엘라에 이전해 주기로 하였으며, 농업용 트랙터 등 농기계공장도 베네수엘라에 설립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0만\$의 금융을 지원 중국산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2004년 실제적으로 각 농가와 농장에 농업용 트랙터를 배포하였다.

2005년 현재 정부는 대대적인 농업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전체 소비되는 음식물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00% 자급자족의 목표를 두고 파종, 생산계획(Plan de Siembra y Production-2005)수립 진행 중이다.

2) 농업 기관

베네수엘라 정부의 농업 주 기관은 2005년 12월 농업부(Ministerio de Agriculturay Tierras)로 정식 변경되었다. 경제기획부(CORDIPLAN)도 농업정책 관련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국립농업행정처(IAN): 토지개혁을 담당
- 농업저장회사(ADAGRO): 농산물의 저장을 담당
- 농업서비스 주식회사(CASA): 잉여농산물의 수매를 담당
- 농산물 유통 및 수출회사(COMEXAGRO): 국가를 대신하여 농산물 수입담당
- 국립커피기금(FONCAFE): 커피의 시장확대 및 유통을 담당
- 국립코코아기금(FONCACA0): 코코아의 시장확대 및 유통을 담당
- 과일개발기금(FONDEFRU): FONCAFE와 FONCACA0는 커피와 코코아의 수출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에 농업금융을 제공

3) 농산물 정책

□ 파종, 생산계획(Plan de Siembra y Production-2005)

총 6조3천3백억 볼리바르의 예산을 드려 2.32백만 헥타의 농경지를 확보 전국적인 채소망,

어업망, 삼림망, 축산업망에 지원을 기본으로 한다. 이로써 약 1.14백만의 직접 일자리와 3.42백만의 간접일 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발표했다.

생산품목	헥타아르	재정지원
채소	2,070,931.00	4,222,511.28
산림	22,733.00	134,140.27
어류	230,678.00	236,901.70
축산	-	1,690,021.14
계	2,324,342.00	6,283,574.39

자료원 : 농업부(Ministerio de Agricultura y Tierras) 2006년.

4) 임업

베네수엘라는 열대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큰 강(Orinoco)이 있어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베네수엘라 전체 면적 중 54.2% 해당되는 5천만 헥타를 산림지역이 차지하고 있다. 산림 지역의 67%가 Guayana지역에 위치해있다. 아직 세계 목재시장에 수출한적이 없고 개발초기 단계이다. 산림지역은 환경자원부 관할하의 자치기구인 산림청(la juridiccion del Servicio Forestal-SEFORVEN)이 관할한다.

산림보유량

산림명	Imatace	El Caura	La Paragua	Guarapiche	Sipapo
면적(헥타)	3,640,899	5,134,000	782,000	370,000	1,215,500
산림명	Ticoporo	Caparo	San Camilo	Rio Tucuyo	Turen
면적(헥타)	187,156	181,143	97,100	47,640	116,400

자료원 : 환경부 2006년

라. 석유화학산업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778억 배럴(2006. 11월 Oil and Gas Journal)로 미주대륙 전체 매장량의 50%에 이르고 있으며 오리노코 벨트의 초중질유 합산시 3,000억 배럴 이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제1위의 원유보유국가가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 원유는 매장량의 69%가 중질유(Heavy Oil) 또는 초중질유(Extra Heavy Oil)라는 다소 경제성이 약한 것이 특징이지만 고유가로 인하여 최근 투자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금년 정부발표를 기준으로 일일 3.45백만 배럴을 생산하는데 국내 소비는 35~40만 배럴 정도이며 나머지 3.00백만 배럴은 수출하고 있어 원유가 정부재정을 뒷받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간 경제학자는 정부발표보다는 적은 2.75백만 배럴을 생산하고 이중 2.3백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베네수엘라는 원유 중 특징적인 것이 오리물전인데 오리물전은 천연 역청, 물, 활성제를 혼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석탄과 석유의 중간형태의 물질이다. 동 오리물전이 석탄이나 석유보다는 열효율이 높고 경제성이 높아 발전용 대체연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 캐나다, 이탈리아, 싱가포르, 한국 등에 판매하고 있다.

1) 석유산업의 역사

- 1875년 상업용으로 최초 이용
 - 20세기 초까지 다음의 석유정책 견지되었으며 동 원칙에 근거하여 많은 채굴권이 인가되었고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였음.
 - 지하광물자원은 토지의 지주 소유가 아니고 국가의 소유임.
 - 석유채굴권을 부여하는 권리는 국가만이 보유
- 1920-50 미국 다음의 세계 제2위의 산유국이 됨.
- 1920-68 세계 제1위의 석유수출국이 됨.
- 1943년 석유법 제정
- 1949년 외국 석유회사의 조업이익의 50%의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1958년 신규의 석유이권은 국영석유회사에 독점적으로 부여한다고 공표.
- 1960년 4월 100% 정부출자의 국영석유회사 CVP 설립, OPEC 창설 주도.
- 1961년 CVP 업무개시, 외국석유회사가 석유의 탐사, 개발을 희망할 경우 용역 계약에 의하여 CVP를 상대로 교섭
- 1967년 8월 신 석유법(1943년 석유법의 제3조를 개정한 용역계약체결의 기준, 원칙) 제정
- 1968년 4월 마라카이보 남부지역에서의 탐사, 개발과 관련, 용역작업 계약의 구체적 조항 발표
- 1974년 3월 Perez 대통령의 등장에 의해서 석유산업의 조기국영화 방침 발표.
- 1975년 8월 석유산업 국영화 방안 공표, 신 국영 석유회사 PDVSA 설립.
- 1976.1.1일 석유회사 21개사 (20년간 주재국 내 활동하던 18개 외국석유회사, 서비스 용역 계약회사인 Occidental, Venezuela 2개사) 국영화. 법률적으로 석유산업의 전 부문에 있어서 외자계, 민족계를 불문하고 민간석유회사는 존재하지 않게 됨.
- 1992년 제 1차 Reactivation Program에 기초한 조업계약 성립
- 1995년 Profit Sharing Agreement에 의한 외국자본 참여 허용 (국영화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자본의 참여 허용)
- 1999년 헌법개정을 통해 PDVSA의 민영화 금지 및 PDVSA 내부 구조 조정 실시
- 2001년 석유법 개정으로 석유산업 국유화를 강화 (외국기업에 대한 로열티를 종전 1-16.66%에서 20-30%로 인상하고, 향후 공동합작 투자시 PDVSA 참여지분을 51%로 의무화)
- 2006년 차베스 대통령, 원유에 대한 국유화 선언, 모든 운영권을 정부가 가짐, 외국 석유회사는 지분을 사야 되며 PDVSA의 참여지분은 60%이상 의무화, 34%의 로열티 지급 의무화

2) 석유관련회사

○ PDVSA

석유산업 국유화 방안 공표와 함께 설립된 국영석유회사로서 베네수엘라 유일의 석유 회사이며 모든 석유관련회사는 PDVSA의 자회사로 되어 있다. 동력자원부의 감독을 받으며 산하 자회사의 활동에 대한 조정, 계획, 감독, 통제를 행한다.

3) 산업개황

베네수엘라는 석유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전형적인 산유국이다. 석유수출 이전 상품 수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80%에 달하고, 정부재정 수입의 50%-60%를 석유 판매로 얻어지는 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총생산의 약 30%를 석유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등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일일 석유생산량은 OPEC의 합의에 따라 '04년 현재 3.45백만 배럴로서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에 이어 OPEC내 3번째 석유 수출국이다.

OPEC Crude 생산량

(단위: 1,000 b/d)

국가명	7월	8월	9월	10월	2006년 8월
사우디 아라비아	9,487	9,503	9,513	9,451	9,414
이란	3,975	3,941	3,902	3,932	3,829
베네수엘라	2,627	2,614	2,604	2,600	2,630
아랍 에미레이트	2,445	2,473	2,502	2,502	2,491
나이지리아	2,472	2,409	2,426	2,463	2,394
쿠웨이트	2,509	2,527	2,555	2,575	2,392
리비아	1,649	1,655	1,659	1,661	1,691
인도네시아	937	936	925	932	921
알제리아	1,362	1,367	1,370	1,372	1,369
카타르	797	796	797	801	801
OPEC 합계	28,261	28,219	28,253	28,287	27,932

자료원 : 국제에너지기구

2005년 12월 OPEC이 정한 석유값

(단위 : \$US per Barrel)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Venezuelan 가격	25.91	20.21	21.95	25.76	32.61	51.28
7 Crude	27.55	23.12	24.36	28.10	36.04	55.07
WTI 40	30.35	26.00	26.06	31.12	41.42	44.03
Brent 38	28.38	24.46	24.93	28.84	38.24	60.04

베네수엘라는 비교적 오랜 석유개발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878년에 석유개발을 시작했으며, 1914년부터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석유를 생산하였다. 20세기 초한 동안 세계 2위 산유국 및 제 1위 수출국으로 OPEC창설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초기의 석유산업은 대부분 외국 기업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76년 국유화 조치가 단행되었다. 그러나 '89년에 베네수엘라 투자기금(FIV: Fondo Inversiones de Venezuela)을 설립하면서 서서히 민영화를 추진하였고, 90년대 들어 석유산업 개방화가 다시 시작되었다. 확인 매장량은 '99년 기준 약 726억 배럴(전세계 6위, 비중은 6.9%)에 이르고 있으며, 오리노코강 유역(Orinoco Belt)의 초중질유 및 비투멘(Bitumen) 매장량은 약 1조 2천억 배럴에 달하고 있다. 이중 현재의 기술로 채굴이 가능한 초중질유는 약 2,670억 배럴로 파악되고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전체 석유 매장량은 사우디에 필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지금까지 유전 개발은 주로 서부 마라카이보 저지대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미개발 상태인 동부의 오리노코 강 유역 북부 대평원 지대의 초중질유 개발과 해상가스전 개발에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는 주로 광구 분양, 합작계약 등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석유산업 개방 정책으로 외국기업이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21억 달러에 달하는 Hamaca중질유 경질화 프로

젝트를 비롯하여 이미 외국기업과 계약되었거나 국회승인을 받은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다. 오리노코 초중질유 생산사업은 개발뿐 아니라 정제 등 Downstream부문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의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10년간 신규 유전개발, 기존 유전개량, 가스전 개발, 정유, 수송 등 각 분야의 투자에 총 59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70%는 PDVSA 자체 프로젝트, 나머지 30%는 외국인 참여 프로젝트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는 차베스 대통령 당선 이후 석유생산 비중을 줄이는 등 원유채굴 중심의 석유산업구조를 다변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석유화학 및 천연가스부문의 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PDVSA를 신시장 개척 및 이윤 극대화를 위해 국제 Major들과 경쟁하는 시장지향형 기업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PDVSA의 중점사업 방향으로 석유화학 및 천연가스개발, 신시장 개척, 경질유(light and medium gravity crude oil) 생산 확대, 중남미 통합 시 수요증대에 부응기 위한 정유설비 증대, 그리고 국내·외 민간 부문, 특히 국내 민간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유도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탄화수소법, 가스법 및 국내 시장법 등 석유관련법을 '99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해양가스개발 입찰, non-associated gas blocks on land개발입찰이 추진될 예정이며 오리노코 벨트지역의 초중질유 개발 프로젝트의 추진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최근 석유부문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PDVSA는 최근 브라질을 향후 유망시장으로 지목하여 참여확대 방안을 모색 해 왔으며 석유 및 가스부문의 공동 개발과 항공연료의 판매, 동북부 지역의 고속 송전망 및 변전소 참여방안에 대해 브라질 측과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PDVSA와 브라질 석유공사(PETROBRAS)는 석유 및 가스부문에서 합작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계약 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국의 국영 석유회사는 베네수엘라에서의 석유 탐사 및 생산 활동과 브라질 동북부지역의 고압 송전선 및 변전소 프로젝트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Petrobras 기술자들이 석유 및 가스부문에서의 탐사 및 생산 활동에 대한 참여방안을 모색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다녀갔으며 이 부문의 사업참여에 관해 대체적인 의견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PDVSA, 쿠바 국영석유공사(CUPET) 및 Burmah Castrol PLC(영국)는 지난 '91년 소련으로부터 자금지원이 끊긴 이래 건설이 중단된 연산 2,100만 배럴 규모의 정유공장 완공과 개보수 및 운영을 위해 2001년에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Cienfuegos지역에 소재한 이 정유공장은 가솔린, 디젤연료, 제트연료, 윤활유 등을 생산하여 현지 및 카리브해 국가에게 공급 중이다. 국영석유공사(PDVSA)의 자회사인 Bitor (Bitumenes del Orinoco)와 중국국영석유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는 발전용 연료인 Orimulsion 생산 신규 플랜트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PDVSA는 Bitor를 통해 이 프로젝트에 총 3억 달러를 투자하여 20%지분 확보를 계획하고 있고, China National Petroleum은 70%의 지분을 목표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는 자본시장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이 신규 플랜트가 완공되면 베네수엘라의 Orimulsion 생산량은 현 6.3백만 톤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연4백만 톤과 기타 이탈리아, 아일랜드국가 등지로의 2백만 톤 수출 등을 포함하여 총1,260만 톤으로 증가된다. Bitor는 '99년 4.8백만 톤의 Orimulsion 판매를 포함하여 1,200만 달러의 매출액을 올렸지만 생산량부족으로 1.5백만 톤의 주문에 응하지 못한 바 있다. 한편 2000년에는 3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Orimulsion은 이탈리아(3백만 톤/연)로 수출되고 있으며, 덴마크(1.2백만 톤), 캐나다(8십만 톤), 중국(50만 톤)등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국전력에서 발전용 연료를 오리물전으로 대체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베네수엘라 국내정치문제로 지연되었다. 2005년 11월 말 중남미 협회에 참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공사가 참여(14%지분)하고 있는 Onado 광구의 개발사업을 점검하고 2003년 남부발전과 체결한 오리물전(베네수엘라에서 개발, 독점 생산하는 발전용 新연료로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 江 유역 지하 600~1500m에서 생산되는 Bitumen을 주 연료로 물(30%)을 섞어 만든 연료) 도입 계약과 관련하여 베네수엘라 정부측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4) 석유 산업 투자계획

정부는 2010년경 세계 원유수요를 1일 5,000~9,200만 배럴로 전망하고 이에 기초하여 2010년 원유생산량을 1일 580만 배럴로 증산하기로 하였다. 석유수출(원유 및 정유제품)은 현재 1일 3.1백만 배럴 수준이나 2010년에는 1일 약 480~520만 배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0~2009년 간 총 589억불(탐사 및 생산 407억불, 정유 21억불, 천연가스 개발 54억불, 화학, 석유화학분야 89억불, 기타 18억불)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유화학 및 가스관련 신규개발분야에 약 110억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투자에 따른 방대한 자원조달을 위해 정부는 '75년 석유산업 국유화 조치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분배계약 방식(Profit Sharing Agreement)에 의한 탐사광구 입찰을 허용함으로써 석유개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외국기업이 베네수엘라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신규 유전개발을 위한 이익분배계약 방식, 한계유전 개발을 위한 운영계약(Operating Contract) 방식, 오리노코강 유역의 초중질유의 경질화 프로젝트를 위한 전략적 제휴방식(Strategic Associations) 등이 있다. 이외에도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비 전통 석유의 일종인 천연 비투멘(Orimulsion 이라는 상표로 알려짐)개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석유화학, 석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는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다. 외국기업의 석유부문에 대한 참여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익분배계약(Profit Sharing Agreement) 방식: '96년에 도입되었으며 외국기업이 탐사에서부터 생산 및 수출까지 전 과정을 취급할 수 있다. 개발된 광구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외국기업은 PDVSA와 이익을 분배토록 되어 있다. '96. 1월 실시된 국제입찰에 44개 외국기업으로 구성된 2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10개 광구 중 8개 광구가 외국기업에 분양되었다. 향후 2차 국제입찰을 통해 주로 해상광구가 분양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석유부문의 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4개 광구(LA Ceiba, San Carlos, Golfo de Paria Este, Golfo de Paria Oeste)에서 개발이 성공했고, 나머지 4개 광구는 원유 미발견으로 계약이 종결된 상태이다.

운영계약방식(Operational Service Contract, Marginal Oilfield Development): 생산이 중단된 기존유전(Inactive Oil Fields)이나 매장량이 적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한계 유전(Marginal Oil Field)을 국제입찰을 통해 외국기업에 양도,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른 사업에서는 외국기업이 생산한 원유를 전량 PDVSA에 판매해야 하며 수출할 권리는 없다.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총33개 광구가 35개 외국기업에 분양

되었다. 특히 '97년 6월에 실시된 제 3차 국제입찰에서 우리나라의 유공, 유개공 및 대우가 캐나다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찰하였으나 낙찰되지 못했다. PDVSA는 2006년까지 상기 33개 생산광구의 1일 생산량이 110만 배럴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00~'09년간 확장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80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PDVSA, 제 3차 유전개발 입찰 결과

유전명	낙찰기업 (컨소시엄)	낙찰금액
Boqueron, Monagas 총 매장량: 12백만 배럴	Union Texas Petroleum(USA) Preussage Energie GmbH(독일)	174,783천불
Onado, Monagas 총 매장량: 20백만 배럴	Cia. Gral. de Combustiles(Argen.) Camalah Resources(Canada)	90,231천불
Casma Anaco, Monagas 총 매장량: 29백만 배럴	Cosa(Vzla), Cartera de inversiones(Vzla), Phenix int.(Vzla)	27,577천불
Acema, Monagas	Corepli(Vzla), Perez co.(Argen.)	41,000천불
Dacion, Anzoategui 총 매장량: 289백만 배럴	Lasmo PLC	453,005천불
Caracoles, Anzoategui 총 매장량: 218백만 배럴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중국)	240,721천불
Kaki, Anzoategui 총 매장량: 135백만 배럴	Inelectra(Vzla),Polar(Vzla) Arco(USA)	60,001천불
Maulpa, Anzoategui 총 매장량: 119백만 배럴	Inelectra(Vzla),Polar(Vzla) Arco(USA)	61,309천불
Mata, Anzoategui 총 매장량: 101백만 배럴	Pivensa(Vzla), PBE Trading(Vzla)	90,777천불
La Vela C.A., Falcon 총 매장량: 54백만 배럴	Phillips(USA), Arco(USA)	1,000천불
Cabimas, Maracaibo Lake 총 매장량: 28백만 배럴	Preussag Energie GmbH (독)	500천불
LL-652, Maracaibo Lake 총 매장량: 520백만 배럴	Chevron(USA), Statioi (Norway), Arco(USA), Phillips(USA)	251,311천불
B-2-X-68/79, Maracaibo L. 총 매장량: 추정불가	Pennzoil(USA), Nimir(Saudi) Cartera de inversiones(Vzla)	46,013천불
B2X-7080, Maracaibo Lake 총 매장량: 168백만 배럴	Pan Canadian(Canada), Penzoil(USA)	1,313천불
Intercampo Norte, Zulia 총 매장량: 196백만 배럴	China Nat'l Petroleum Corp.(China)	118,000천불
Mene Grande, Maracaibo L. 총 매장량: 100백만 배럴	Repsol (Spain)	330,012천불
La Concepcion, Zulia 총 매장량: 44백만 배럴	Perez Companc (Argen.), Williams Comp.(USA)	153,000천불
Ambrosio, Maracaibo L. 총 매장량: 114백만 배럴	Phillips Petroleum Co.(USA)	31,100천불

전략적 제휴방식(Strategic Alliance): PDVSA는 오리노코강 벨트지역에서 점도(API) 9도인 중질유 및 초중질유를 API 20내지 25도로 개량하여 중유나 경유를 생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미국 Conoco사가 '90년 coker technology를 이용해 초중질유를 경질화하는 기술을 개발한 이후 현재 계약기간 35년의 6개 대형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Coastal 프로젝트는 '99년 1월 취소되었으며, Exxon프로젝트는 베네수엘라 의회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이외에도 Shell, BP, Repsol, YPF, JNOC 등 세계 유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리노코강 유역의 초중질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총 130억 달러를 투자, 10년 이내에 1일 700,000배럴의 원유를 증산할 계획이다. 특히 Hamaca 프로젝트의 경우 동 프로젝트의 합작회사인 Ameriven이 발주하는 11억 달러규모의 하류부문 경질화 설비(Upgrader)국제입찰에 우리나라의 SK, 현대 중공업이 Bechtel, Otepi (현지 회사), Foster Wheeler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찰을 시도하여 낙찰이 유력시 되었으나 PQ 통과 후 입찰준비 중에 컨소시엄 멤버인 Bechtel이 포기하여 아깝게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 이 프로젝트는 Downstream(11억달러)부문은 Fluor Daniel이, Upstream (10억 달러)은 Inelectra와 Parsons가 수주했으며 완공 시 1일 190,000배럴의 중질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amaca지역에는 300억 배럴 이상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의 기술로 35년간 약 21억 배럴을 채굴할 수 있는 규모이다. Anzoategui주는 이 지역에서 채굴된 중질유를 경질유로 처리하여 Jose 산업단지의 정유공장 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전략적 제휴방식에 따른 초중질유 경질화 4개의 프로젝트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 초중질유 경질화 프로젝트 추진현황

○ PETROZUATA 프로젝트

- 투자자(Strategic Association) : PDVSA(49.9%) : Conoco(50.1%)
- 용량 : 120,000BPSD
- 사업규모 : 24억 달러
- EPC 계약자 : Contrina(Technip+B&R+Parsons+Proyecta의 컨소시엄)
- 공사내용 : 파이프라인 건설(125마일)과 경질화 설비 프로젝트 (10억 달러 규모)

○ CERRO NEGRO 프로젝트

- 투자자 (Strategic Association) : PDVSA(41.7%), Mobil(41.7%), Veba(16.6%)
- 용량 : 120,000BPSD
- 사업규모 : 25억 달러
- EPC 계약자 : JGC + Vepica + Jantesa

○ SINCOR 프로젝트

- 투자자(Strategic Association) : PDVSA(38%), Totalfina(프랑스47%), Statoil(노르웨이 15%)
- 용량 : 200,000BPSD
- 사업규모 : 29억 달러
- EPC 계약자 : Contrina

○ Hamaca 프로젝트

- 투자자 (Strategic Association) : PDVSA(40%), Texaco(30%), Phillips(30%)
- 용량 : 197,000BPSD

- 사업규모 : 21억 달러
- Site : Hamaca

한편 PDVSA는 탐사, 생산 등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부문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Outsourcing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석유산업의 현대화 및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PDVSA는 Outsourcing분야에 가스관 건설(2억 달러), Guiria지역 부두시설 건설(4.8억 달러), 오염물질처리공장건설(1.6억 달러), 전력 인프라 구축(1.9억 달러), Injection of gas PIGAP II(1.7억 달러), 가스압축(4,000만 달러), Hydrogen 공급공장건설(2천만 달러)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 석유산업 계획 2005-2012(Plan Siembra Petrolera 2005-2030)

정부는 2005년도부터 2030년까지 야심찬 계획을 현재 (2005년 8월 18일)발표하였다. 그 중 1차 계획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이다. 1차 계획에 총 투입되는 투자액은 560억 달러로 70%는 정부투자과 30%는 사기업투자과 이루어질 예정이다. 오리노코 석유벨트가 주관하며 발전용 원료의 주 물질인 탄화수소지역으로, 4개의 큰 지역(Boyaca, Junin, Ayacucho-구 Hamaca, Carabobo)을 다시 27개 지역(각각500km2)으로 구분, 전면적인 개발을 실시한다.

□ 대보유량(Magna Reserva) 프로젝트

Proyecto de Cuantificacion y Certificacion de Reservas

오리노코 벨트에 매장된 전체 탄화수소량을 수량화, 증명화하는 작업. 철저한 경제분석에 들어간다. 오리노코 벨트지역(총 면적 55,314km2)에서 석유개발탐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11,593km2으로 추가 매장량을 확인한다. 초중질유를 상업성을 조사하여 세계 제1위의 원유 매장 국가로 인정받는데 그 목표가 있다.

□ 오리노코 프로젝트(Proyecto Orinoco)

오리노코 벨트지역의 석유를 낙후된 주재국 남부지역의 발전원으로 활용, 오리노코 벨트와 Apure 강 일부 유역을 지역 개발의 중심축으로 육성한다. PDVSA 주관으로 오리노코 북쪽 지역에 전면적인 도로, 철도를 계획하고, 거대한 도시를 건설한다.

□ 델타-카리베 프로젝트(Proyecto Delta-Caribe): 가스, 석유화학, 전략사업 확대

델타-카리베 프로젝트는 여러 세부 프로젝트로 나뉘어진다. Gas Gran Mariscal de Ayacucho 공업센터 건설, Paria 반도의 CIGMA(Sucre주), Plataforma Deltana 의 가스지역발전계획.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60억달러의 투자액이 소요되며, Costa Afuera 가스 개발 착수로 시작한다. 남부, 동서를 연결하는 대규모 가스운송라인도 구축할 계획이다.

5) 정유산업 현황 및 추진계획

□ 현황

베네수엘라는 국내, 카리브, 미국, 유럽 등지에 대규모 정유공장을 소유, 세계적인 정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유능력은 1일 1.3백만 배럴로 우리나라(2.4백만, 세계 6위)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해외 합작 정유공장을 포함할 경우 전체 정유능력은 3.3백만 배럴로 늘어난다. (미국 Citgo, 카리브 지역, 유럽지역) PDVSA는 국내외에서 1일 2.8백만 배럴의 정유능력을 보유한 세계 4위의 회사로 국내 주요정유시설은 다음과 같다.

- Paraguana Refining Complex : 940,000BPSD
- Judibana(Amuay) : 571,000BPSD
- Punta Cardon : 286,000BPSD
- Puerto La Cruz : 200,000BPSD
- El Palito : 130,000BPSD
- Bajo Grando : 115,000BPSD
- San Roque : 5,000BPSD

PDVSA는 1989년 Down Stream 분야에 대한 민자유치 계획 이후 6개년간 총 28억 달러를 투자하여 정유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추진중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기 추진사업

- Virgin Islands Refinery(美)
- 2002년까지 1,200,000 BPSD에서 1,600,000 BPSD로 증설

□ Puerto La Cruz(PLC) Refinery Modernization Project

- 발주처 : PDVSA
- 공사규모 : 6~7억 달러
- 공사재원 : JBIC(5억 달러, 확정)/ 시공사 금융(US\$1~2억 달러, 미 확정)
- 공사내용
 - Splitter : 16,000BPSD
 - Reformer : 35,000BPSD
 - Diesel HDT : 38,000BPSD
 - Gas Treatment : 4.1MMSCFD
- 참가형태 : 미정
- 추진현황 : '98년 Original PQ가 실시되었으나 사업추진 중단
 - '98년 P/Q 통과 업체(JGC, Chiyoda, Foster Wheeler, Fluor Daniel, Technip, Kellogg Brown & Root, MHI)
- 2001년 EPC 계약자 선정
- 공사기간 : 2001~2005년

□ Bahamas 정유공장

- 발주처 : Bahamas Oil Refining Co. Int'l(BORCO)

- 위치 : Grand Bahama Islands, Bahamas
- 용량 : 500,000BPSD
- Storage Tanks(65개) – 20mil. Barrels for crude
- 95 feet deep sea port marine facility
- 추진현황
 - British Oil Refining Co.가 100%인수를 위한 프로포절을 PDVSA에 제출하고 협상 중
 - British Oil Refining Co.사 사업계획안
 - 1단계 : 정유공장시설 인수(1억 4000만 달러)
 - 2단계 : Terminal과 Transshipment시설 개보수 (US\$7억 달러)
 - 3단계 : 정유공장 재 가동 가능성 조사

□ 정유추진사업

석유산업계획 2005-2012의 일부로 정유산업의 계획서로, 다음과 같은 세계 석유 요구량을 기본으로 전면적인 개발사업에 들어갔다. 3개의 정유공장 신설(Cabruta 정유공장, Caripito 정유공장, Batalla de Santa Ines 정유공장), 2개 기존공장의 증설 및 리모델링(RPLC 2008, RELP). 3개의 정유공장 신설에 들어갈 총 투입액은 100억 달러며 이로서 일일 70만 배럴의 정유량(62%의 원유)이 증가한다(13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 또한 브라질, 우루과이, 쿠바, 자마йка 등 역내 국가들에 해외 정유시설 건설도 추진 예정이다.

- 총 투자액 : 16,480MM\$
- 베네수엘라 투자액 : 14,304MMS (87%)
- 페트로아메리카 투자액 : 2,176MM\$ (13%)
- 원유생산 : 910MBD(62%)
- 에탄올생산 : 21MBD

세계 석유 요구량

(단위 : 백만 배럴 / 일일)

	2005	2010	2015	2020
나프타	5.1	6.3	6.9	7.2
가솔린	22	24.3	26.5	29
캐로센	6.4	7.4	8.1	9
디젤	22.6	24.6	27	29.5
기타	10.3	10.5	11	11.4

자료원 : Nexant, 2005년 12월

6) 석유 화학

□ 현황

PDVSA의 자회사로 석유화학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Pequiven은 석유부문 확장계획의 일환으로 민자유치를 포함 약 88억 달러를 투자, 현재 연간생산량 8.8백만 톤에서 2010년 약 2.5배 증가된 22백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Chavez대통령은 천연가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석유화학산업부문에 투자확대를 발표함에 따라 현재 과잉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Olefins & Plastics, 비료공장 및 Aromatics/Oxygenates 등 3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민자유치의 일환으로 Pequiven은 외국기업과의 합작 등을 통해 암모니아 및 요소, 올레핀, 메탄올(methanol)분야에 수개의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석유화학 부문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Pequiven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내용의 석유화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동 법안은 Pequiven의 일부 민영화로 인해 정부의 Pequiven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기는 하나 조만간 의회통과로 Pequiven의 민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베네수엘라는 석유화학산업에 필수불가결한 천연가스가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어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 석유화학 생산국에 대해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중남미 지역의 경제발전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Pequiven의 석유화학부문 확장계획에 따라 석유 및 석유화학 공업단지인 Jose 공업단지에 산업 인프라확장을 추진 중에 있어 공장건설 및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water supply, pier construction, distribution of electricity, 방출오염물질 처리시설, nitrogen and oxygen gas plants 및 maintenance shops 등)의 구매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석유화학 공단 현황

	위 치	생 산 품 목	생 산 능 력
El Tablazo	Zulia 주	올레핀, 플라스틱, 비료 등	연간 340만톤
Moron	Carabobo 주	질소비료 및 인산비료, 유산, 올레움 등	연간 140만톤
Jose	Anzoategui 주	메타놀, MTBE 등	연간 200만톤

□ 투자계획

최근 PDVSA는 약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화학 및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또한 Pequiven는 향후 10개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Jose 산업공단에서 에틸렌, 초산(acetic acid), 메탄올 생산확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31일 개최된 제 5차 라틴 아메리카 메탄올 회의(Latin American Methanol Conference)에서 Pequiven의 Gustavo Hernandez 국장은 세계 메탄올 생산업자 및 소비자 협회 회원에게 이 같은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88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Pequiven은 현재 연간 1.5백만 톤 규모의 메탄올 생산량을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Metor 메탄올 공장(2004년 운영 시작) 및 또 다른 2억8천만 달러 규모의 Supermetanol 메탄올 공장(2008년 운영 목표)건설을 통해 2배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초산 플랜트 프로젝트 일정이 마무리되는 데로 연간 1백만톤 규모인 2기의 에틸렌 공장이 각각 2004년에 생산개시, 2010년에 생산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Pequiven는 이번 계획에 소요되는 88억 달러 가운데 자체적으로 1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72억 달러는 합작이나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부문에서 현재 수행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예정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 Methanol (Methanol Expansion) 프로젝트

- 투자자: Pequiven(37.5%) +Mitsubishi Corp.(23.75%) + Mitsubishi Gas(23.75%) + Polar(10%)+IFC
- 기존공장 (제 1 단계)
 - 2,200 MTPD 규모로 MHI와 Inelectra가 Lump Sum Turnkey Base로 EPC 수행, '94년 완공, 생산 중
- 제 2차 확장 계획
 - 현재 Methanol 가격의 하락(USD 100/MT)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증설용량 포함)중이다. 현재 PDVSA의 화학부문인 Pequiven은 석유 및 가스정유의 부산물인 방향제의 사업성을 조사 중이다. 방향제는 사업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금융조달능력과 경험을 갖춘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Pequiven은 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벤젠을 합성수지로 가공, 폴리스틸렌 포말을 생산하는 연간 200,000~300,000톤(약 4억 달러)의 합성수지 생산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 Paraguana Aromatics Complex 프로젝트

- 발주처 : Pequiven, Chevron 합작
- 용 량 : Benzen, Paraxylene & Styrene 1,200,000 MTPA
- 위 치 : Paraguana Peninsula, Venezuela
- 공사규모 : 10억 달러
- 자금조달 : Project Financing
- 기술사
 - Benzene - Chevron's Aromex Process
 - Paraxylene & Styrene - Eluxyl hybrid technology co-developed by Chevron and IFP
- 진행상황 : 파이낸싱 물색 중

7) 가스부문

□ 현황

천연가스 추정매장량은 227조ft³(전세계 매장량의 4.3%)로 남미 1위, 전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장량 중 91%는 원유 생산 시 수반되어 나오는 수반가스(Associated Gas)이다. 천연가스 생산능력은 현재 1일 60억 5300만 ft³이며, 연 평균 생산량은 1일 52억 7400만 ft³이다. 천연액화가스(LNG)의 생산능력은 1일 22만 6000만 배럴이며 생산량은 17만 7000 배럴이다. 오리노코강 유역에는 주로 화력발전소용으로 이용되는 비전통 석유의 일종인 천연 비투멘(Natural Bitumen)420억 톤이 매장되어 있다. 베네수엘라는 영국 BP와 공동으로 비투멘을 이용해 액체석탄 유형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Orimulsion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 현재연간 3백만 톤이 생산되는 Orimulsion은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연소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기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천연가스 매장량 91%가 석유 생산 시 부산물인 Associated Gas(잔여 9%가 Free Gas)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잉여가스를 재주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유 생산이 OPEC의 쿼터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신규 non-associated gas의 탐사를 추진 중이다. PDVSA는 가스수요가 발전량 증가와 석유화학 및 LNG 수출로 인해 2000년 2.45조 ft³에서 2010년 5.13조 ft³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PDVSA는 또한 국내가스 수요증가에 따라 가스공급 파이프 라인망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 가능한 방안은 건설 및 운영사업을 민영화하는 방법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의 절충안으로 대형건설업체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PDVSA가 소유권을 유지하는 방법 등 세 가지이다. 그러나 동 사업이 시행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2개 대형 파이프라인이 있어 1개 라인은 베네수엘라 동부에서 중부 산업지대를 연결하고 다른 하나는 Maracaibo 호수지역에서 정유산업지대까지 연결한다.

□ 개발 및 투자현황

베네수엘라는 점증하는 에너지수요 충족을 위해 천연가스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99년에는 신 가스 법안을 통과시켜 가스개발권 및 판매권을 민간에 개방,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개발사업은 Low Temperature를 이용한 Cryogenic Separation, Fractionation, Treatment, Gas Compression Facilities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 발주된 ACCORE Gas Project III & IV와 같이 B00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11개 천연가스 탐사 및 생산사업에 향후 20년간 총 10억 달러 상당의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PDVSA가 발표한 11개 육상광구에는 중부 지역의 대규모 미 탐사지역인 7개 광구와 2조ft³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Yukai Placer 지역의 2개 광구 및 기타 2개 광구가 포함되어 있다. 11개 천연가스 탐사 및 생산사업은 최근 제정된 신 가스법에 따라 최대 20%이상의 추가 로열티를 제시한 기업에 낙찰된다.

현재 진행중인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50억 달러규모의 Venezuela LNG 터미널 공사(이전 Cristobal Colon Project 사업취소 후 추진중인 사업)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동부 Paria 반도 해양의 가스전을 개발하여 연간 460만 톤의 LNG를 미국에 공급하는 것으로 지분구성은 PDVSA 33%, RD/Shell 30%, Exxon 29%, Mitsubishi 8%로 되어 있다. 1989년에 30억 달러로 추정되었던 개발소요자금이 56억 달러로 증가하여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의회는 외국회사의 국내참여를 특례로 인정하고 있는 국유화법 제 5조 규정에 의거 '93년 8월 사업을 승인하였으며, 1994년에 합작계약(Strategic Association)이 체결되었다.

또한 PDVSA는 베네수엘라 사상 최초의 LNG 플랜트 건설공사(6억 달러 규모) 추진을 위해 Enron(미)과 계약 체결했고 동부 Jose 항에 건설되는 이 LNG 플랜트는 연 3백만 톤 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추어 2004년 운영을 시작했다. Enron은 이외에도 Exxon Mobil, Royal Dutch/Shell, Mitsubishi와 공동으로 20억 달러에 달하는 연간 4백만 톤 생산규모의 신규 LNG 플랜트를 추진 중에 있다.

PDVSA는 또한 동부지역의 Puerto La Cruz에서 Margarita섬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 파이프라인은 우선적으로 Margarita섬의 전력시설에 메탄올 가스를 공급하며, 이후 카리브해의 다른 지역 및 Cumana, Coche와 Margarita 지역에도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가스 부문에서 현재까지 추진중인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Venezuela LNG Terminal 프로젝트

- 성격 : LNG Production & Processing Plant
- 투자자 : PDVSA+Shell+Exxon+Mitsubishi
- Site : Cristobal Colon(북동부 해안의 Free Gas Field)
- 용량 : 4MTPA × 1 Train(미국, 카리브해 국가 및 브라질 수출용)
- 현황 : '96년 1차 F/S 이후 추진 보류된 사업으로 현재 상세설계

□ Natural Gas Pipelines Expansion (Methane) 프로젝트

- Anaco-Jose-Porto La Cruz Transmission System Expansion
 - 발주처 : 국영 석유공사 가스사업(PDVSA GAS)
 - 사업주 : PDVSA Gas(Minority)+Developers
 - 위 치 : Anaco-Jose(Anzoategui주, 베네수엘라 북동부)
 - 재 원 : SPC설립에 의한 B00 방식
 - 투자액 : 공사내역
- Anaco-Crucero de Barbacos-Jose Transmission Line
 - 연 장 : 140km(26" 111km/12" 29km)
 - 용 량 : 424 MMSCFD
- Anaco-Crucero de Barbacos-Puerto La Cruz Pipeline
 - 연 장 : 107km(20" 58km/16" 42km/12" 7km)
 - 용 량 : 152 MMSCFD
 - 가스수요처 : Jose Petrochemical Complex, PLC Refinery 및 Local Distributors
 - 사업추진일정 : 현재 PQ 평가 중
- Anaco-Porto Ordaz Transmisson System Expansion
 - 투자액 : 0.65~0.75억 달러
 - 생산능력 : 665MMSCFD
 - 개시년도 : 2000년
- Anaco-Barquisimeto Transmission System Expansion
 - 투자액 : 4.1억~5.3억 달러
 - 생산능력 : 700MMSCFD
 - 개시년도 : 2000~2007년
- Moron-Rio Seco Pipeline
 - 투자액 : 2.5억 달러
 - 생산능력 : 350MMSCFD
 - 개시년도 : 2011년

- City Distribution Network(Methane)
 - 투자액 : 3.3억달러
 - 생산능력 : 60MMSCFD
 - 개시년도 : 2002~2007년
- Western Cryogenic Complex(Natural Gas Liquids)
 - 투자액 : 1.5~2억달러
 - 생산능력 : 500MMSCFD
 - 개시년도 : 2002년
- Cityliquids(GTL)
 - 투자액 : 2.5~3억 달러
 - 생산능력 : 60~120MMSCFD
 - 개시년도 : 미 확정

2005년 현재 석유산업계획 2005-2012의 일부로 가스산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카리브 해안 지역개발(Golfo de Venezuela, Fachada Caribe, Fachada Atlantica, Plataforma Deltana)으로써 총 투자액은 167억 8천만 볼(전액 PDVSA 투자)로 이로써, 2012년까지 가스생산능력은 현재 6300MMPCD에서 11500MMPC로 증가된다.

마. 에너지산업

1) 현황

총 발전설비용량은 21,214MW('04년 기준)으로 남미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력발전은 65.4%인 13,864MW로서 대부분이 동부의 Caroni강가에 소재한 발전소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화력발전은 34.6%인 7,350MW이다.

현재 가동 중인 수력발전소는 9기로 발전용량은 총 11,120MW이며 민영회사인 ELECARG, 국영 회사인 CADAPE, EDELCA 등이 생산하고 있다. 화력발전소는 21기, 총 7,083MW로 국영인 CADAPE, ENELVEN, ENELBAR와 민영인 ELECARG가 주로 공급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전력회사는 총 13개사로서 이중 민영이 8개사, 국영이 5개사이다. 국영 CADAPE가 총 전력의 50%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영 회사 중 ENELVEN, ENELCO, ENELBAR, 는 현재 민영화 추진 중이다. 전력소비는 주거용이 전체의 약 25%, 상업용이 약 14%, 산업용이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발전원 별로는 수력발전이 13,864MW로 65.4%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은 증기 5,011MW(22.2%), 가스터빈 2,887MW(12.1%), 디젤 73MW(0.3%)의 순이다.

최대 전력생산량은 23,214MW(2005년 전력협회 발표기준)에 달하는데 비해 수요는 13,132MW에 불과해 인접국인 콜롬비아에 전력을 수출하고 있으며 브라질로의 수출을 위해 현재 송전선을 건설 중에 있다. 그러나 수력발전은 강우량에 좌우되는 등 한계점이 있으며 시설이 노후 되어, 화력 및 원자력 등의 건설을 통한 발전원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우기의 엄청난 수량과 풍부한 석유, 세계 최대의 설비 용량을 지닌 Guri댐 (10,000MW) 등을 바탕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15억 달러 이상이 투입된 Macagua II & III (2,540MW) 수력발전소가 운영을 시작하고 있다. 전력부문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앞으로 발전설비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발전현황

구 분	단 위	2002	2003	2004	2005
발전설비용량	MW	19,657	20,399	21,214	21,849
화 력		7,166	7,176	7,350	7,436
수 력		12,491	13,223	13,864	14,413
전력 생산	GWh	90,725	90,962	97,719	104,070
화 력		29,877	29,537	26,778	26,841
수 력		59,534	60,532	70,075	77,229
전력 소비	GWh	66,316	65,778	70,349	75,090
주거용		16,601	16,613	16,997	18,719
상업용		9,944	9,885	10,274	11,425
산업용		30,180	29,838	33,033	34,630
기 타		9,591	9,442	10,045	10,318

자료원 : Camara Venezolana de la Industria Electrica, 2006년

바. 자동차산업

1) 산업개황

베네수엘라의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조립과 자동차 부품생산으로 구분되며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부양책 실시 이후 가장 먼저 활성화된 산업분야의 하나이다. 자동차 조립업체로는 먼저 승용차 조립업체로 미국의 BIG3 와 일본의 TOYOTA, 미쓰비시가 있다. 종전 이탈리아의 FIAT와 일본의 HONDA가 있었으나, 계속되는 판매부진으로 '99년 조립 라인을 폐쇄하고 지금은 주로 브라질로부터 완성차를 수입, 판매하고 있다.

GM이 조립하는 승용차로는 Corsa, Esteem, Cavalier, Lumina와 쉼형 차로 Blazer와 Gran Balzer의 2개 모델이 있다. Ford는 Fiesta, Laser 쉼형차로 Explorer와 Ranger가 있다 2000년까지는 한국 기아로부터 프라이드 CKD를 수입, 조립하여 Festival이란 이름으로 판매 하였으나, 지금은 생산이 중단되었다. 다임러 클라이슬러는 Neon과 쉼형 차로 Jeep Cherokee, Gran Cherokee의 2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Toyota는 Corolla 와 쉼형 모델로 Samurai를 조립하고 있다. 미쓰비시는 미쓰비시 모델로 Lancer를, 현대 모델로 액센트를 조립판매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조립, 판매하는 모델들은 대부분 소형차와 쉼차들이다.

상용차는 트럭부문에서는 GM, Ford, Toyota, 미쓰비시와 트럭 전문회사인 Fiat계열의 Iveco, 미국회사인 Mack이 있다. 승용차 제조업체들이 주로 소형, 중형 트럭을 생산하는 반면 Iveco와 Mack은 중대형 차량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GM의 트럭 모델은 R-10, R-31, C-1500, C-3500, Kodiak 등이 있고 Ford의 트럭 모델은 F-150, F-350, F-7000, F-8000등이 있다. Toyota생산 트럭은 Dyna이며 미쓰비시 생산트럭은 Canter이다. Iveco사의 모델은 소형인

5912,4010과 중형인 120E, 250E 대형인 190E, 380E, 400E, 720E등이 있다 Mack은 중형인 Mid liner와 대형인 RD688, CH613등을 생산하고 있다. 트럭류의 상용차 중 판매의 약 절반은 1.5톤 이하의 픽업류가 차지하고 있다.

버스 제조업체로는 100% 베네수엘라 기업인 Encava사가 독보적인 존재로, 일본의 Isuzu, 미국의 Cummins 등으로부터 엔진을 수입, 자체적으로 샤시를 생산, 버스를 조립하는 이외에 조립업체들에 샤시를 공급하고 있다. 미국의 GM도 샤시를 생산하나 버스 조립은 하지 않고 샤시만 판매하고 있다. 기타 버스 조립업체로 중형 규모는 Iveco, Autogago, Fanabus 등이 있으며, 소규모 업체로 Servibus, Carroceria Andina등 5-6개 업체가 더 있다.

우리나라 업체는 아직 현지에 조립공장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으나, 미쓰비시 자동차 공장의 위탁 생산을 통해 96년부터 엑셀모델, '99년부터는 액센트 모델을 조립하고 있다. 또한 포드사에서 기아의 프라이드를 조립, FESTIVA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2000년을 마지막으로 생산이 중단되었다.

현지조립의 경우 안데안 공동 자동차 규정에 의해 안데안산 자동차 부품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동차 조립의 확대는 아울러 부품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2006년 현재 베네수엘라 현지 조립공장은 7개로 GM, FORD, TOYOTA VENEZOLANA, MMC AUTOMOTRIZ, DAIMLER CHRYSLER, IVECO VENEZOLANA, MACK VENEZOLANA 등이 있다. '06년 3월 GM 현지 조립 공장에 21백만 US\$를 직접투자, 올해 십만 대의 추가 생산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메이커별 생산량

(단위: 대)

메이커	2003	2004	2005	2006년 1-9월
GM	16,122	37,487	52,329	42,650
FORD	12,397	26,348	31,914	24,906
TOYOTA VENEZOLANA	8,629	19,729	24,485	19,591
MMC AUTOMOTRIZ	7,112	11,392	15,779	13,271
DAIMLER CHRYSLER	1,917	6,534	12,096	9,290
IVECO VENEZUELA	707	1,645	2,509	2,625
MACK VENEZUELA	0	115	817	852
총 생산량	46,884	103,250	139,929	113,185

자료원 : 자동차 협회(CAVENEZ-Cámara Automotriz de Venezuela)

2) 자동차 규정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내 조립산업을 위해 조립용 부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즉, 완성차의 경우 수입관세가 35%, 수리용 부품의 관세가 5%, 10%, 15%, 20%인데 반해 CKD 부품은 관세가 3%로 대단히 낮다. 또한 LOCAL CONTENT 규정에 의해 전체 사용 부품 중 안데안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하고 있는데, 동 비중은 매년 높아지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00년은 24.8%에서 매년 1%씩 높아져 2004년에는 28.8%이 되며, 2005년 30.4%, 2006년 31.5%, 2007년 32.6%, 2008년 33.7%, 2009년 34.6%로 매년 상향 조정되도록 계획되어있다.

3) 판 매

'99년부터 자동차 판매는 정상화를 찾기 시작하였는데, 2000년에는 전년보다 39.3%가 증가한 145,306대의 자동차가 판매되었다. 한편 수입차의 비중은 '95년 12.4%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39%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1년에 들어서도 판매는 계속 증가, 판매 대 수는 총 216,976대로 지난해에 비하여 49.3%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치, 경제 문제로 (달러화 상승과 외환통제)인해 2002년도에는 42%의 감소율을 보였고, 계속해서 2003년도 또한 51%의 하락을 초래했다. 이후 차베스 정권의 안정세로 2004년도 52%의 상승을 보였고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2006년 2월 말 현재, 주재국에서 판매랭킹을 차지하는 가장 인기차종은 Chevrolet Aveo, Daihatsu Terios (TOYOTA), Chevrolet Corsa, Chevrolet Optra로 조사됨

주요 모델 별 판매랭킹 및 판매량

(단위 :대)

랭킹	모델명	2004 년
1	Chevrolet Corsa fam.	15,127
2	Daihatsu Terios fam.(TOYOTA)	10,904
3	Ford Fiesta fam.	9,074
4	Toyota Corolla	5,480
5	Chevrolet Aveo fam.	4,501
6	Hyundai Accent fam.	4,235
7	Chevrolet C-1500	4,165
8	Ford Eco Sport	3,958
9	Chevrolet Optra	3,668
10	Chevrolet Grand Vitara	3,509
11	Ford Explorer	3,389
12	Mitsubishi Signo fam.	2,887
13	Renault Twingo fam.	2,831
14	Chevrolet Trail Blazer	2,424
15	Chevrolet C-3500(CUN)	2,100

랭킹	모델명	2005 년
1	Chevrolet Aveo fam.	22,541
2	Daihatsu Terios fam.(TOYOTA)	12,102
3	Chevrolet Corsa fam.	10,117
4	Chevrolet Optra	9,741
5	Ford Fiesta fam.	7,276
6	Hyundai Accent fam.	6,698
7	Toyota Corolla	6,290
8	Ford Ka	6,263
9	Fiat Palio	5,897
10	Ford Eco Sport	5,896
11	Chevrolet C-1500	5,666
12	Jeep Grand Cherokee	4,675
13	Chevrolet Grand Vitara	4,208
14	Ford F-350(CUN)	4,195
15	Toyota Hilux	3,246

랭킹	모델명	2006 년 1-2 월
1	Chevrolet Aveo (venemovil)	3,959
2	Chevrolet Corsa (venemovil)	2,917
3	Chevrolet Optra	1,748
4	Daihatsu Terios (venemovil)	1,485
5	Ford Ka (venemovil)	1,296
6	Ford Eco Sport	1,252
7	Chevrolet Grand Vitara	1,163
8	Ford Fiesta (venemovil)	1,034
9	Ford F-150	950
10	Ford F-350	942
11	Chevrolet C-1500	934
12	Chevrolet Luv	909
13	Toyota 4Runner	820
14	Jeep Grand Cherokee	772
15	Toyota Corolla	769
16	Fiat Palio	758
17	Mitsubishi Signo (venemovil)	757
18	Ford Explorer Eddie Bauer	715
19	Renault Logan	670
20	Hyundai Tucson	608

주 : fam., venemovil 은 국민차로 지정된 1 만 불 이하의 승용차

자료원 : 자동차 협회

4) 자동차 부품 판매 동향

베네수엘라의 자동차 부품 수요는 '04년 12억 5백만\$로 달하고 있는 상태이다. 자동차 부품 수출은 총 판매의 약 25%를 점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경우 '99년부터 2002년 폐쇄까지 대우 자동차의 선풍적인 인기에 따라 부품수요가 급증하면서 품귀현상을 벌여졌었다. 2001년부터 한국 수출 상귀리 과당경쟁으로 품귀현상 속에 수요자 시장으로 변모되고 있어 한국업체의 자제력이 요구된다. 참고로, 2001년 11월까지 한국 자동차 부품 수입실적은 23백만 볼로 중남미 최대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2003년 대우자동차의 판매중지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악센트, 기아차의 판매 힘으로 한국부품은 계속해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시장과 함께 부품시장은 지속 성장단계에 있다. 한국산자동차의 부품조달 신뢰도가 높지 않은 가운데 향후 이를 타개할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5) 자동차 판매사별 경쟁동향

주요 경쟁 회사별 판매량 및 판매 시장점유율(2006.1월-9월)

(단위 : 대, %)

회사명		현지생산	수입	총 판매량	비중
Daimler-Chrysler		9,290	4,832	14,122	6.0
Ford		24,906	16,948	41,854	18.0
GM		42,650	5,012	47,662	20.5
Mitsubishi - Hyundai	Mitsubishi	8,117	1,438	9,555	4.1
	Hyundai	5,154	5,440	10,594	4.5
Toyota		19,591	11,461	31,052	13.3
Fiat		-	15,347	15,347	6.6
Honda		-	4,387	4,387	1.9
Kia		-	3,577	3,577	1.5
Nissan		-	5,577	5,577	2.4
VW-Audi		-	7,524	7,524	3.2
2006. 1-9 월까지 전체 판매량 : 231,862 대					100.0

자료원 : 자동차 협회

베네수엘라는 자동차의 전시장이라고 할 만큼 많은 모델들의 자동차들이 팔리고 있다. 상기 회사들 이외에 독일의 MERCEDEZ BENZ, BMW, VOLKSWAGEN, 일본의 SUBARU, 스웨덴의 VOLVO, 이태리의 Alfa Romeo등도 판매되고 있다.

승용차를 구분하는 일정한 기준은 없지만 크기와 가격에 의하여 구분하여 소비자의 수요를 분석해 본다면 중형 이상의 디럭스나 스포츠형의 승용차 보다는 경제적이고 소형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일반적으로 높다. 판매가격 미화 8,500-20,000불 대의 경제적이고 배기량이 적은 차량 중에서 선호되는 모델들은 GM의 Corsa, Cavalier, Esteem, FORD의 Laser, Fiesta, TOYOTA의 Corolla, Starlet, CHRYSLER의 Neon, FIAT의 Palio, Siena, Uno, MITSUBISHI의 Lancer DAEWOO의 Lanos, Cielo, HYUNDAI의 Elantra, Accent, HONDA의 Civic, NISSAN의 Sentra 등이다. JEEP형의 차로는 GM의 Blazer, FORD의 Explorer, TOYOTA의 Samurai, CHRYSLER의 Grand Cherokee, 등을 들 수 있다.

6) 국민차 생산

베네수엘라 상업 생산부는 '99년부터 침체되어 있는 자동차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자동차 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오는 2004년 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국민차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차(Carro Familiar)의 개념은 배기량이 1,000-1,600cc에 기본사양만 갖추어 가격을 낮춘 차량으로, 가격은 대략 10,000\$ 미만의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국민차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 할부금융이자율을 시장금리의 90%로 하고, 구입 비용의 70%를 3년 이상 장기 융자토록 하였다. 또한 자동차 조립에 들어가는 부품부터 부가세를 면제하며, 조립사나 부품회사 모두 최소 마진만 붙이도록 하였다. 국민차는 1인당 1대씩만 구입이 가능하다. 국민차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업 생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국내 조립사뿐 만 아니라, 콜롬비아 등 안데안 국가 조립차도 국민차 지정이 가능하다.

99년 국민차로 지정을 받은 차는 국내 조립차로 GM의 Corsa, Ford의 Festiva와 Fiesta, 현대의 Accent 가 있으며, 콜롬비아 조립차로 르노의 Twingo, 19 Energy, 마스다 323 등 총 7개 모델이다. 한편 토요타 베네수엘라 공장도 일본에서만 생산되는 1,300cc 급 CAMI 모델을 생산했다.

베네수엘라 상업 생산부는 국민차 계획이 성공적이라고 보고 2001년에는 경트럭과 택시에 대해서도 국민차 개념을 도입했었다.

2004년 10월 국민차 프로젝트를 새롭게 가세타 법령 38,044로 발효시켰다. 여기에 참가한 업체는 Ford, GM, MMC, Toyota, Daimlerchrysler, Renault 그리고 Mazdad이다.

1차 국민차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남으로 2005년 현재 계속해서 국민차 판매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사항은 달라지지 않았다. 경트럭과 택시에 이어, 오토바이와, 트랙터까지도 실시하고 있다. (총 10개 부문)

국민차 판매 가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10월)

(단위: Bs)

업체	모델명	수동	자동
FORD	KA	18,800,000	
	FIESTA	21,200,000	
MMC	악센트 1.3	17,694,000	
	악센트 1.5	18,849,000	19,155,000
	시그노 1.3	20,800,000	
	TERIOS	20,450,000	21,200,000
	CORSA	16,800,100	
GM	AVEO 4	20,855,500	21,500,000
	AVEO 5	20,855,500	21,500,000
ALIANZA MMC Y DAIMLER	BRISA	20,800,000	

사. 정보통신산업

1) 정보통신산업동향

베네수엘라의 정보통신분야는 91년까지만 해도 기본적인 전화서비스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하였을 뿐 아니라 통신서비스의 질이나 서비스의 종류 및 다양성 면에서 낙후를 면치 못 하였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보통신 분야의 현대화와 합리화를 위하여 91년 교통통신부 (Ministry of Transport & Communication) 산하에 통신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CONATEL)를 설립,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제반 기획, 통제, 감독 및 투자 유치, 기술혁신을 주도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영 전화공사(CANTV)의 1차 민영화를 단행하였다. (CANTV는 96년 말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49%를 국내외 주식 시장에서 매각함으로써 완전 민영화되었다.)

CONATEL의 설립과 CANTV의 민영화를 계기로 정보통신분야는 최근 수년간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발전한 분야가 되었다. 1차 통신 붐은 CANTV의 1차 민영화와 이동 통신, CABLE TV 의 도입에 따른 것으로 무선통신 사업자 선정은 통신업계에 제한적이나마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통신산업의 급성장을 가져왔다. 2차 통신 붐은 1997년 이후 인터넷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것으로 유선통신 사업자인 CANTV와 무선통신 사업자인 TELCEL간의 경쟁이 격화되었다.

정보통신분야 중에서도 이동통신(Cellular Operating)분야와 Cable TV 분야가 정보통신 산업의 성장을 주도해 온 부문으로서 Cellular Phone은 베네수엘라에 보급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으나 가입자수가 500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통신가능지역의 확대와 통신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어 가입자수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2) 컴퓨터

베네수엘라에서는 컴퓨터가 자체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수요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 경쟁력 때문에 컴퓨터 부품을 수입, 현지에서 조립하는 복제품 시장은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Electroshop computer와 Siragon 두 회사만이 각각 e-tech, Canaima 라는 브랜드의 컴퓨터를 조립하여 판매하고 있다. 전자는 주로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며, 후자는 전량 중국산 제품이다. 한편, 최근 2005년 10월 차베스 대통령은 방송을 통하여 중국 컴퓨터 시장과 연계하여, 자체 공장을 베네수엘라에 설립, 중국의 기술과 베네수엘라의 인력으로 가정용 컴퓨터를 생산하겠다고 대국민방송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로써 기존가격의 30%를 절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컴퓨터 및 부품 수입 대상국은 미국으로 2004년도 기준 총 수입의 71%에 해당하는 US1.6억을 미국에서 수입하였다. 이외에 멕시코 대만 등이 주요 공급국이다. 한국산의 경우 모니터, 메모리 및 CD-ROM DRIVE 등이 상당히 보급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직수입보다는 대부분 마이애미 등지로부터 반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컴퓨터 판매업체들은 각 시장 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컴퓨터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수요층(대기업, 중소기업 가정, 학생)이 다양하기 때문이며, 수익성이 높은 시장 중의 하나이다.

컴퓨터 시장구조 및 경쟁동향

시장구분	비중(금액)	브랜드 별 비중	비고
기업용	70%	COMPAQ-HP 70% IBM 20% 기타 100%	미국브랜드가 시장 석권
가정용	30%	복제품 60% 수입품 40% (COMPAQ-HP, IBM, APPLE, DELL etc.)	저렴한 가격의 복제품이 시장주도 랩탑 수요 확대
계	100%	-	-

자료원: PC World(2005년)

3) 이동 통신

베네수엘라에 셀룰라폰이 도입된 것은 1991년이다. 미국의 BELL SOUTH 투자기업인 TELCEL이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CANTV의 계열사인 MOVILNET은 1992년 셀룰라폰 사업에 뛰어들었다. 1998년에는 지방 이동통신 사업자도 선정이 되어 DIGITEL, ELCA, INFONET 3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의 사업자로 선정된 DIGITEL은 가장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TELCEL, MOVILNET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MOVILNET은 TDMA 방식을 채택하여, 주로 MOTOROLA, NOKIA, ERICSON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DIGITEL은 GSM방식을 채택, NOKIA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TELCEL은 TDMA방식으로 시작하였다가 1998년 CAMA 방식으로 바꾸면서 삼성, 현대 등 한국산 단말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셀룰라폰 가입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증가하여, '96년 50만 명에 불과하던 가입자가 2000년 들어 5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와 같은 가입자수의 증가는 카드구입을 통한 PRE PAY 시스템과, 신속성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데, 유선전화의 경우 신청에서 설치까지 2-3개월이 걸리는 반면, 무선전화는 현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또 PRE PAY시스템은 10,000Bs, 20,000Bs, 30,000Bs짜리 카드를 사서 입력하면 사용한 만큼만 요금이 공제되고, 수신전화는 요금 부과가 안되기 때문에 학생층, 서민층으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2004년, 2005년 현재 계속된 가입자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Movistar의 판매전략과 판촉행위로 계속 해서 저렴한 가격의 셀룰라폰이 쏟아지며, 현 2005년 12월, 2003년에 비해 2배의 증가 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베네수엘라인의 소비성향과 유행성으로 계속해서 신제품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질 것이며, 구매 가능한 층들을 겨냥한 새로운 모델들의 판매가 증가추세에 있다.

회사별 휴대폰 가입자 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인구(천명)	25,242	26,106	26,540
가입자수(천명)	7,637	10,784	13,374
인구대비 비율	37.04%	45.81%	61.3%
MOVISTAR(천명)	3,078	4,569	6,119
MOVILNET(천명)	3,009	3,180	3,206
DIGITEL(천명)	1,550	3,035	4,049

자료원 : Conatel 발표 보고서

4) Cable TV

베네수엘라에는 8개의 고유 채널이 있으나, 방송이 다양하지 못하고, 통신부(CONATEL)에서 강제적으로 예고 없이 정부관련프로를 방송하기에 중산층 이상의 가정은 대부분 CABLE TV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사업자로는 SUPERCABLE, CABLEVISION, DIRECT TV등이 있는데, 가입자 수는 50만 명을 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5) 인터넷 활용

전체 인구 중 인터넷 사용률이 2000년에 4%이하에 불과했지만, 정보통신 분야가 1999년에 20% 성장을 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인터넷 사용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0년 베네수엘라의 인터넷 사용자수는 Jupiter Research의 경우 54만 2,000, IDC의 경우 59만 6,000명으로 발표했다. Jupiter Research는 2003년에는 207만 명, 2005년에는 379만 명의 사용자로 급성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분야는 휴대폰의 보유율이 높고 인터넷 접속에 대한 관심이 높은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분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에서는 무선 웹을 통한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이 유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보다 훨씬 유망한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

인터넷 분야에서 대표적인 회사는 CANTV의 CANTV Servicios와 Telcel의 T-Net이다. 베네수엘라의 대표적인 ISP 제공업체인 두 업체가 시장의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10%의 시장에서 18개 소규모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자들과는 달리, CANTV의 경우 이미 구축된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위치에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질 향후 상황에 대비해서 Cool Card같은 선불서비스를 통해 고객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의 Telmex에서 성공을 거둔 서비스인 무제한 인터넷 접속과 PC제공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ADSL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유선통신 인프라와 낮은 개인컴퓨터 보급률(16%), 높은 통신료가 인터넷접속을 제한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 확대를 높이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선불카드를 통한 공공 인터넷 이용장소인 정보센터를 정부건물, 지하철역, 쇼핑센터 등에 설치하고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보통신 인프라개발에 대해 세제상의 우대나 통신분야 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관세인하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인터넷 보급 및 활성화가 아래와 같이 수도 카라카스에 집중되는 등 도시 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6) 전자상거래 현황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에서는 B2B시장이 B2C시장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전자상거래담당 협회인 Cavecom-e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5월 현재 인터넷 사용인구 중 20%의 이용자만이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매했음을 알 수 있다.

전자상거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유선통신시설의 미비와 신뢰하기 힘든 우편서비스를 들 수 있다. 2000년 11월의 유선 통신시장 개방으로 서비스 상황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우편서비스의 신뢰문제와 지역별로 차이가 심한 유선통신시설로 인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 전자상거래관련 법안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현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전자 결제나 온라인구매 등을 위한 보호법안제정을 통해서 인터넷 사용 및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며, 과학기술처는 2000년 2월 전자결제와 전자서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출, 통과시켰다.

전자상거래 사이트 중에서 온라인 옥션 사이트인 DeRemate.com의 베네수엘라 지부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이 회사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우루과이 등에도 지부를 갖고 있다. 중고자동차 판매사이트인 tucarro.com, 구직구인 사이트인 empleate.com 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른 중남미국가와 마찬가지로 은행이 온라인 서비스를 가장 먼저 활용한 분야이며 Banco Mercantil이 온라인 बैं킹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

컨텐츠 제공업체인 EUD.com, 베네수엘라의 주요신문인 El Universal의 디지털신문, 인기 잡지 Urbe의 디지털버전인 loquesea.com 등도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기업인 loquesea.com은 23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제휴를 맺고 있다.

인터넷 포털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chevere.com, yuada.com, ayantapui.com, 등은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미디어 재벌인 Cisneros Group과 American Online의 합작회사인 AOL-Latin America는 브라질을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최근 아르헨티나 포털사이트인 El Sitio를 매수했고,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불안정한 우편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사설 우편업체들을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Movistar의 mipunto.com은 DHL과 계약을 맺고 있다.

7) 주요 무선통신회사

□ Movistar

Movistar(Telcel)는 베네수엘라 최초의 휴대전화 서비스회사이며 중남미에서 최초로 100만 명의 고객을 돌파한 회사다.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코드분할 다중 접속) 네트워크를 위해 Lucent Technologies 장비를 이용했고, 1991년에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비스를 시작으로 30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다가 현재는 800만 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향후 4년간 매년 250-3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 2004년에는 LMDS(Local Multipoint Distribution System), WLL(Wireless Local Loop)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이 회사는 WAP를 위해 5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WAP 서비스확대에 대한 고객들의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2001년에 휴대전화이용자의 20%정도를 WAP사용자로 전환시켰다. 이 회사는

144킬로바이트 속도로 데이터전송을 할 수 있는 IMT-2000(3G:Third Generation)기술을 도입했다. Telcel.net(T-Net)을 통해서 인터넷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이며, 가입자들은 Mipunto.com이라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인터넷접속과 이메일 이용, 물건 구입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인터넷 접속과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선불카드를 도입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해외 여행 시에도 로밍 서비스를 통해 전화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2004년도 스페인 통신회사에 팔려 현재 이름을 Movistar로 변경, 이미지 변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스페인에서 제조된 단말기를 경제적인 가격으로 제공하여 2004년도 크게 가입자수가 상승하였다.

□ Movilnet

CANTV의 자회사인 Movilnet은 1992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Movilnet 시스템의 95%가 디지털화되어 있고, Ericsson에서 기술과 단말기를 제공해왔으며, CDPD(Cellular Digital Packet Data)에 5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거대 통신회사인 CANTV는 2000년 초에 Movilnet 무선통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StarMedia와 함께 Tun-tun.com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는데, 이는 휴대전화사용자를 위한 중남미 지역 최초의 포털 사이트라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100만 명의 이용자들에게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접속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현재 WAP이용자들에게 뉴스, 이메일, 무료번역서비스, 웹 사이트 접속 등을 제공하고 있고, WAP서비스에 월 7달러를 받고 있다. EDGE(Enhanced Data Rates for Global Evolution)기술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도 실시했다.

□ Digitel

Digitel은 자국 및 외국기업들간의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2000년 11월 이태리의 Telecom Italia가 56.6%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Digitel은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900 유선 네트워크설치를 위해 노키아 장비를 이용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유럽 및 미주지역의 GSM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 로밍 서비스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Digitel은 UOL과 계약을 맺고 GSM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이메일, 채팅 등 무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용자 수는 20만 명 정도이지만, 올 말까지 70만~90만 명으로 고객을 늘릴 목표를 세우고 있다.

회사명	MOVISTAR	MOVILNET	DIGITEL
서비스지역	98 %	98%	23개 주 중 12개 주
국제로밍서비스	해외지역에 따라 이용 요금이나 서비스 가능 여부 차이	좌 동	부가요금 없이 서비스
가입자수	8,400,000	4,600,000	3,210,000
(선불제)	(80%)	(85%)	(70%)
기술	800 MHz band의 CDMA	800 MHz band의 TDMA	900 MHz band의 GSM
선불카드	USD \$7, \$17, \$35 "Telpago" 카드 이용	USD \$7, \$17, \$35 "Coolcards" 이용	USD \$18 , \$35 "Radical" 카드 이용
핸드셋	Motorola, Samsung,	Nokia, Motorola	Siemens, Ericsson,

브랜드명	Hyundai 장비가 주	Ericsson장비가 주	Nokia, Motorola, Philips, Audiovox
인기모델명	Motorola Elite, Startac	Baby Nokia(Nokia 6120)	Siemens C25
네트워크	45% 디지털 55% 아날로그	98% 디지털 2% 아날로그	100 % 디지털
서비스시작일	1991	1992	지방서비스: 1998 도시지역: 1999
지분보유율	Movistar(spain): 78% Oswaldo Cisneros:17% Invest-지역투자자들:5%	100% CANTV	Italia Telecom 56.6% BSCH: 15%, BBO: 12% Latin American ment Bank: 10%
인터넷서비스	"T-Net" ISP, "Mipunto.com" 포털사이트, WAP 휴대 전화 인터넷서비스	"CantvServicios" ISP 휴대전화를 통한 "Tun- tun.com 포털 사이트, WAP서비스 이용요금 USD 7.00	인터넷접속 서비스 제공
배포 채널	공식 에이전트: 2,000	공식 에이전트: 1,600	상업적인 파트너
애프터서비스	서비스 센터: 160	서비스 센터: 125	-

자료원: El Nacional (위의 자료와 기타 연구소자료는 수치에 차이가 있음.)

□ 유선전화서비스

2000년 11월 27일에 시내, 시외, 해외전화서비스 등 기본 전화서비스가 CANTV의 독점서비스 체제에서 공개경제 체제로 변화하게 되었고, Movistar과 Veninfotel이 운영권을 받았다. 현재 독자적인 전화부스를 설치하여 유선전화서비스의 다양화 시대를 열고 있다. 그러나 설치, 유지문제로 인해 아직 Cantv의 전화 부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8) 통신장비 수입 현황

전화부스, 전화박스, 동축케이블 등을 제외하고는 베네수엘라에서 정보통신 장비의 국내 생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유럽국가들은 주로 스위칭 장비를 공급해왔고, 동축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등은 미국에서 수입해왔다. 미국은 통신장비 시장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는 통신장비 수입에 대한 장벽이 거의 없는 상황이나, 통신장비의 수입업체는 CONATEL로부터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9) 통신사업자 선정

베네수엘라의 정보통신 분야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하고는 개방되어 있으나 사전에 CONATEL에 등록 및 사업권을 신청토록 되어 있으며, CONATEL은 통신사업자 선정과정을 통하여 통제하고 있다.

○ 선정기관: CONATEL

- ADD: Paseo Las Mercedes, Av. Veracruz con Calle Cali, Edif. CONATEL, Caracas, Venezuela

- TEL: (58-212) 909-0310, 909-0311, 909-0321
- FAX: (58-212) 993-0165

□ 통신사업자 선정절차

CONATEL의 통신사업자 선정과정은 두 가지 단계 즉 Register(사업자 등록)와 Concession(사업권 취득)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 사업자등록(Register)
 - 사업자 인적 사항, 자본금, 회사형태, 서비스 종류, 채택기술, 사업계획 등을 구비, CONATEL에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CONATEL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서비스의 중복, 채택기술의 적정성, 과당경쟁여부 등을 기준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허가하게 되어있다.
- 사업권 취득(Concession)
 - CONATEL에 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법인으로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기술적, 경제적 및 법률적인 자료와 함께 CONATEL에 제출하여 사업권을 요청하게 되어있으며 CONATEL의 각 실무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권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통신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통신 사업권을 취득하여야 비로서 통신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0. 정보조사 자료원

가. 경제 자료원

- VenEconomy : 월간경제전문지 www.veneconomy.com
- Banco central de Venezuela : 중앙은행 www.bcv.org.ve
- Bolsa de Valores de Caracas : 증권거래소 www.caracasstock.com
- Organizacion Italcambio : 환전기관 www.italcambio.com

나. 주요 일간지

- EL UNIVERSAL: 베네수엘라의 대표적인 중앙지로 발행부수는 월-토요일은 16만부, 일요일은 32만부이다. (www.eluniversal.com)
- EL NACIONAL: EL UNIVERSAL과 쌍벽을 이루는 일간지로 발행부수는 약 20만부에 달한다. (www.el-nacional.com)
- EL MUNDO: 베네수엘라 유일의 석간지로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실는다. (www.elmundo.com.ve)
- THE DAILY JOURNAL: 베네수엘라 유일의 영자신문으로 주로 외국인들을 위한 신문이다. 발행부수는 약 10,000부 정도이다.
- Qinto Dia: 매주 금요일마다 발간되는 신문으로, 분석기사와 시중에 나도는 소문을 추적한 기사가 유명하다. (www.quintodia.com.ve)

- ULTIMANOTICIA: 반정부성향의 일간지. (www.ultimasnoticias.com.ve)
- 2001: 일간지로 정치적 색깔이 열음. (www.2001.com.ve)
- Tal Cual : www.talcualdigital.com
- El TIEMPO : www.diarioeltiempo.com.ve
- LA VOZ : www.diariolavoz.net
- Meridiano: 스포츠신문 : www.meridiano.com.ve

다. 주요 경제지표

- Banco Central Venezuela: www.bcv.org.ve
- Banco Mercantil: www.bancomercantil.com
- 베네수엘라 외국인 투자진흥청(SIEX): www.sieux.gov.ve
- 외국인 투자유치 사무소(CONAPRI) www.conapri.org
- 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www.ine.gov.ve

라. 전력 자료원

- CAVEINEL www.caveinel.org.ve
- CIER : Sintesis Informativa Energetica
- CORPORACION VENEZOLANA DE GUAYANA : www.cvg.com
- CADAFE : 국영전력회사 www.cadafe.gov.ve
- EDELCA : 국영전력회사 www.edelca.com.ve
- EDC : 민간전력회사(La Electricidad de Caracas) www.laedc.com.ve

마. 자원관련 자료원

- 국영석유회사 : www.pdvsa.com
- 환경지하자원부: www.marnr.gov.ve
- 광물부 : www.mibam.gob.ve

바. 자동차관련 자료원

- CAVENEZ (자동차공업협회): www.cavenez.com
- CANIDRA(부품협회) : www.autopartesdevenezuela.com

사. 각종협회

- 카라카스 상공회의소 : www.ccc.com.ve
- 발렌시아 상공회의소 : www.camaracomerciovalencia.org.ve
- 전자협회(CAMARA VENEZOLANA DE COMERCIO ELECTRONICO) : www.cavecom-e.org.ve
- 수출자 협회 : www.ddex.com
- 미국 상공회의소 (CAMARA VENEZOLANO-AMERICANA) : www.venamcham.org

III. 경제무역통계

11. 거시경제통계

거시 경제 지표

구 분	단 위	2002	2003	2004	2005	2006(전망)
GDP성장률	%	-8.9	-9.4	17.9	7.1	6.0
GDP	US\$십억	95.4	85.5	111.2	145.2	167.1
인구	백만명	25.1	25.5	26.0	26.5	27.1
인플레이	%	22.4	31.1	21.8	15	14.0
경상수지	US\$십억	7.6	11.5	15.0	14.5	15.3
대외수입	US\$백만	11,673	8,337	15,160	33,186	30,600
공정환율	Bs/US\$	1,399.5	1,600	1,920	2,150	2,150
실세환율(연말)	Bs/US\$		2,423	2,770	2,700	2,650
외환보유고(“)	US\$백만	14,860	21,366	24,208	38,523	37,789

자료원 : 중앙은행 통계/Veneconomy/EIU)

물가금융지표

지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소비자물가지수(1997=100)	206.0	231.3	303.5	385.7	459.7	521.6
도매물가지수(1997=100)	173.6	193.0	266.1	407.2	529.4	641.2
(소비자)물가 상승율(%)	13.4	12.3	31.2	27.1	19.2	9.8
통화량(M1/10억 볼리발)	8,015.7	9,152.2	10,857.4	18,970.4	27,301.5	32,705.4
통화증가율(M1/%)	31.5	14.2	15.6	42.5	41.4	9.6
주가지수	6,825.3	6,570.3	8,015.17	22,203.95	20,017.33-	28,964
환율(연말 기준)	700.0	758.00	1600.00	1600.00	1920.00	2150.00
금리(상업 대출금리/%)	22.67	19.51	20.4	17	16.9	18.6

자료원 : BANCO DE VENEZUELA

노동 통계

지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잠정)
고용인구(%)	47.0	49.9	48.6	47.3	51.4	54.1	59.7
실업율(%)	13.7	13.5	14.8	17.0	13.9	11.2	10.4
월 최저임금(천Bs)	144.0	158.0	190.0	247.1	321.2	405.0	515.6
임금 상승율(%)	20.0	10.0	20.4	30.0	36.5	27.4	15.3
주당 평균근로시간	44	44	44	44	44	44	44

자료원 : 노동부

최근 6개년 세부항목별 국제수지

(단위 : 미\$ 백만)

항 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잠정)
수 출(1)	33,597	27,056	26,781	27,170	38,748	59,353	61,958
석유부문	27,885	21,499	21,532	22,029	31,917	51,429	54,113
비석유부문	5,150	5,557	5,249	5,141	6,831	7,924	7,845
수 입(2)	16,073	17,282	13,360	10,687	17,318	26,166	30,613
무역수지 (1 - 2)	17,524	9,774	13,421	16,483	21,430	33,186	31,344
오차 및 누락	-4,395	-5,047	-2,783	-1,052	-2,961	-	-
조정	289	0	768	1,052	674	-	-
종합수지(6+7+8+9)	5,818	-2,599	-3,659	6,459	2,588	7,004	6,271

자료원: BANCO CENTRAL DE VENEZUELA, VENECONOMY(2006.11)

12. 무역통계

가. 한국과의 무역관계

1) 한-베네수엘라 관계

베네수엘라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선린우호 정책을 견지하여 왔으며 1965년 국교 수립, '83년 주한상주공관 설치, '93년 과학기술협력 기본협정 체결, 이중과세방지협정 실무협상 진행 등 양국관계는 긴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99년 10월 차베스 대통령의 방한으로 베네수엘라 정부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아져 있다. C. A. Perez 대통령 집권 당시에 국제관계 다변화 정책에 따라 '74년 북한과 수교한 바 있으나, 북한의 대남도발책동에 대해 비판적이며, 한반도의 평화통일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북한은 상주 공관을 운영하다가 '99년 초 철수한 바 있다. 2005년 4월 3개월 관광 무비자 협정을 맺어, 관광 및 비즈니스 업무로 쉽게 올 수 있다. 피아니스트 백교수의 공연, 11월에는 흥신자 발레단의 공연과, 12월 사라 장의 바이올린 연주 등 활발히 문화계에서 교류를 가지고 있다. 2006년 8월 국영TV채널인 La Tele에서는 한국드라마인 “겨울연가(Sonata del invierno)”를 방영하고 있으며 Dynamic Korea의 광고효과, 11월 현재에는 “가을동화 (Otono en mi Corazon)”로 한국의 이미지 개선에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무드를 이용 하여 비즈니스 쪽에도 많은 성과를 기대해본다.

2) 교역규모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와 본격적으로 교역을 시작한 '80년대 중반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5천만 불 내외였으나, '92년 및 '93년 유조선 프로젝트가 성사되어 4억5천만\$ 규모로 급증 하였으나, '94-'96년 기간 동안 베네수엘라가 외환통제를 실시해 교역규모는 다시 1억 5천 만불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그러나, '00년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는 꾸준히 3-4억\$규모를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 참조) 또한,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와의 교역에서 줄곧 무역흑자를 기록해왔다.

'80년대에는 매년 약 3천만\$-5천만\$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92년, '93년에는 흑자규모가 3억5천만\$-3억9천만\$로 급증하였다가 '94년~'96년 베네수엘라의 외환통제기간 동안 흑자규모가 5천만\$ 내외로 감소하였었으나, '97년 1억 6천만\$, '98년 2억 5천만\$, '99년 2억 39백만\$, '00년 3억 55백만\$로 흑자규모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01년에는 4억22백만 불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여 양국간 교역에 있어 주재국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및 선박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92년 대 베네수엘라 수출은 전년대비 350% 증가한 4억 3천만\$을 기록하였으며, '93년에는 3억 9천만\$을 수출하였다. '94- '96년에는 베네수엘라 외환통제를 실시하여 양국간 교역규모가 약 70% 가량 감소되었었으나, '96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97년에는 우리나라의 대 베네수엘라 수출이 2억 2천만 불로 전년대비 79.3% 증가하였으며, '98년에도 2억 7천만 불로 전년대비 22.2%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99년 들어 베네수엘라의 극심한 경기침체로 수입이 전년대비 26%나 감소하는 상황이었으나, 우리의 수출은 '98년보다 3.4%가 증가한 2억8천만\$을 기록하였다. 우리의 주종수출품목으로 경기에 가장 민감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전년대비 거의 40% 감소하였으나, '98년 말부터 시작된 CDMA 방식의 핸드폰이 8천1백만\$ 수출되어 자동차 수출부진을 만회하였으며, 또한 석유류의 수출 부진도 군용텐트 입찰 수주로 만회하였다.

여타품목들도 고른 수출 신장세를 보여주었는데, 베네수엘라의 전체적인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상품이 이와 같이 수출 증가세를 보인 것은 우리상품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된 점과, 우리 수출 상품 구조가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원자재, 부품 쪽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00년 들어 '98 - '99년 중 효자 상품이었던 셀룰라폰이 현지 시장의 포화상태에 따라 주춤한 반면, 자동차는 대우 씨엘로가 택시용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전년 대비 100% 이상의 신장세를 보였다. '06년 현재 국민차로 지정된 현대의 Accent가 수출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기타 철강제품은 포항제철의 공급 물량 부족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타이어 튜브는 세이프가드 조사로 수출이 주춤하였으나, 가전제품, 섬유기계류의 수출이 많이 증가하여 이를 만회하였다. 2000년도 대 베네수엘라 수출은 '99년보다 35.7%가 증가한 3억 8천만\$을 기록하였다. 2001년 들어서도 수출은 계속 호조를 보여 수출은 554.6백만\$로 전년동기비 45.9%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동 실적에는 6천만\$ 상당의 군수 지원함 수출도 이루어졌다. 한편, 우리의 대 베네수엘라 수출은 직교역 이외에 파나마나, 마이애미에서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파나마나 마이애미의 보세창고, 멕시코 현지공장 등에서 수입되는 물량이 많고 또 안경테 등의 잡제품은 마이애미를 통해 소량씩 반입되는 것들이 많아 실제 우리의 수출실적은 통계치보다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 베네수엘라 수입은 규모 면에서 미미한 편이지만 매년 증가하여 '94년 이후 매년 5천만\$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97년 말 IMF 여파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입 감소로 '98년도 대 베네수엘라 수입은 2천5백만\$로 급감하였다. '99년 수입은 납사 수입의 증가로 '98년보다 66.2%가 증가한 41.8백만\$을 기록하였다.

2000년 들어서도 현지화 고평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우리의 수입은 '99년 대비 38.9%가 감소한 25.5백만\$을 기록하였다. 2001년에는 근래 들어 최대 호황기를 맞이하여 2000년

대비 45.9% 증가한 554.6백만\$을 기록하였으나 2002년 초부터 정치불안 및 자유통환제 시행으로 인하여 247.5백만\$로 55.4%나 감소하였다. 2003년에는 2002년 말부터 시작된 총파업이 2월 초까지 이어지고 이에 따라 달러화의 해외유출이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환율이 폭등하자 정부에서는 외환거래를 중단하고 2003년 2월 6일부로 새로운 법령을 마련하여 외환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외환통제로 인하여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4년 주재국의 고유가로 인한 소득증가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한국의 대 베네수엘라 수출은 229.9백만 불이며 수입은 93.6백만 불 수준에 있다. 2005년 고유가와 친정부파의 국회의원 선거 압승 등의 결과로 정치는 계속해서 안정, 수출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무엇보다 자동차산업, 부품산업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수출실적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고유가와 베네수엘라 원유의 경제성 인정으로 계속된 달러 유입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는 올해 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교역품목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구조는 자동차, 전자제품이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데, 2004년의 경우 자동차 수출이 전체의 55%, 전자제품 수출이 전체의 24%를 차지 하였다. 전자제품 중에서도 수출의 효자 노릇을 했던 휴대폰은 현지 시장의 포화상태로 수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가전제품은 무려 73.4%가 증가하였다. 그 밖에 금속제품, 자동차 부품도 수출이 크게 증가한 품목들이다. 한편, 주요 수입상품으로는 철강, 알루미늄, 동, 석유화학 제품 등이 있으며, 특히 원유, 철강, 알루미늄, 동 등의 수입이 2001년 수입의 95%이상을 차지하여 원자재 수입시장의 성격이 강하다. 2002년 베네수엘라의 정치문제로 주 수출상품인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의 극심한 격감을 보였고 전년대비 -55.4%를 기록했다. 2003년도 핸드폰 수출의 힘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정치, 경제 문제로 크게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외환통제와 고유가, 경제부양책의 노력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며 2004년 수출은 2002년 때로 회복 되었으며 2005년 현재 정치의 안정과 고유가 등으로 베네수엘라의 경기가 크게 회복되며, 계속해서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국민차 정책으로 자동차 부품판매가 계속해서 늘 전망이다.

對 베네수엘라 교역동향

(단위 : US\$천,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 출	554,664	247,486(-55.4)	106,977(-56.8)	229,902(114.9)	490,739(184.5)
자동차	218,026	67,781(-68.9)	20,949(-69.1)	90,976(334.3)	195,104(221.4)
“ 부품	25,491	22,643(-11.2)	9,517(-58.0)	18,491(94.3)	23,573(65.5)
핸드폰	32,528	22,934(-29.5)	33,616(46.6)	30,360(-9.7)	35,231(43.6)
냉장고	24,258	9,384(-61.3)	1,386(-85.2)	5,845(321.7)	7,248(59.5)
에어컨	24,316	11,341(-53.4)	3,212(-71.7)	15,396(379.3)	10,549(-9.4)
수 입	42,237	45,873(8.6)	50,171(9.4)	93,609(86.6)	193,890(113.4)
교역수지	512,427	201,613	56,806	136,293	296,849

자료원 : KOTIS / 괄호는 증감을

4) 현안사항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한 클레임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부품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품 미선적, 중고부품 선적 등에 따른 클레임이 늘고 있다. 이런 클레임들은 한국상품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므로 우리업체가 대 베네수엘라와의 거래 시 보다 신중하고 성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베네수엘라가 안데안 회원국, G-3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함에 따라, 한국산제품의 경쟁력 상실 등 부정적인 요인이 가시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 멕시코와의 G-3협정에 따라 콜롬비아 산 타이어는 무관세로 반입되는 반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는 15%의 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경제공동체의 관세 인하 폭은 시간이 감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상품은 점차 더 가격경쟁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경기 침체와 환율 고평가에 따른 국내상품의 경쟁력 약화로 국내산업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수입 규제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망된다. 특히 반덤핑 제소와 세이프가드 제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 초 철강판에 대해 세이프 가드가 제소되었다가 국내업계의 반발로 철회된바 있으며, 3월에는 승용차용 타이어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제소되어 12월 반덤핑위원회는 세이프가드 조치 타당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동건은 상업생산부의 검토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되었으나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조립업체들은 수입차의 범람으로 국내 조립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지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정부로서는 자동차 산업의 육성이 고용은 물론 연관부품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모종의 조치는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 방법으로 현재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차 제도를 확대하여 국내 조립상업용 차량 (버스, 택시, 소형 트럭 등)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덤핑 제소의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동구권과 일본산 철강이 덤핑 판정을 받은바 있다.

나.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연도별 수출입 규모

연도별 수출 규모

(단위 : US\$천, %)

연도	금액	증가율
1997	221,757	79.4
1998	270,963	22.2
1999	280,265	3.4
2000	380,277	35.7
2001	554,664	45.9
2002	247,486	-55.4
2003	12,339	-88.5
2004	114,432	97.8
2005	276,657	56.6

연도별 수입 규모

(단위 : US\$천, %)

연도	금액	증가율
1997	58,617	16.8
1998	25,160	-57.1
1999	41,806	66.2
2000	25,547	-38.9
2001	42,237	65.3
2002	45,873	8.6
2003	46,964	1.8
2004	59,847	21.8
2005	65,987	10.3

다.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주요 수출입 상품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US\$천,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5		2006년(1~9월)	
	(MTI)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570,523	148.2	681,886	52.2
1	7411	승용차	229,011	155.4	355,642	101.2
2	7461	선박	123,317	-	123,317	0
3	8121	무선전화기	47,575	56.7	27,445	-12.1
4	7420	자동차부품	27,680	49.7	24,646	19.2
5	8242	에어컨	15,399	0.0	21,857	148.7
6	5290	기타가구	5,622	197.9	8,455	96.3
7	2140	합성수지	6,802	483.0	7,519	32.3
8	8230	냉장고	8,933	52.8	7,284	6
9	7211	섬유기계	4,155	17.3	6,634	112.3
10	7251	건설중장비	2,238	1.7	6,572	392.1
11	2150	합성고무	2,603	474.6	5,710	663.3
12	3203	타이어	4,844	200.1	5,110	44.9
13	7412	화물자동차	2,812	113.7	5,058	231.1
14	8211	칼라TV	2,835	110.1	4,400	55.2
15	8500	전선	465	68.1	3,885	1,057.50
16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575	57.9	3,550	1,705.90

17	8241	세탁기	1,715	532.2	3,203	259.5
18	9701	무기류	1,510	42.6	3,135	784.3
19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2,558	0.2	2,588	37.2
20	7112	펌프	3,022	162.9	2,125	-6.1
21	7274	인쇄기계	1,340	59.7	2,033	128
22	4360	편직물	2,584	-39.8	2,009	-1.7
23	6172	주철	70	27.9	1,895	2,652.50
24	3204	타이어튜브	1,766	72.4	1,860	24.4
25	8132	보조기억장치	933	-	1,854	910.1
26	4490	기타섬유제품	1,056	191.8	1,820	101.5
27	7131	공기조절기	1,341	44.3	1,797	88.4
28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2,057	1,452.30	1,795	-7.2
29	8127	무선교환기중계기	482	-	1,737	-
30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450	-13.1	1,630	54.8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US\$천,%)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5		2006년(1~9월)	
	(MTI)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12,008	126.5	53,991	-71.2
1	6183	환원철	144,058	398.7	41,868	-69.1
2	1339	기타 석유제품	56,300	8.8	9,433	-77.8
3	2289	기타 정밀화학원료	1,459	38.6	982	-15.5
4	6221	동괴 및 스크랩	1,499	-80.1	436	-66.7
5	7290	기타산업기계	0	-	256	-
6	451	어육	203	-	210	-
7	315	섬유판	0	-	208	-
8	8127	무선교환기 및 중계기	0	-	202	-
9	6211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1,525	46.7	121	-91.6
10	125	건과류	176	-46.1	64	-63.8
11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127	36.7	62	14.8
12	313	합판	0	-	19	-
13	4393	자수포	28	-	18	-
14	4412	직물제 의류	2	-85.6	16	752.1

라. 교역 대상국 별 수출입 통계

주요 국 별 수출

(단위: 미\$ 백만)

국가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콜롬비아	1,294	671	743	793	821	1,203	1,345	1,582
미 국	1,160	1,254	1,760	1,826	1,793	1,172	1,287	1,393
일 본	184	200	220	329	591	389	462	632
멕시코	205	172	272	284	294	247	421	478
네덜란드	-	85	143	165	93	151	196	203
페 루	n.a.	138	141	152	163	184	194	167
기 타	1,829	1,338	1,513	1,672	1,729	829	1,589	2,166
합 계	4,972	3,768	4,792	5,221	5,484	4,175	5,494	6,621

자료원 : OCEI

주 : 석유를 제외한 비 전통상품 수출

주요 국 별 수입

(단위: 미\$ 백만)

국 가 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미 국	4,856	5,481	5,317	6,497	4,856	5,681	6,473
콜롬비아	661	1,084	1,131	1,234	1,184	1,778	2,537
독 일	581	522	532	519	515	581	622
일 본	413	500	648	728	663	739	850
프 랑 스	231	354	376	337	305	342	364
브 라 질	425	727	684	727	649	783	692
이 태 리	685	640	624	671	520	685	764
기 타	3,858	5,276	5,176	5,660	4,104	5,858	6,123
합 계	11,710	14,584	14,488	16,373	12,892	16,447	19,625

자료원 : OCEI

13. 투자통계

가. 대외투자진출통계

해외 투자가 가장 많은 업체는 석유공사(PDVSA)로 미국, 유럽 등지에 정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콜롬비아,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에 약간의 투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 아시아 투자는 PDVSA가 오리물전을 판매하기 위하여 일본 미쓰비시와 합작으로 일본에 세운 오리물전 판매법인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

대 베네수엘라 직접 투자액

(단위 : 미\$)

	1월	2월	3월	한해 총 투자액
2004	55,152,372	46,986,386	24,415,759	126,554,517
2005	4,637,436	50,243,553	126,927,837	181,808,827

자료원 : SIEEX(베네수엘라 외국인 투자진흥청)

주 : 연말잔고를 기준으로 한 실적임. 석유, 석유화학, 광물, 보험, 은행투자는 제외

업종별 투자액

(단위: 미 달러)

2003년		
농림수산업	16,764,868.91	1.43
제조업	164,432,567.29	14.00
전력	21,471,002.02	1.83
건설	5,344,996.58	0.46
광산 개발	0	0.00
상업	29,553,364.06	2.52
운수·창고	889,654,344.76	75.76
사회서비스	11,161,584.01	0.95
기타서비스	35,857,350.56	3.05
계	1,174,240,078.19	100%

2004년		
농림수산업	563,878.12	0.12
제조업	415,888,346.82	84.54
전력	1,243,447.13	0.25
건설	1,152,037.39	0.23
광산 개발	12,738.85	0.00
상업	14,374,437.55	2.92
운수·창고	1,595,168.55	0.33
사회서비스	1,938,064.07	0.4
기타서비스	55,165,203.95	11.21
계	491,933,322.43	100%

2005년		
농림수산업	254,974.30	0.03
제조업	462,633,313.44	50.58
전력	1,475,115.63	0.16
건설	3,286,024.31	0.36
광산 개발	184,366.69	0.02
상업	6,719,372.22	0.73
운수·창고	390,816,678.94	42.73

사회서비스	181,823.66	0.02
기타서비스	49,070,976.18	5.37
계	914,622,645.37	100%

자료원 : SLEX(베네수엘라 외국인 투자진흥청)

국가별 대 베네수엘라 투자액

(단위 : USD)

연번	국가	2003년	2004년	2005년
1	독일	9,817,743.75	10,540,869.86	3,217,538.88
2	아르헨티나	139,821.08	9,429.91	110,590.40
3	아루바	5,620.00	0	499,960.00
4	오스트레일리아	60,049.59	0	0
5	오스트리아	205,175.46	0	0
6	바하마	1,434,180.66	3,197,654.93	3,321,125.64
7	바베이도스	0	250.00	204,000.00
8	룩셈부르크	9,744,726.32	1,537,759.29	867,781.43
9	베르무다스	931,643.64	15,046,033.83	1,052.97
10	브라질	120,955.00	1,752,925.93	99,984.85
11	가이안	11,960,658.17	0	400,240,143.32
12	캐나다	39,346.57	1,754,446.59	5,220.86
13	칠레	899,951.15	129,966.00	2,739.91
14	중국	11,352.69	0	0
15	콜롬비아	17,672,451.14	21,332,332.23	3,913,798.21
16	한국	10,752.69	14,553.73	0
17	코스타리카	1,764,011.05	0	915.23
18	쿠바	32,004.86	0	4,662.88
19	쿠라사오	691,095.86	4,142,152.72	6,524.31
20	디나마르까	0	1,950,727.85	1,046,063.28
21	에콰도르	0	98.00	496,282.32
22	미국	995,892,510.72	173,945,476.73	368,636,341.68
23	슬로바키아	0	0	310.82
	스페인	11,158,029.67	20,836,923.58	30,601,778.53
	필리핀	0	0	9,607.34
24	프랑스	16,037,271.90	50,231,384.28	6,777,329.44
25	홍콩	18,634.99	0	0
26	인도	0	1,000.00	0
27	이스라엘	0	391.61	0
	이란	0	0	104,913.96
28	이탈리아	814,634.22	831,868.41	6,512.75
29	일본	9,089,249.91	0	50,718,380.64
30	레바논	35,973.80	0	0
31	모리시어스	2,109.22	0	0
32	말타	0	272,702.32	0
	리베리아	0	0	2,681.88

33	멕시코	98,302.28	399,130.62	259,721.07
34	노르웨이	12,898.60	0	0
35	네덜란드	50,520,253.42	2,343,134.57	25,604,975.39
36	파나마	21,257,032.90	3,897,010.65	10,989,482.26
37	페루	90,607.34	2,834,676.99	19,376.82
38	포르투갈	0	265,084.60	194.00
39	리히스타인	0	3,426,809.84	0
40	푸에르토리코	499,984.61	987,261.14	0
41	영국	2,625,256.45	1,694,660.90	2,806,760.63
42	도미니카공화국	0	33.93	0
	루마니아	0	0	10,400.00
43	스위스	3,368,974.53	157,104,799.57	1,327,280.15
44	스웨덴	0	1,243,447.13	0
45	우루과이	2,804,463.89	1,283,351.72	52,139.89
46	버진아일랜드	4,372,350.06	8,924,972.97	2,402,143.67
	합계	1,174,240,078.19	491,933,322.43	914,622,645.37

자료원 : 베네수엘라 투자청(SIEX)

다.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 / 우리나라의 투자진출현황

(단위 : 건, US\$천)

연도	건수	금액
1996	2	11.2
1997	1	52,247.0
1998	-	-
1999	1	31,400.0
2000	1	11,200.0
2001	-	-
2002	-	-
2003	1	10,752.69
2004	1	14,553.00

주 : 2005년,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 주재국 투자 없음

자료원 : 베네수엘라 투자청(SIEX)

라. 한국과의 투자관계

우리나라의 대 베네수엘라 투자는 '99말 신고기준으로 54,293천\$이었다.

가장 규모가 큰 건으로는 지난 '97년 포항제철이 철강원료인 HBI 생산을 위하여 합작법인 (POSVEN/Posco Venezuela) 설립 건으로, '97년 5월 Puerto Ordaz에 공장 착공, 2000년 6월 완공하였다. 우리 기업이 75%의 지분을 소유하며 (포철 40%, 포스틸, 포스코개발, 동부 각 10%, 현대5%), 미국 및 멕시코기업이 2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기타 제조업으로 평화산업에서 현지업체와 합작으로 못 생산공장을 운영하였으나, 2000년 들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우자동차는 제조업은 아니나, 판매법인으로 투자하였다가 2002년 대우의 GM판매 이후 철수하였다.

'00년 및 '01년도, '05년도, '06년도 4월까지 한국의 대 베네수엘라 투자액은 없는 것으로 발표 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베네수엘라의 비철금속, 석유화학, 자동차조립 등 분야에 4억 4천 만 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상품위주의 수출에 한계가 올 것에 대비해 베네수엘라가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 및 자원개발과 연계된 기간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기울여 진출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상이 될 주요 자원으로는 보오크사이트, 원유, 천연가스(탄화가스), 석탄, 철광석, 커피, 열대 과일 등이 있다.

2006년 차베스 정부하에 베네수엘라 경제는 민간부분이 취약하고 공공부분의 대규모 입찰 경제가 활성화 됨에 따라 정부, 공공부분의 입찰에 주목하여 투자해야 할 때이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과의 관계가 소홀히 됨에 따라 주재국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로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해본다.

IV. 출장가이드

14. 출장가이드

1. 기후

가. 기후

- 베네수엘라는 위도상 열대지대에 속하나 해발 고도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기후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존강 유역의 열대우림 기후에서부터 사바나, 온대성 기후 및 안데스 산맥 고지대의 한랭기후까지 있다.

나. 연평균기온

- 해발 800m 이하의 저지대: 년 평균 24℃ - 36℃
- 해발 800m 이상의 고지대: 년 평균 16℃ - 23℃

다. 수도 카라카스의 기후

- 년 평균 기온: 22 - 25 ℃
- 카라카스는 해발 800m-1,000m 정도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기후가 연중 온화하며, 연중 기온차가 적어 계절변화가 거의 없다.
- 5월부터 10월까지는 우기로 하루 두 차례 짧은 소낙비가 내리는데 7, 8월 중에 집중적으로 내리며,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건기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상 기온으로, 우기와 건기에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12월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는 경우가 있다.

라. 의복 준비

- 카라카스만 여행할 경우 춘추복이면 충분하다(건기 시 쌀쌀한 날씨 지속). 낮에는 반팔 티가 필요하나 밤에는 약간 쌀쌀하니 봄 점퍼, 가디건 정도 준비하면 된다.

- 시외를 여행할 경우 발렌시아, 마라카이보, 마라카이, 뿌에르토 오르다스 등 대부분의 도시는 열대권이므로 하복을 준비하면 된다.
- 특히 우기철에 출장을 오시는 경우 현지 말라리아성 모기가 기승을 부리므로 긴팔 상의를 입는 것이 좋다. (모기에 자주 물릴 경우 ‘덴게’ 열병이 우려됨)

2. 시차/근무시간

가. 시차

- 한국보다 13시간 늦다.
 - 한국의 시간이 12:00일 경우 베네수엘라는 전일 밤 23:00 이다. (베네수엘라가 오전 10:00인 경우 한국은 저녁 21:00임)
- 베네수엘라 내에서는 전 지역이 동일한 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뉴욕에 비해 1시간 빠르다. 단, 미국이 서머타임을 시행하는 기간 중에는 뉴욕과 동일한 시간대이다.

나. 근무시간

- 관공서 : 08:30-12:30, 14:00-17:00 (토. 일요일 휴무)
- 은행 : 08:30-15:30 (토. 일요일 휴무)
 - 일부 은행은 은행 외 창구를 이용하여 오후 5시까지 영업을 하기도 한다. 오후 3:30-5:00에 입금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인출을 하는 경우 1,000-5,000 볼리바르(0.5-2불 수준)의 수수료를 떼기도 한다.
- 상점 : 08:30-12:30, 15:00-19:00
 - 토요일 : 대부분 개점
 - 일요일/공휴일 : 일부 슈퍼마켓만 오전에 개점
 - 대형 슈퍼마켓은 점심시간 없이 열며, 일요일에도 오후 4시까지 영업을 한다.
- 초등 학교 : 07:00-12:00
- 중고등 학교 : 07:00-04:00
 - 학교의 재량껏 오후 시간은 자유로이 끝낼 수 있다.

3. 도량형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동차 주행거리는 KM로, 주유소의 유류판매는 리터로, 사무실이나 주택 임차 시는 SM로 계산한다(부동산 크기를 제외하고는 한국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다).

4. 출입국/비자

가. 비자

베네수엘라는 중남미국가 중에서도 상용비자를 까다롭게 요구하는 나라이다. 2006년도 3월부터 90일 미만 체류 시 비자가 불필요하지만 공항 출입국관리소에서 공무원이 무비자 입국 가능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한국은 무비자 국가임을 거론하면 문제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비즈니스맨은 상용비자 취득이 필요한데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관에서 자격조건이 상당히 엄하여 많은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현지에서 개별 출장을 오고 샘플이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용비자 취득을 권장하며 샘플이 적을 경우 무비자로 입국하여 간단한 업무를 현지에서 볼 수 있다.

○ 비자 발급처

-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관(www.venezuelaemb.or.kr)
 - 주소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제일은행 본점 16층
 - 전화 : 732-1546/7, 팩스 : 732-1548
 - 휴일 : 토.일요일, 양 국가의 공휴일
 - 업무시간 : 비자신청 09:30-12:00, 비자발급 14:00-16:00
 - email : emvesel@soback.kornet.net

나. 출입국 절차

비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입국심사 시 특별한 문제는 없고, 외화는 사전 신고 시 미\$10,000까지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한하여 미\$5,000까지 소지하고 출국할 수 있다.

신변 지참물로 인정되는 물품은 무세 반입이 가능하며 주류는 2병, 엽권련은 50개피, 권련은 200개피까지 무세 반입이 가능하다.

카라카스 공항의 경우 통관 시 여행객의 짐을 모두 x-ray검사하기 때문에 한국 출장자의 경우 샘플과 한국 식품에 각별하게 조심해야 한다.

입국 시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한국으로 미국을 경유하여 귀국할 경우 과거에는 미국비자가 없는 경우에도 탑승을 시켰으나 최근 미국의 테러강화로 인하여 비자가 없는 경우 미국경유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중남미를 입국할 경우에는 미국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좋다.

미국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럽 행 경유를 권장한다. 또한, 미국을 경유하는 비행기는 과도한 검색으로 티켓팅 시간이 매우 소요되므로 최소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출국 시 공항세는 미화 55불(현지화 118,000 BS) 수준으로 다소 비싼 편이다.

다. 출입국 유의사항

특별한 유의사항은 없으나, 가끔 현지 여행사는 무책임하게 예약된 좌석임에도 불구하고 더블 부킹이나 더블 티켓발부로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현지 도착 후 반드시 티켓을 conform 받아야 한다.

또한, 항공권에 적혀있는 출국 gate가 Boarding시 상이한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출입국 사무소를 통과할 경우 gate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미국 항공기(특히 American Airline) 경우 불친절하고 검색이 지나치게 철저하여 탑승객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경우가 많고 대리 수속을 해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반드시 출두해야 한다.

5. 환율/환전

가. 환율통제

- 2002년 말 정부는 반차베스 진영의 공세로 정권의 경제 통제가 어려워지자 그 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외환통제가 2003년 2월부터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외환 거래는 베네수엘라 외환운영 위원회(Cadivi)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민간끼리 자율적으로 교환하는 외환 거래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범위 외에는 불법화하여 외환시장의 왜곡을 불러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고 유가와 맞물려 정부에서는 민간기업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단기간 내 외환통제 해제는 어려울 전망이다.
- 외환통제 초기인 2003년 2월에는 US\$1.00=1,600BS 수준이었으나 2006년 2월 현재 2,150BS이며 암시장에서는 2,650BS에서 거래되고 있다.
- 바이어는 베네수엘라 외환운영 위원회(Cadivi)의 원활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대부분 늦추어지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암시장에서 달러화를 매입할 경우 수입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서류 수속 후 Cadivi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베네수엘라와 교역을 희망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이러한 점을 파악한 후 바이어가 Cadivi에 외환배정 신청서 사본을 받을 경우 승인이 언제날지는 모르지만 대금 지급이 확실하다는 점을 양해하고 바이어의 어려운 점을 배려해야 한다.
- 현재 기준 환율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은 없으나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조금씩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폐지 가능성은 2006년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들어갈 것인지에 민간기업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나. 환 전

- 2003.2. 6일 이후 외환통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출장자가 달러화 매입은 불가능하고 매도는 공항과 시내 환전소에서 가능하다. 출장자의 경우 최소 경비만 환전할 것을 권유한다.
- 정부 고시 환율
 - 매입 : US\$1.00=2,150.00BS(볼리바르)

6. 물가정보

□ 도시: 카라카스(베네수엘라)			- 환율 : US\$1 = BS2,600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850	7.1	구두(1켤레, 소가죽)	92
1.2	넥타이(1개, 실크100%)	90	7.2	치약(150g, 1개)	1.48
1.3	와이셔츠 (1벌, 면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81	7.3	칫솔(1개)	3.3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6	7.4	면도기(1세트)	6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220	7.5	건전지(1세트, 1.5V AA)	1.48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5	7.6	화장지(1통, 300매)	1.1
1.7	청바지(Levi's)	62	7.7	비누(1개)	0.81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5.5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3.3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1.6	8.2	볼펜(12개)	4
2.3	닭고기(1KG, 생닭)	1.48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2.2
2.4	쌀(1KG, Short Grain)	0.5	8.4	공CD(1통, 12개입, 700MB)	9
2.5	밀가루(1KG)	0.6	8.5	휴대폰(범용형)	207
2.6	설탕(1KG, 백설탕)	0.4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81
2.7	계란(10개)	0.92	8.7	인터넷가설비(1회최초, 1회설치)	38
2.8	감자(1KG, 현지산)	1.1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99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2.5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25,000
3.1	고추장(1Kg)	없음	9.2	엔진오일(1L)	5.18
3.2	된장(1Kg)	없음	9.3	휘발유(1L)	0.04
3.3	라면(1개)	없음	9.4	자동차등록비(2,000cc)	66
3.4	설탕탕류(1인분, 설탕탕, 곰탕 등)	없음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2,000
3.5	불고기(1인분, 200g)	없음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없음	10.1	지하철(1구간)	0.12
3.7	김치찌개(1인분)	12	10.2	시내버스(1구간)	0.22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3
4.1	햄버거(1개)	2.5	10.4	택시(추가요금/Km)	0.74
4.2	피자(1판)	12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37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55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0.95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6
4.5	담배(수입산, 1갑)	1.03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 평상)	0.042
4.6	위스키(1병, 750ml)	33.3	11.4	공중전화(3분, 시내 평상)	0.042
4.7	커피(1병, 175g)	5.5	11.5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	1.05
	5. 주택(150㎡)		11.6	국내우편(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22
5.1	[임차] 중급아파트	2,000	11.7	국제우편	1.37

	(침실3개미만, Semi-furnished)			(일반편지, 1통, 10g이하, 전자서울)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3,000	11.8	특급우편 (DHL, 1개, 1kg 이하, 전자서울)	85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0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026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3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0.25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0.065
6.1	TV(29인치, 칼라, 범용)	333			
6.2	VTR(6헤드, 범용)	88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82			
6.4	전자레인지	75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700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750			

□ 도시: 카라카스(베네수엘라)			- 환율 : US\$1 = BS2,700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 (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9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216
12.2	외국인학교 (등록금, American School)	900	18.2	상여금(월 급여 대비%, 연간)	1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12,000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 대비%, 연간)	9%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21,000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15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26,000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126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27,000	18.6	연간국경일	12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50	18.8	노동 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5일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40,000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4시간
13.3	골프공(1타)	60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400	19.1	법정최저자금	없음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30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1,000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4.5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없음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 (개인소득세)	없음
14.1	의료보험료 (4인가족, Full Cover, 치과제외)	1,500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18%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80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80			
14.4	치과(스켈링, 1회)	80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6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44			
15.2	한국신문(1개월)	없음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41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2.8			
	16. 호텔				
16.1	특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250			
16.2	특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40			
16.3	중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50			
16.4	중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80			
16.5	조식 (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35			
16.6	조식 (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8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500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400			
17.3	가정부(월 급여)-최저임금	216			

7. 교통/통신

가. 교통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주로 공항택시(검정색 zeep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요금은 U\$30선이며 (외국인인 경우 비싸게 부르고, 이곳 화폐인 경우 정해진 요금이 있어 더 경제적인, 사전 흥정필수), 시내구간은 약 U\$10내외에서 해결된다. 택시에 미터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으므로 승차 전 행선지에 따른 요금을 흥정하고 타야 하차 시 요금시비가 생기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택시는 '98년 이후 생긴 하얀색 신형 택시와 70-80년대 모델의 낡은 택시들이 있다. 가격은 하얀 택시가 약간 높게 부른다.

택시 강도도 심심치 않게 생기기 때문에 택시를 탈 때는 운전기사를 눈여겨 보는 게 필요한데, 나이가 지긋한 노인 기사를 고르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

한국에서 온 출장자의 경우 현지 치안이 좋지 않으므로 스페인어를 구사하든 하지 않든 혼자서 택시 타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기 바라며, 현지인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다.

공항-호텔 택시 이용은 호텔의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대부분의 호텔이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금은 30\$-40\$선으로 공항에서 직접 택시를 잡는 것보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동 제도를 이용 시 사전에 호텔로부터 택시 운전기사의 이름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피켓을 들고 있거나 자신을 찾을 경우 어디서 나왔는지를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근 들어 공항에서 마중 나온 사람을 두리번거리면서 찾는 승객들에게 다가가 마치 자신이 마중 나온 것처럼 유인한 후 금품을 털어가는 강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관에서 호텔택시를 적극 권장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베네수엘라로 오는 비행기가 자주 연착하는 경향이 많아 마중 나간 호텔 택시 운전수가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그냥 돌아가고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서비스 이용자는 해당요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업체 출장자와 무역관이 비용 지불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카라카스시에는 지하철이 3개 노선뿐이며 시내 구석구석을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주간에는 지하철이 비교적 안전하여 이용할 만 하나, 야간에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하철 운행시간은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이다. 요금은 구간별로 상이하지만 0.5불 내외에서 가능하다.

시내버스는 시내 곳곳을 연결하나, 버스가 대부분 노후화 되어 외국인들이 타기에는 적합치 않다. 특히 야간에는 시내버스 강도가 빈번하여 특히 위험하다. 시내버스 요금은 0.5불 (2006년 현재 900Bs) 내외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 무역관에서는 경험 차원에서 출장자에게 버스 이용을 권유하지 않는다)

시외버스도 치안상의 이유로 인해 외국인들은 거의 이용을 안하고 있으며 시외로 갈 경우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렌트카의 경우 1일 사용료가 US\$100(1,500CC급) - US\$160(2,000CC급) 수준으로 비싸기 때문에 장시간 차량 이용이 필요할 경우 택시를 대절하는 편이 낫다. 택시 대절 시 시간당 US\$ 15-20정도 지불하면 된다.

철도망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기차이용은 할 수 없고, 전국적인 고속도로망을 통해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장거리 버스(별도의 터미널 있음), 비행기를 이용해야 한다.

나. 통신

유선 전화보급률은 대략 3세대당 1대 꼴로 가입자가 적은 편이다. 이는 전화라인이 많지 않아 신규 개설이 쉽지 않고, 또 요금시비가 많아 유선전화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경우 전화 한대로 fax겸용으로 쓰는 일도 많다.

전화요금도 비교적 비싼 편이다. 가정용 전화의 기본요금은 약 15\$에 달하며 초과통화에 대해서는 분당 0.3\$을 받는다. 국제전화 요금은 최근 2-3년간 많이 내려 '98년에는 한국까지 1분당 US\$3이었으나 최근에는(볼리바르화 하락) 0.3불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선전화로 셀룰라폰에 전화를 할 경우 분당 요금이 0.5불로 상대적으로 높다.

유선전화가 낙후된 반면 이동통신은 비교적 발달해 셀룰라폰의 휴대가 보편화되어 있다. 휴대폰은 카라카스의 경우 MOVISTAR(0414)와 MOVILNET(0416), DIGITEL(0412)의 3개회사가 있는데, 신규 유선전화 신청 시 설치에 약 1-2개월이 걸리는 반면, 휴대폰은 신청 즉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많이 사용한다. 또한 휴대폰은 Pre Paid 시스템이 있어 전화카드를 구입, 입력하면 요금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전화를 할 수 있다(수신은 무제한). 2005년 말 현재 휴대폰 가입자수는 천만 명이 넘고 있다.

휴대폰 가입은 사후 요금 납부제도와 상기 pre-paid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후 요금 납부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 있어야 한다. 신용카드는 국내에서 발급한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요금 사후 납부제로 휴대폰 가입을 하는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pre-paid 시스템은 휴대폰과 카드만 구입하면 되나,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출장자의 경우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호텔방의 전화를 사용할 경우 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되고 또 호텔측에서 잘못된 요금을 청구하여 시비가 이는 경우가 많다. 통상 호텔의 공중전화는 국제전화가 가능하므로, 공중전화 카드를 구입한 후 한국에 전화를 걸어 호텔방으로 다시 전화를 해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베네수엘라는 한국으로 전화를 걸 때 비즈니스맨이 자주 이용하는 COLLECT CALL이 없으며 한국통신의 KT CARD도 사용할 수 없는 통신여건이 어려운 지역이다.

8. 호텔/식당

가. 호텔

< 특급호텔 >

- 카라카스는 호텔 수에 비해 투숙객이 많아 투숙 2주전 예약이 필요하다. 예약 후 미 투숙 시(No Show)에는 예약자의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하루분 숙박료가 공제되므로, 미 투숙 시에는 최소한 투숙예정일 36시간 전까지 취소 통보를 해야만 투숙료 공제를 면할 수 있다.
- 최근, 신용카드 도난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BC, MASTER 등 카드회사에서는 호텔 투숙 예정자가 나타나지 않고 NO-SHOW가 발생하였을 때 호텔측에서 예약자 카드번호로 카드 회사에 호텔비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현지 카드회사가 청구액을 무조건 지급 하지 않고 숙박자가 공문(영문, 스페인)로 지급해도 좋다는 것을 문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호텔측에서도 무역관이 숙박호텔을 예약할 때 카드번호와 지급해도 좋다는 문서를 요구하므로 무역관도 국내업체로부터 카드번호와 함께 동 문서를 요구 한다.
- 특급호텔은 CARACAS HILTON, TAMANACO INTERCONTINENTAL, EUROBUILDING, GRAN MELIA CARACAS, HOTEL CENTRO LIDO 등이며, 정상요금 지불 시 세금 봉사료 미포함 가격 기준으로 US\$250 수준이다. 한국과는 달리 싱글이나 트윈의 가격차가 없으며, 현지 호텔에 숙박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무역관에 호텔예약을 요청해야 한다.
- 호텔 연락처
 - HOTEL CARACAS HILTON (TEL:58-212-503-5000/ FAX: 58-212-503-5003)
 - HOTEL TAMANACO INTERCONTINENTAL (TEL: 58-212-909-7000/FAX: 58-212-909-7207)
 - HOTEL EUROBUILDING (TEL:58-212-902-2187/ FAX: 58-212-902-2189)
 - HOTEL GRAN MELIA CARACAS(TEL:58-212-762-8111/FAX:58-212-762-3737)
 - HOTEL EMBASSY SUITE(TEL: 58-212-266-7677/FAX: 58-212- 266-6556)
 - HOTEL CENTRO LIDO(TEL : 58-212-952-5040/ FAX: 58-212-952-2944)

< 비즈니스 호텔 >

- 투숙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시설이 깨끗하며 안전한 지역에 소재한 비즈니스 호텔들로 하기 비즈니스 호텔들을 추천할 만 하다.
- SHELTER SUITE (TEL : 58-212-265-3866/7, FAX : 58-212-265-3869)
- CONTINENTAL (TEL : 58-212-261-0644/0004, FAX : 58-212-262-0243)
- HOTEL PRESIDENT (TEL : 58-212- 782-9001, FAX : 58-212-793-6375)

< 무역관 추천 호텔 >

- Gran Melia : 1박 127.00\$(세금, 조식포함)
- 무역관에서 이용하는 추천 호텔임
- HOTEL INTERCONTINENTAL TAMANACO : 1박 127.05\$(세금, 조식포함)
- HOTEL EMBASSY SUITE : 1박 145\$(세금, 조식 포함)
- HOTEL EUROBUILDING : 1박 145\$(세금, 조식 포함)

< 호텔 별 특징 >

- HOTEL INTERCONTINENTAL TAMANACO: 중심가인 MERCEDES에 가까우나 언덕 위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 외출하기 위해서는 택시 이용이 필수. 호텔 규모가 크고, 부대시설 등이 많은 특급 호텔로 VIP 이용에 적당. 2002년부터 무역관과 가격협정을 맺어 저렴한 가격에 숙박 가능하였지만 교통의 불편함과 객실을 리모델링하지 않아 지금은 이용하지 않고 있음
- HOTEL EUROBUILDING RADDISON : MERCEDES에서 가까운 CHUA0에 위치. INTER CONTINENTAL 호텔과 마찬가지로 언덕 위에 깊숙이 위치, 외출에는 택시 이용 필요.
- HOTEL CARACAS HILTON : 구도심지에 있으며, 전철이용 등은 편하나, 호텔이 비교적 낡았고 주변의 치안도 안 좋아 과거나 현재나 이용하지 않고 있음
- HOTEL MELIA CARACAS : '99년에 완공된 호텔로 내부는 가장 호화로운 편임. 호텔 규모는 비교적 작으며, 유흥가인 SABANA GRANDE에 위치하여 주변의 치안이 안 좋은 편이지만 객실이 좋고 조용하여 무역관이 이용하고 있는 호텔임
- HOTEL CENTRO LIDO : OFFICE TOWN의 중심에 위치한 호텔로, 99년에 개장한 깨끗한 호텔. 한국대사관이 있는 건물임. 교통이 좋으나, 호텔 규모에 비하여 요금이 200\$-350\$로 비쌘.
- HOTEL EMBASSY SUIT : HOTEL CENTRO LIDO의 맞은편에 위치, 교통이 좋음. 전부 SUITE 형태의 방이며 2000년 7월에 개장한 깨끗한 호텔. 비용은 130불 수준임. 규모는 작아 빈방이 없을 때가 많음. CONFERENCE SUITE라고 하여 방 2개와 약 30명 정도의 회의가 가능한 회의실이 포함된 SUITE(가격 1일 약400\$)가 있음

- 무역관에 호텔 예약요청시 Check-in(out)일자, 룸타입(트윈/싱글), 호텔명, 예약자명, 입국일자 및 항공편,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No Show시 1박 비용을 공제해도 좋다는 영문문장) 등을 1페이지로 기재한 후 본인의 영문명과 서명을 하고 요청해야 예약이 가능함
- 카라카스 무역관 팩스번호 : 58-212-762-2263

나. 식당

- 유명식당은 LAS MERCEDES와 ALTAMIRA에 운집해 있으며, 식비는 1인당 U\$30 정도 생각하면 된다. 한국식당은 한곳이 있고, 가정집형태로 운영한다.
- 메뉴판에 나와있는 가격에 16%의 부가세와 10%의 봉사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가격 계산시 메뉴판 가격에 26%를 더해서 생각해야 한다.
- 봉사료 10%는 계산서에 포함되나, 통상 2,000볼리발 미만의 잔돈 우수리는 팁으로 놓고 나온다.

주요 식당은 아래와 같다.

- 일본식당
 - 식당명 : AVILA TEI
 - TEL : (0212) 263-0806
 - 주소 : Torre KPMG, Av. Francisco Miranda, El Rosal, Caracas
 - 가격등급 : A급
 - 메뉴 : 스시, 사시미, 덴뿌라, 스끼야끼, 각종 우동류, 점심 정식류
 - 식당명 : TAIKO
 - TEL : (0212) 993-5647
 - 주소 : Calle La Trinidad Edif. Canaima Urb. Las Mercedes, Caracas, Venezuela
 - 가격등급 : A급
 - 메뉴 : 스시, 사시미, 덴뿌라, 우동 등
- 중국식당
 - 식당명 : LAI-KING
 - TEL : (0212)283-9742/ 285-3075
 - 주소 : Av. Tercera con Calle Tercera, Los Palos Grandes, Caracas, Venezuela
 - 가격등급 : B급
 - 식당명 : GRAN YEN
 - TEL : (0212) 793-2231/ 793-1683
 - 주소 : Av. Las Palmas, Esq. Calle Quito Los Caobos Caracas, Venezuela.
 - 가격등급 : B급

○ 이태리식당

- 식당명 : EL Rugantino
 - TEL : (0212) 762-0562/763-5836
 - 주소 : Av. Francisco Solano, Hotel Tampa, Sabana Grande, Caracas
 - 가격등급 : B급

○ 스페인식당

- 식당명 : CHOCOLATE
 - TEL : (0212) 951-6130
 - 가격등급 : B급

○ 한국식당

- 식당명 : 딘딘(DinDin)
 - TEL : (0212) 284-8457
 - 가격등급 : B급

○ 현지식당

- 식당명 : MAUTE GRILL
 - TEL : (0212)993-3846
 - 주소 : Av. Rio de Janeiro Las Mercedes, Caracas
 - 가격등급 : A 급
 - 고기, 생선류
- 식당명 : Restaurante Belle Vue
 - TEL: (0212)963-1186/963-4446
 - 주소 : Calle Union, Urb. Altos de Hatillo, Caracas
 - 가격등급: A급
 - 고기류
- 식당명 : La Estancia
 - TEL : (0212)261-1874
 - 주소 : Castellano, Caracas
 - 가격등급 : A급
 - 고기류
- 식당명 : Punta Grill
 - TEL : (0212) 993-2855
 - 주소 : Avenida Trinidad con calle Paris las Mercedes
 - 가격등급 : A급
 - 고기류

9. 관공서 관행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며 부패 정도가 대단히 심하다. 이러한 부패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권리 보호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까지도 만연해 있다. 하버드 대학이 주요 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법부의 청렴도 순위에서 베네수엘라는 꼴찌인 57위를 차지했을 정도이다.

특히 부정이 심한 곳은 세무 담당 부서와 이민국 등인데, 세관 관리와 싸고 관세를 탈피하는 일이 비밀비재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밀수와 마약을 단속하는 국경수비대의 횡포도 대단하여 세관에서 모든 통관 절차를 끝냈다고 해도 도로 곳곳을 지키고 있는 국경수비대에 뇌물을 주지 않을 경우 다시 화물에 대한 재 검색에 들어가 물건을 압류하는 일도 다반사이다.

차베스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패 근절을 내세우며, 행정절차를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행위는 행정절차를 더욱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 통관사들은 엄격한 절차와 부정 감시 눈길 때문에 오히려 뇌물 액수만 늘어났다고 불평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공서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비능률적이며, 담당자의 재량이 지나치게 커서 규정에도 없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예를 들어 수입품에 대한 규격인증 확인서를 1년 기간으로 발급 해주다가 담당자가 바뀌면 3개월로 바뀌는 식이다. 또한 민원담당 직원이 휴가 중이라 일을 못 본다면, 수입인자가 떨어져 서류를 발급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자동차 번호판이 없어 번호판 발급을 못하고, 용지가 떨어져 신분증이나, 여권을 발급 하지 못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관공서를 접촉할 경우 상당히 관료적이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뇌물이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지참할 경우 일의 속도는 몰라보게 빨라짐을 쉽사리 느낄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이 요청하는 각종 사항은 관공서뿐만 아니라 일반 서비스 기관까지도 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간단한 뇌물(선물)을 제공해야만 처리해주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외교관의 경우 비교적 안정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신용카드를 신청 후 수령하는 기간이 1-2년 소요되는 등 선물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

10. 공휴일

- 1월 1일: 신정공휴일
- 2월 27일~28일: 사육제
- 4월 13일~14일: 부활절
- 4월 19일: 독립선언일
- 5월 1일: 노동절
- 6월 24일: CARABOBO 전쟁일
- 7월 5일: 독립기념일
- 7월 24일: 볼리바르 탄생기념일
- 10월 12일: 아메리카대륙 발견일 (COLOMBUS DAY)
- 12월 25일: 크리스마스

- 사육제기간과 부활절기간(SANTA SEMANA)은 해당주간 전체 또는 일부가 추가로 휴일이 되기도 한다. (민간기업은 상례적으로 휴무를 한다)
-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가를 가므로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는 대다수 민간기업은 장기 휴무를 한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모든 업무의 처리가 지연되며 특히 비즈니스 출장은 이기간을 피해야 한다.
- 기업의 경우 1년에 한달 휴가제도가 있는데, 통상 8월에 휴가를 많이 가기에 이 기간은 비즈니스 출장을 피해야 한다. 현지 학교가 7월말부터 9월 20일경까지 방학을 하기 때문이다. (인터내셔널 스쿨은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방학임)

11. 여행시 유의사항

가. 여행준비

< 의복준비 >

1년 내내 22℃-35℃의 초여름날씨이며 계절의 변화가 거의 없다. 계절을 굳이 나누자면 건기 (11월 - 4월)와 우기(5월-10월)로 나눌 수 있다. 보통 반팔의 복장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낼 수 있으며, 정장을 할 시에는 긴 팔의 아이셔츠도 입을 수 있는 날씨이다. 카라카스의 경우 해발 1,000m의 고지이기 때문에 밤에는 약간 쌀쌀하므로, 봄 점퍼 정도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전기규격 >

60H, 110v 가 보편적이다. 220v 전기도 일부 사용하여 사무실에는 설치가 가능하나, 가정집에는 110v 전기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쓰던 220v용 전기기기는 변압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현지에서 변압기 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준비하든지, 전기제품을 110v/220v 겸용으로 준비해야 한다.

나. 여행여건

< 치안 >

베네수엘라는 치안이 매우 안 좋은 나라중의 하나이다. 현지인들은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시비 또는 언쟁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야간에 외출 시 혼자 다니지 말고 그룹으로 행동해야 안전하다. 그리고, 강도를 만났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강도가 원하는 대로 지갑 등을 건네주면 큰 상해는 가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안전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은행카드는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팁 관행 >

호텔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줄 경우 여행용 가방 1개당 1불 정도 팁을 지불하면 된다. 음식점에서도 계산서에 서비스료 10%가 가산되어 나오므로 별도의 팁을 줄 필요는 없으나, 크레딧 카드의 경우 통상 금액의 우수리 정도를 팁으로 기입하고, 현금으로 지불할 시에는 3,000볼리바르 미만의 잔돈이 남는 경우 이를 팁으로 주면 적당하다.

< 식수 >

베네수엘라의 수도물은 석회질이 다량 포함되어 식수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생수를 구입해 먹는 것이 보통이다. 식당에서도 생수는 무료로 제공하지 않고 별도로 주문해야 한다.

< 질병 >

베네수엘라의 풍토병으로는 뎅게를 들 수 있다. 말라리아와 유사한 뎅게는 다리가 흰 모기가 전염시키는 병인데, 2001년 들어 크게 창궐하고 있다. 뎅게의 증상은 몸살과 같이 몸이 몹시 쑤시고 아프며 열이 난다. 심한 경우 목숨을 잃는 수가 있다. 의사에 의하면 뎅게는 사람의 혈소판 감소를 가져와 외부 상처(특히 출혈)가 발병하였을 때 의약품이 효용이 없어 출혈과다로 사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뎅게에 걸렸을 경우 안정이 제일 우선이다. 뎅게는 아스피린 계열약과 상극 관계가 있어 상용할 경우 악화가 일어나므로 타이레놀 계열로 해열시켜야 한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에서는 열이 나면 아스피린 사용을 금하고 타이레놀 계열의 해열제를 먹는 것이 좋다. 뎅게는 예방주사가 없으며, 걸리면 꼭 쉬면서 의사 처방약과 물을 계속 먹는 것이 좋다.

3) 쇼핑**< 물가 >**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쇼핑센터의 물가는 매우 높다. 그러나 최근 달러의 강세로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물가는 경제적이고, 일부 수입품목은 높다.

< 쇼핑장소 >

카라카스 시에 SAMBIL이라는 대형 쇼핑몰이 있는데, 고가 상품과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는 백화점으로서 고품질의 선물을 구입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San Ignacio라는 명품 쇼핑몰에서는 부유층 구매가 이루어지고, 대중이 선호하는 쇼핑몰인 el recreo도 있다. 무역관이 이용하는 Melia호텔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 중급 쇼핑몰로 C.C.C.T와 BECO등이 있다. 베네수엘라의 전통공예품을 구입하기에 적당한 장소로 HATILLO가 있는데 카라카스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30개의 전통공예품 상점이 밀집해 있다.

12. 유용한 연락처

비상사태 발생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71번이다. 이 번호에서 도난 사고 발생시 경찰을 연결해주며, 응급환자에게는 가까운 진료기관을 알려준다. 단, 안내원이 거의 영어구사가 불가하고 스페인어만 가능한 단점이 있다. 또한, 전화번호 안내 번호는 국번 없이 113번이다.

현지 관공서

기관명	연락처	비 고
외국인투자감독청(SIEX)	TEL : (58-212)483-6519 FAX : (58-212)484-4368 web-site : www.sieux.gov.ve	외국인직접투자 정보 입수 가능
투자진흥청(CONAPRI)	TEL : (58-212)237-5383/5238 FAX : (58-212)237-6028 web-site : www.conapri.org	각종 경제지표 및 외국인 투자 정보 입수 가능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Venezuela)	TEL : (58-212)801-5101 FAX : (58-212)801-5617 web-site : www.bcv.org.ve	각종 경제지표 입수 가능

은행

기관명	연락처	비 고
Banco Provincial	TEL : (58-212)761-5157 FAX : (58-212)762-1216 web-site : www.bancoprovincial.com	주재국 최대 은행
Banco Mercantil	TEL : (58-212)761-0344 FAX : (58-212)761-4071 web-site : www.bancomercantil.com	주재국 2대 은행
환전소 (ITALCAMBIO)	TEL : (58-212)263-1091 FAX : (58-212)562-9555	환전 전문 금융기관 (은행보다 편리함)

경제 단체

기관명	연락처	비 고
FEDECAMARA (연합상공회의소)	TEL : (58-212)731-1711/1967 FAX : (58-212)730-5040 web-site : www.fedecamaras.org.ve	연합상공회의소. 각종 협회에 대한 정보 입수 가능

한국 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한국대사관	TEL : (58-212)954-1270 /1139/1006 FAX : (58-212)954-0619 e-mail : venadmi@net-uno.net	Av. Francisco de miranda El Rosal, Centro Lido, Piso11, Caracas
카라카스 무역관	TEL : (58-212)762-9925/9832 FAX : (58-212)762-2263 e-mail : ktcccs@cantv.net	Edif. Seguros Mercantil Piso 6, Av. Francisco Solano con Av. Acacias, Sabana Grande, Caracas
한인회장 (정회년)	TEL : (58-212)963-2178 FAX : (58-212)961-0190	Res. York Palace, Apto. 41-A, Urb. El Cigarral, Caracas

주재 상사

업체명	연락처	주 소
LG전자	TEL : (58-212) 202-2200/6 FAX : (58-212) 237-8325	Calle Los Laboratorios, Centro Gerencial, L0s Cortijos P.B., Mesanina, Los Cortijos de Lordes, Caracas
삼성전자	TEL : (58-212) 264-2855 FAX : (58-212) 266-6069	Campo Alegre, Av. Francisco de Miranda, Torre Edi Campo, Piso 7, Ofic. 73/74, Caracas

기 타

명 칭	연락처	주 소
한인침례교회	TEL : (58-212)978-0161 FAX : (58-212)978-2098	Quinta Dasarang, Final de Calle Panama, Urb.Terrazas del Club Hipico Caracas
한국식품(Lotte Market)	TEL : (58-212)285-2957	Res. Alcoma Local 7 y 8, Av. 2da/ Calle 3ra Transversal Los Palos Grande, Caracas

13. 관광명소**1) 시내 관광명소**

카라카스 시는 그다지 역사가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관광거리가 없어 무역관에서는 관광지를 적극 추천하지 않고 있다. 유럽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국회의사당과 박물관 등이 있지만 비교적 치안이 좋지 않은 곳에 있어 외국인 관람으로는 부적합하다.

- 건국영웅 SIMON BOLIVAR장군 생가
 -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콜롬비아 등 6개국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시킨 건국영웅 SIMON BOLIVAR장군의 생가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교통이 대단히 혼잡하다.
- Hatillo
 - 가장 오래된 거주지의 하나로, 지금까지 옛날의 모습이 비교적 잘 보존된 구역이다. 그러나 10분 정도면 끝날 정도로 구성이 단순하다. 구역의 주택 대부분이 토산품을 파는 상가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기념품을 사기 원하는 경우 한번쯤 가볼 만 하지만 콜롬비아산, 중국산이 많다.

2) 시외 관광명소

- 국립공원 CANAIMA와 ANGEL폭포(BOLIVAR주)
 - 베네수엘라의 남서부에 위치한 국립공원 카나이마는 지각 변동 시 단층현상에 의하여 솟아오른 지형(TEPUY)으로서 깎아 세운듯한 기암절벽이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카나이마에서 인디오 카누를 타고 100km 정도 RIO CARRAO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에서 가장 긴 (높이 1,000미터) ANGEL 폭포를 볼 수 있다. 카라카스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가량 걸리며 보통 6박 7일 정도의 시간은 잡아야 관광을 제대로 할 수 있다.

- 국립해상공원 LOS ROQUES
 - 카리브해의 산호초 섬들이 무수히 산재. 베네수엘라의 맑은 산호초 섬 들 중에서도 백미로 꼽히고 있다. 카라카스에서 소형 비행기로 약 30분 이동하며, 미리 예약하면 당일 여행도 가능하다.
- 국립해상공원 MORROCOY(FALCON주)
 - 카리브해의 맑은 해변이 작은 섬들 사이에 무수히 산재. 카라카스에서 TUCACAS까지 자동차로 4시간 여행 후 배로30분 정도 가면 섬들의 백사장에 도달한다
- MERIDA주(안데스산)
 - 안데스산의 한적한 정취와 고산의 내음을 한껏 즐길 수 있는 코스이다. 비행기로 카라카스에서 출발 후 1시간이면 도착. 현지 도착 후 대기택시로 일일 U\$ 30정도 지불하면 주요 코스 관광이 가능하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해발 4,000 미터)에 위치한 케이블카가 있다.
- GRAN SABANA(BOLIVAR주)
 - 베네수엘라의 남서부에 위치한 그랑 사바나는 개발의 손이 거의 닿지 않은 원시모습 그대로의 괴암과 평원이 절경을 이루는 유수의 관광지이다.
- 독일인 집단주거지 COLONIA TOVAR
 - 약 150여년 전 베네수엘라로 이주해온 독일인들에 의해 독일건축양식으로 건설된 마을로 레스토랑(독일 소시지전문)과 특산물 상점은 관광객들로 붐빈다(그러나 대부분 중국제품: 필자가 딸아이의 선물로 독일인형을 샀는데 made in China였다). 카라카스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교통이 막혀 3시간 이상 걸린다.
- 유황온천 LAS TRINCHERAS
 - 노천에서 솟아나오는 뜨거운 유황온천은 유황의 함유량 및 순도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나 현지인들은 온천을 즐기지 않는 편이므로(더운 날씨로) 동양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관광코스이다. 카라카스에서 3시간 반 거리에 있다

3) 골프장

카라카스에서 1시간 거리 내에 골프장이 5개 있다. (Country Golf Club, Valle Arriba Golf Club, Lagunita Country Club, Izcaragua Country Club, Junko Country Club) 베네수엘라에서 골프는 상류사회의 운동이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며, 치는 것도 만만치 않다. 회원의 초대가 있어야 하는데, 통상 회원 1명이 1명만 초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배타성이 강해 동양사람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한국사람으로 Country Golf Club, Lagunita Country Club 회원은 한 명도 없으며, Valle Arriba Golf Club에 2명, Izcaragua Country Club에 3명, Junko Country Club에 10여명의 회원이 있을 뿐이다. 그린피는 1인당 50불이며 캐디피로 약 15불이 든다.

V. 무역

15. 교역관련 주요법규

가. 불법 외환 통제법(05, 10, 14)

입법 9.5, 공표9.14로 정부 Gaceta(관보) 38272호를 통해 10.14일부로 입법화된 내용을 발효함.

제 1조: 동법은 베네수엘라의 불법적인 환전과 그에 상응하는 거래를 구속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제 2조: 동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① Divisas: 베네수엘라에서 합법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써 동전, 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화되는 서류, 유가증권 등 모든 것을 지칭함.
- ② Operador Cambiario: Divisas 수수, 송금 등 거래를 통하여 수수료 등의 이익을 수취하면서 중앙은행, 정부, 입법기관 등 베네수엘라 국가에 등록된 모든 기관 및 종사자
- ③ Autoridad Administrativa Competente Designada por el Ejecutivo Nacional en Materia Cambiaria: 베네수엘라 정부에 의해 지정된 합법적인 외환거래기관으로 국가는 Cadivi (La Comision de Administracion de Divisas)를 동 기관으로 지정함.

제 3조: 동법은 자연인, 법인 등 모든 거래당사자를 구속하며 동법에 의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 거래당사자, 지시자, 보조자, 해당법인 등 관련인사 모두가 적용된다.

제 4조: 자연인, 법인 등은 베네수엘라 영토 내에 있는 동안 미화 10,000불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외환관리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동 법에서 예외적으로 적용 받는 경우는 18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이나 관광객이며 베네수엘라 국가에서 허용된 기관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는 동법에 외국인이라도 적용을 받는다.

제 5조: 재화가 아닌 자산, 서비스 등 거래라도 미화 10,000불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중앙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개시 후 15일전까지 신고가 유효하며 그 이후는 거래가 불법이며 당사자는 동법에 적용 받는다. 예외 되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 국가, 국가가 지정한 기관
-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
- 중앙은행에서 지정한 거래
- 탄화수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조직법에 의해 지정된 회사

제 6조: 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미화 10,000-20,000불까지 허가 받지 않은 거래가 있는 경우 벌금으로 베네수엘라 화폐(Bs, 볼리바르)로 거래금액의 2배를 부가하며 미화 20,001불 이상 거래 시에는 2-6년까지 징역형에 처하며 합법적인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2배를 부과한다.

제 7조: 사기, 부정에 의한 거래, 위조 등을 통해 외환을 환전하는 경우 3-7년까지 징역형에 처하며 거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사기, 부정, 위조 등을 통해 거래하는 선의의 피해자도 무죄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감형한다.

제 8조: 거래자가 합법적으로 거래할 경우 승인된 금액을 초과하고 자기의사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3-7년의 징역형에 처하며 2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9조: 통상적인 불법 환전행위가 아닌 전자거래, 환치기, 3국간 거래, 카드를 통한 환전 등 불법환전 의지가 높고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였을 경우라도 동법에 의해 처벌을 받으며 벌금은 3배로 배증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 10조: 공무원, 공직자 등이 불법 외환거래를 지원하거나 도움을 주었을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 11조: 동법의 발효와 동시에 불법적인 외환거래가 있는 경우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며 유죄로 판결 날 경우 동법의 처벌규정을 적용한다.

제 12조: 자연인, 법인, 개인기업, 공공기업 등은 중앙은행, 국세청, 은행감독원, 외국인투자청, 보험감독원 및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지시할 경우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 13조: 동법에 적시된 처벌조항은 기본적으로 3년을 기한으로 규정하며 형법(刑法)에 따라 계산한다.

제 14조: 재화, 서비스, 자산 등 화폐로 환산되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동법을 적용하며 적용 받는 당사자는 자연인, 법인 등 거래 관계자 모두를 지칭한다.

제 15조: 제 4, 5조의 의무인 외환거래 행위의 신고를 행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부정신고, 서류조작, 위조 등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거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 16조: 수출자가 중앙은행에 총액을 누락시키거나 일부만 신고하여 불법성이 발견된 경우도 동법을 적용 받아 거래금액의 2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7조: 베네수엘라 정부는 관계기관을 정하여 부당 외환거래의 따른 제재, 벌금부과 등을 할 수 있으며 동법에 따라 정부에 의해 지정된 관계기관의 행위는 정당하다.

제 18조: 정부에 의해 지정된 기관은 외환거래의 합목적성과 불편부당함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제 19조: 동법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심사는 정부에서 지정된 기관에 구두통보 또는 서면 제출시 개시된다.

제 20조: 외환거래 위반이 복합성을 가지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중복되어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관계기관이 사안마다 또는 원인마다 심사하여 징계한다.

나. 외환관리제도

베네수엘라는 2003 년 2 월 6 일부로 외환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2006 년 현재 1USD = 2,150 볼리바르(정부공식환율) 차베스 대통령은 2 월 5 일 밤 외환규정 1 호 및 2 호를 통해 발표한 외환통제는 2003 12 월 2 일부터 실시된 총파업으로 석유생산이 중단되고 외환도피가 급증, 볼리바르화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환규정 1 호

- ① 베네수엘라에 유입되는 모든 외환은 중앙은행(BCV/Banco Central de Venezuela)에 집중하며 중앙은행은 모든 외환통제 법규를 관장
- ② 외환통제 관련법규의 구체적 운용은 5인으로 구성된 외환운영위원회(Cadivi/Comision de Administracion de Divisas)에서 담당
- ③ Cadivi는 외환의 신청, 등록 및 승인 절차를 마련하며 부정의 증거가 있을 시 절차의 중단
- ④ 중앙은행은 필요 시 정부와 협의, 환율조정 가능하며 가용외환 확보 시에만 외환 판매
- ⑤ 모든 자연인 및 법인은 자신이 구득하는 모든 외환을 사전 지정된 환율로 중앙은행에 매각
- ⑥ 관련법령 발표 시까지 외환표시 외채증서(일명 Brady 증권)의 매입매각 금지
- ⑦ 정부 명의로 체결된 국제규약 및 계약은 신규 외환법령의 우선적 적용 대상
- ⑧ 공공기관의 채무지급 및 긴급 식품/보건 관련물품 구입용 외환은 Cadivi 절차 없이 중앙은행이 직접 외환 배정
- ⑨ 불법 외환거래 처벌을 위한 외환형사법(Ley Penal Cambiaria) 국회 상정
- ⑩ 석유공사(PDVSA)의 모든 외환수입은 출처에 관련 없이 중앙은행에 매각
- ⑪ 민간기업의 적법하게 등록된 수입 및 외채 지급용 외환은 Cadivi의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구입 가능
- ⑫ 외교사절단에 대한 외환운영은 국제관행에 준함

2) 외환규정 2 호

정부와 중앙은행은 달러화 매입환율 US\$1=2,144Bs, 매각환율 US\$1=2,150Bs로 정함

다. 외환 관리방침

지난 2 월 6 일부터 외환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외환통제 실무기관인 외환관리 위원회(Cadivi)의 규칙 제 1 호를 통해 향후 적용될 수입용 외환관리 방침을 밝혔다.

사전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2 월 7 일 긴급 발표됨에 따라 향후 많은 부분이 보완돼야 할 이 규칙은 21 개조로 구성돼 있는데, 요약하면 중앙은행은 향후 수입용 외환 배정계획을 작성, Cadivi 에 통보하며 Cadivi 는 이 계획에 따라 수입상의 수입용 외환 사용승인 신청을 판단,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수입상은 승인일로부터 120 일 내에 L/C 개설부터 통관까지를 마쳐야 한다.

수입대금 결제는 통관 완료 후 은행이 수입상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실제 수입에 소요된 금액을 산정, 중앙은행으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외환을 배정받아 이뤄지게 된다.

통관 이전에 수입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Cadivi 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그에 상당하는 현지화(Bs) 보증금도 예치해야 한다.

이번 발표된 수입용 외환관리 규칙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환관리시스템사용자 등록(Rusad/규칙 제 1, 2 조)

모든 수입자는 Cadivi에 "외환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Rusad/Registro de Usuarios del Sistema de Administracion de Divisas)을 하여야 수입용 외환을 사용할 수 있음.

Rusad 신청은 Cadivi 지정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

① 법인의 경우

- 상업등기
- 적법하게 등록된 최근 주주총회 의사록 및 현행 정관
- 납세자 정보 등록증(RIF)
- 법적 대표자 또는 관재인의 신분증
- 최근 3 회의 소득세 신고서
- 영업허가서
- 최근 3 회의 수입 신고서
- 최근 3 회의 부가세 신고서
- 최근 사회보장세 납부증명서
- 최근 INCE(직업훈련학교)세 납부증명서
- 최근 재산세 신고서
- 지방세 신고서

② 자연인의 경우

- 신분증 또는 여권
- RIF
- 최근 재산세 신고서
- 최근 3 회의 수입 신고서
- 현행 법률에 따라 상기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음

관련서류가 적법하게 갖추어졌을 경우 Cadivi는 수입자 등록증(Certificado de Registro de Importador)을 발급함. 이 등록증은 현행 외환제도 하에서 수입활동 수행에 필수적 요소임.

2) 수입용 외환사용 승인 신청(제 3, 4 조)

Rusad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수입자는 Cadivi에 수입용 외환사용 승인(Autorizacion de Adquisicion de Divisas para Importacion)을 신청함.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음. (상기 신청은 매 수입건 별로 이뤄져야 함(제12조))

- 신청서
- 구매주문서(Orden de Compra) 사본
- 견적송장(Factura Pro forma)사본
 - 견적송장에는 운임, 보험, 수수료 및 기타 수입관련 비목이 분명하게 명기돼야 함.
- 보증서(Fianza)원본
 - 수입자가 수입화물의 선적 또는 서비스 계약체결 전에 전부 또는 일부의 금액을 사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자가 주 수입품목이 아닌 특별품목 수입시에는 "예외적 외환사용 승인신청" (Solicitud de Autorizacion de Adquisicion de Divisas para Casos Especiales)을 하여야 함(제5조).

3) 수입용 외환사용 승인(제 6, 7, 8, 9 조)

Cadivi 는 중앙은행이 설정한 외환배정 계획,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기본지침 및 정책 등을 고려, 외환사용 승인 신청을 판단함. (보증서(Fianza)가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 L/C 개설도 외환사용 승인 후에 가능함.

수입자는 외환사용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수입화물의 출발지에서 화물의 발송 또는 선적을 요청해서는 안되며 또한 서비스 구입계약을 체결해서도 안됨. 단, 보세창고에 입고되는 화물은 예외임(관련규칙 제정 예정).

수입용 외환사용 승인은 기명으로 하며 양도될 수 없음. 승인일로부터 120일간 유효함. 이 기간 내에 수입물품 통관 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함. (Cadivi는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동 기간 연장 가능)

외환사용 승인신청 명의인이 하수인(荷受人)이어야 함.

4) 수입물품 세관도착 통보(제 18 조)

수입자는 수입물품이 세관에 도착하면 동 사실을 Cadivi에 통보해야 하며 Cadivi는 적절한 시기에 배정외환의 적법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물리적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관련절차는 향후 Cadivi 제정)

5) 통관서류 은행 제출(제 19 조)

수입물품의 통관 종료 후 수입자는 다음의 서류들이 첨부된 통관관련 서류를 지정된 은행에 제출함.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수입비목이 명시된 상업송장 및 첨부서류
- L/C 결제인 경우 L/C 에 명기되어 있는 서류 사본
- 신용거래인 경우 수입자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 사본/공개계정(cuenta abierta)에 의한 수입인 경우 지급방법이 표시된 공급자 발행서류
- 기타 Cadivi 가 경우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

서류접수 은행 또는 금융기관은 상기 서류의 사본을 원본과 대조 후 사본에 도장을 찍고 서류 접수자의 서명을 함.

6) 외환구입 수속 진행(제 20 조)

상기 서류의 접수 은행 또는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제 수입대금 결제에 사용할 외환 금액의 구입 수속을 진행함.

실제 사용할 금액 산정 시 수입자와 외국 공급자간 사전 협의된 기간 및 외환구입 승인서의 예상기간을 반영

은행 또는 금융기관은 은행 근무일수 기준 5일 이내에 접수서류를 Cadivi에 송부함. (접수 서류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컴퓨터 자료도 동시 송부)

라. 기타

1) At sight 결제 시 보증금 납부(제 10 조)

At sight 결제의 경우 수입자는 Cadivi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화물통관 이전에 외환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금액만큼 볼리바르(Bs)화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이 보증금은 수입자가 관련기관의 외환 적법사용 증명서(Certificado del Correcto Uso)를 받은 후 환불됨. (Cadivi는 보증금 제도의 운용을 위한 관련조건 및 법규를 제정)

의료, 문화, 인도주의적 물품과 서비스의 수입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부의 예외 인정 (수입 금액, 물품 및 서비스의 종류, 기타 국익 차원에서 고려 가능한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예외 여부를 결정)

2) 분할선적 등의 금지(제 11 조)

분할선적 및 수입화물의 분할은 인정되지 않음.

단 수입화물의 성질상 그러한 방식으로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나 사전 Cadivi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재수출 또는 반송(제 13 조)

현행 외환규정에 의해 외환을 배정받아 내수용으로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개량 또는 변형하지 않고 재수출 또는 반송할 경우에는 향후 Cadivi가 제정할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함.

4) 하자 보상금의 매각(제 14 조)

현행 외환규정에 의해 배정받은 외환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발생한 하자(미인도, 분실, 상실, 감소, 해손, 손상 등)로 인해 수입자가 보상받은 외환은 외환의 획득시점부터 은행 근무일수 기준 5일 이내에 지정 은행 및 금융기관을 통해 지정 환율로 중앙은행에 매각해야 함.

5) 수입물품 관련정보의 일치(제 15 조)

수입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수입자가 제공한 정보는 외환사용 승인서에 명기된 내용과 일치해야 함. 불일치 시 Cadivi는 외환사용 승인 취소, 외환지급 중지,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의 집행 등의 조치를 취함.

6) 미사용 외환의 포기 신고(제 16 조)

물품 및 서비스의 수입을 위해서 사용된 외환이 외환사용 승인서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수입자는 나머지 미사용 금액에 대한 포기 신고서를 Cadivi에 제출해야 함.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동 사실을 Cadivi에 통보하고 중앙은행에 대해 실제 수입에 사용된 금액만큼만 외환을 요청함. 동 금액은 본 규칙 19조에 명시된 수입자의 제출서류에 의해서 결정됨.

7) 내국 운송(제 17 조)

Cadivi는 수입물품의 내국 운송에 대한 규정을 제정함.

8) 비상상황 발생시(제 21 조)

Cadivi는 본 규칙에서 예상하지 않은 상황 발생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이러한 경우 수입자는 "예외적 외환사용 승인 신청서"(Solicitud de Autorizacion de Adquisicion de Divisas para Casos Especiales)를 통해 외환사용을 신청하여야 함.

16. 수입규제제도

가. 개 요

베네수엘라의 수입관리제도는 수입자유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이나 개인 등 자격 제한 없이 납세자면 누구든지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금지 품목은 무기, 마약 등 통상적으로 금지되는 품목들에 한한다. 의약품, 식품 농수산물 등은 보건을 위해 사전 수입 적격 여부를 판정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관행과 유사하다. 차베스 정부 수립 이후 통관절차가 강화되는 등 수입 관련 프로세스를 까다롭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그 동안 밀수, 언더밸류 등 비정상적인 수입이 만연했었기 때문에 수입규제 조치라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나 2002년, 2003년 정치문제, 전국 노조 파업의 경제문제를 겪으며 차베스 정부는 2006년 현재 국가부양정책의 일환으로 우파와 관련된 수입규제에 들어갔다. 외환통제와 관련하여 수입업자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수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외환관리위원회(CADIVI)를 창설하여 모든 수입을 통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할 때만이 필요한 외환을 구하여 수입할 수 있다.

나. 수입관련 제세

2006년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관세 이외에 14%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유무역지대인 마르가리타 섬에 대해서는 종전까지 8%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였으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000년 8월부터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수입품목에 적용되며, CIF가격 + 수입관세에 대해 부과된다. 이외에 통관수수료로 수입가격의 2%를 납부해야 하며, 일부 소비재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의 10%를 수입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05.9.01부터 시행)

다. 원산지 규정

베네수엘라는 통관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세가지인데 첫째는 관세 법상 특별한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요구하는 경우이며 이는 관세율표상 법적 구속 요건란에 5번으로 표시되어 원산지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두번째는 G-3협정에 의한 교역과 안데안 국가간 교역 시 면세를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이다. 세번째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과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은 원산지국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덤핑관세부과 품목의 원산지를 속여 반덤핑 관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라. 선적전 사전 검사제도

베네수엘라정부는 현 2005년 선적전 사전검사제도를 폐지했다.

17. 관세제도

가. 개요

베네수엘라의 상품분류는 HS 분류체계로서 관세율은 0, 5, 10, 15, 20%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35%를 부과하고 있다. (평균관세율은 약 10%)

관세율(%)	대상품목
0	자유무역지대 반입품
5	원자재 및 자본재
10	역내에서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중간재
15	각종 공산품
20	최종소비재로 사치성 품목
35	자동차

나. 특혜관세 제도

2006년 3월 안데안 공동체, G3 탈퇴선언-각각 5년, 180일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다.

안데안 공동시장 회원국간에는 특혜관세를 적용하며 G-3회원국간, ALADI 회원국간에도 특혜관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G-3회원국간에는 매년 일정율의 관세를 인하하여 2004년에는 완전 무관세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또한 ALADI 회원국간 특혜관세는 각 나라마다 관세 양허율에 차이가 있으며 칠레와는 6,000여 품목에 특혜관세 교역협정을 맺고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카리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 해주고 있는데 이는 카리브국이 소국으로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베네수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는 EU 15개 회원국에 수출시 GSP-DRUG 혜택을 받는데 이는 EU 회원국이 안데안 국가들의 마약작물 재배 억제를 위해 GSP보다 관세면제품목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GSP-Drug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원유, 철강, 기타 광물 등 일부에 불과하다. EU는 안데안 국가들의 마약재배 억제를 위해 10년간 안정적으로 GSP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졸업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베네수엘라와 특혜관세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CARICOM, 칠레, 파라과이, 멕시코, 페루, T & T, 우루과이 등을 들 수 있으며, 현재 ANDEAN 국가와 MERCOSUR간의 특혜관세 협정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다. ALADI 관세율

'80년 몬테비데오 협정에 의거 중남미 역내국가 중 저개발국, 중개발국, 발전국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관세율에 대한 인하율을 설정,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 품목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

각국별 관세 인하율

적용국가	인하율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10%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페루	7%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5%

라. 관세 평가 제도

베네수엘라의 관세산정 기준은 쌀 등 농산물을 제외하고 종가세(CIF 기준)를 원칙으로 하여 송장에 의해 산정한다. 단, 송장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Reference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처음 수입되는 상품은 재무부 산하 관세청 사정과에 기준가격으로서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관세 사정과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세관에 송부, 세관에서 이를 기준가격으로 비치한다. 기준가격 설정 시 제시 자료는 수출국의 현지 판매가격, 가격 구성표, 카타로그 및 수출업자 소개자료, 수입계약서 등이다. 특수한 형태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산정은 브랏셀 가격산정 위원회 평가기준에 따른다.

'98.9월 베네수엘라 상공부는 아시아산 저가 석유류 수입의 확대와 세관 신고 시 언더밸류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고 또한 관세포탈이 심하다고 주장하면서 석유류에 대해 최저가격제를 실시, 수입상의 수입신고 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고시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부과한 바 있다. 동조치는 한시적 조치로 2000년 6월 종료 되었으나, 업계에서는 동조치의 재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18. 주요인증제도

가.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제도

- 수입품에 대한 규격인증 확인과 원산지 규정 강화 됨
- 폭죽관련 인화성 물질은 수입 전 반드시 검사 필요 함
- 음식, 의약품 수입에 있어 베네수엘라 보건, 복지부에 등록을 필하여야 함

나. 인증 관련 정부 담당기관

1) COVENIN (Comision Venezolana de Normas Industriales)

- 공업용 기계, 부품 등에 있어 수입 전에 사전 검사, 인증확인 필요.
- 자동차 부품인 경우, 새로운 부품에 대해 covenin의 인증확인이 필요함

2) SENCAMER (Servicio Autonomo Nacional de Normalizacion, Calidad, Metrologia y Reglamentos Tecnicos)

- 경공업. 상업부(Ministerio de Industrias Ligeras y Comercio)의 산하기관
- 홈페이지: www.sencamer.gob.ve

19. 지적재산권

SAPI(EI Servicio Autonomo de la Propiedad Intelectual)라는 정부기관에서 관장하며 문화, 경제, 사회 발전에 관계된 모든 지적 재산권에 관한 활동을 1997년 4월 24일 관보를 통해 시작하였다. 상표, 발명권, 새 기술, 저작권, 공업재산권에 관한 보호를 하고 있다.

기술도입, 특허 및 상표의 이용은 지적재산권법과 안데스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특허와 상표를 이용하기 위한 계약은 SLEX(외국인 투자청)에 체결 후 6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특허는 5년부터 10년 이내, 혹은 외국의 특허가 만료되는 기간까지 인정되며, 어느 것이든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특허가 나간 후 2년 이내에 베네수엘라에서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 이 특허는 취소된다.

저작권은 저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오디오 및 비디오의 무단 불법 복제 시민사 및 형사법의 처벌을 받는다. 등록은 SAPI산하기관인 DNDA(la Direccion Nacional de Derecho de Autor)에서 한다.

공업소유권법에 의해 특허는 등록 후 5년간, 상표도 등록 후 5년간 유효하고 동 허가를 받은 후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상기와 같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이 약해 상표 도용 등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한 편이다. 특히 청바지 등 의류의 경우 상표 도용이 심해 국내 제조업체나 정식 수입업체의 고발이 많다.

20. 소비자보호제도

가. 소비자 보호

베네수엘라의 소비자 보호활동은 아직 미약한 편이나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기구로서 la Defensa y Educación del Consumidor y del Usuario (INDECUI)라는 소비자 보호원이 있어 소비자들의 고발을 받고 있으며, 민간단체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단체도 여러 개 활동하고 있다.

INDECUI는 소비자로부터 고발을 접수하면 일단 사실조사를 한 후 소비자 불만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 양측을 불러 화의를 중용하게 된다. 대개 이 단계에서 양측은 합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주게 되는데, 만일 화의 후에도 판매자 측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게 되는데, INDECUI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2001년 들어 INDECUI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거나, 신용카드의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FORD 자동차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강력 대응하는 등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INDECUI는 그 활동범위를 넓혀 모든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체크를 실시, 공정거래법에 등록된 가격을 위법한 경우 상점을 5일간 임시 폐쇄한다. 2005년 12월 유명 제과점, 슈퍼마켓 체인점(Unicasa, CM), 쇼핑 체인점(Traki) 등 64곳을 단속, 5일 폐쇄한 바 있다. 한편, 항공료 고속터미널 사용료 등을 단속한다고 발표하였다. 위법이 발견된 경우 최대 30일간 폐쇄와 최고 88백만 볼리바르의 벌금을 물게 된다.

나. 기업보호

기업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Pro Competencia를 들 수 있다. 기업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Pro Competencia를 들 수 있다. Pro Competencia는 정부기관으로 독점권, 불공정한 경쟁 등 기업간 자유 경쟁을 막는 행동에 대한 감시, 규제 역할을 한다. 한편, 수입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막아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킬 요인이 있다든지 등 공정한 경쟁에 대한 의견을 정부 부처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1. 교역관련 국가기관

가. 교역관련 기관

- 베네수엘라에 유입되는 모든 외환은 중앙은행(BCV / Banco Central de Venezuela)에 집중하며 중앙은행은 모든 외환통제 법규를 관장
 -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Venezuela): <http://www.bcv.org.ve>
- 외환통제 관련법규의 구체적 운용은 5인으로 구성된 외환 운영위원회(Cadivi/Comision de Administracion de Divisas)에서 담당
 - CADIVI: <http://www.cadivi.gov.ve>

- 통관 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관세정보 관련
 - 조세청 (Servicio Nacional Integrado de Administracion Aduanera y Tributaria) : <http://www.seniat.gov.ve>
- 통계청 (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 <http://www.ine.gov.ve>
- 예산청 (Oficina Central de Presupuesto) : <http://www.ocepre.gov.ve>
- 투자진흥위원회 (Comision Nacional de Promocion de Inversiones) : <http://www.conapri.org>
- 공정거래청(Superintendencia para la Promocion y Proteccion de la Libre Competencia) : <http://www.procompetencia.gov.ve>

나. 교역관련 상공회의소

- 카라카스 상의 (Camara de Comercio de Caracas) : <http://www.ccc.com.ve>
- 라과이라 상의 (Camara de Comercio de La Guaira) : <http://www.camaracomerciolag.org.ve>
- 발렌시아 상의 (Camara de Comercio de Valencia) : <http://www.camaracomerciovalencia.org.ve>
- 카라보주 상의 (Camara de Industriales del Estado Carabobo) : <http://www.ciec.org.ve>
- 파라과나 상의 (Camara de Comercio e Industria de Paraguana/Falcon주) : <http://www.cacoinpar.com>
- 산안토니오 상의 (Camara de Comercio e Industria de San Antonio/Tachira주) : <http://www.ccipsa.org.ve>
- 볼리바르주 상의 (Camara de Comercio del Estado Bolivar) : <http://www.camaradecomerciobolivar.com>
- 아라과주 산업협회 (Camara de Industriales del Estado Aragua) : <http://www.ciea.org.ve>
- 카라보주 건축협회 (Camara de la Construccion del Estado Carabobo) : <http://www.ccec.org.ve>
- 경영자협회 (Fedecamaras) : <http://www.fedecamaras.org.ve>
- 무선산업협회 (Camara Venezolana de la Industria de Radiodifusion) : <http://www.camradio.org>
- 전자협회 (Camara Venezolana de Comercio Electronico) : <http://www.cavecom-e.org.ve>
- 수출자협회 (Directorio de Exportadores Venezolanos) : <http://www.ddex.com>
- 베-스페인 상의 (Camara Venezolano Espanola de Industria y Comercio) : <http://www.cavespa.com/index2.htm>
- 베-이태리 상의 (Camara de Comercio Venezolano- Italiana) : <http://www.cavenit.com>
- 베-미국 상의 (Camara Venezolano-Americana) : <http://www.venamcham.org>

22. 시장특성

가. 시장특성

1) 시장규모

인구 2,650만 명에 연간 수입액이 120억\$ 정도인 크지 않은 시장이다. 멕시코와 비교할 때 인구는 1/4수준이나 무역액은 1/10에 불과하다. 이는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빈곤층의 비율이 인구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부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략 구매력을 가진 인구를 약 5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

2) 시장특성

베네수엘라는 오리노코강의 초중질유가 석유로 인정받음으로 인해 세계 6위에서 1위의 석유 매장 국으로 인정받았다. 현재 3위의 석유 수출국으로 경제의 석유의존도가 심해 경제가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받는다. 경제의 석유 의존도는 전체수출의 70%, 정부재정의 60%, GDP의 30%에 달할 정도로 심하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 변동할 때 연간 수입액이 10억\$ 차이가 난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및 유럽에의 무역 의존도가 심하다. 1900년대 초 석유개발시초부터 미국의 영향을 받아 미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미국과의 교역이 전체의 50% 차지한다. 특히 마이애미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소비재 상품의 경우 미국을 통한 소량 수입, 판매가 일반화 되어 있다. 또한, 석유수출로 부유하게 살던 습관이 남아 있어 선진국의 고가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이태리, 독일, 프랑스제품을 선호하며, 일본제품도 최근에는 부각이 될 정도이다. 일부 사치품을 제외하고는 가격경쟁이 치열하다. 베네수엘라는 통상 유통마진이 큰 편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 가격이 비싼 편이다. 따라서 소비자 가격만을 보고 수출 가격을 올렸다가는 낭패를 보기가 쉽다. 서민들을 위한 상품은 주로 중국과 미국의 재고품들이 들어온다.

베네수엘라의 기업들은 대부분이 독점 기업들이고, 손쉽게 장사를 하던 습관이 남아 있어 박리다매 보다는 높은 마진에 소량 판매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경제가 나빠지면서 이러한 경향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 마이애미에서 소량씩 수입하던 수입상들이 아시아로 눈을 돌려 대량 구매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기업인 석유공사(PDVSA), 전력청 등 많은 국영기업과 정부기관의 조달이 많다. 그러나 정부 조달의 경우 공고일부터 입찰 서류 마감일까지의 기간이 불과 2주일 정도이며, 대부분의 경우 외국업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또한 PDVSA의 큰 프로젝트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제한 지명입찰을 하고 있어, 참여 경험이 없는 우리 업체는 초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 비서명국이다.

베네수엘라는 타 중남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확산시키고 있다. 멕시코, 콜롬비아와 G3 자유무역협정,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카리브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와의 안데안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상품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 부패가 만연되어 있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다. 특히, 수입의 경우 세관의 비효율, 부패 및 밀수를 단속하는 국경수비대의 횡포가 심하다.

나. 유통구조

1) 유통 단계

통상 유통단계는 수입상-도매상-소매상-소비자의 단계가 전통적이거나, 도매상이 배제되고 수입상이 직접 소매상에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수입은 또한 근래에 들어서는 소규모 판매상들도 직접 수입, 판매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수입 에이전트의 경우 커미션으로 통상 10% 정도를 요구한다. 유통 마진은 품목에 따라 다소 다르나 통상 CIF가격의 3.5-4배를 소비자 가격으로 보면 무리가 없다. 베네수엘라는 대형유통업의 발달이 뒤진 관계로 2001년 초 매장규모가 불과 2,000-3,000평 규모의 백화점이 2개 (MAXY'S와 BECO) 정도만이 전국에 매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2005년 말 현재 SAMBIL, BECO 백화점등의 중산층 이용 백화점들과 TIJERAZO, TIRAKI 등의 저소득층을 위한 백화점, 그리고 백화점형태의 대형약국(FARMATODO, LOCATEL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백화점 형태보다는 쇼핑몰 형태가 오히려 발달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카라카스 시내의 경우 과거 CCCT가 대표적인 쇼핑몰이었으나, '99년 남미 최대 규모라고 자랑하는 SAMBIL이 생기면서 판도가 바뀌고 있다.

카라카스의 경우 기존 구 시가지에 우리의 시장과 비슷한 형태의 재래식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서민들은 주로 이곳을 구매장소로 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단위 쇼핑몰이나 신시가지의 상가 등은 종류이상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다. 다국적 유통업체로는 화란의 MACRO가 영업 중이며 콜롬비아와 프랑스 합작업체인 Exito가 2001년 상반기 카라카스에 매장을 개설하였다. 대규모 백화점이나 슈퍼 체인, 마크로 등의 할인매장들은 통상 직접 수입하기 보다는 수입상으로부터 구매를 선호한다. 이는 대금 결제, 불량품 반품, 재고 처리 등에 있어 국내 수입상에게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2) 구매시즌

연중 가장 소비량이 늘어나는 때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로서 기업별로 100%-300% 가량의 보너스와 기타 수당 등을 지급하는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1년을 마무리하며 그 동안 번 돈을 소비하고 싶은 충동이 가장 강한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월의 사육제 기간과 4월의 부활절 기간도 비교적 연휴가 길기 때문에 이때는 여행관련 용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이며 8월에는 신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인 관계로 아동용품이나 아동복 등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이다.

3) 상권 현황

베네수엘라는 유럽으로부터 이민 온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계 인들이 상권이나 제조업 등을 장악하고 있고 유대계의 경우 섬유분야나 액세서리 분야에서 유통을 장악하고 있다. 한편 지리적으로 미국과 인접한 관계로 마이애미로부터 물품이 상당히 반입되고 있다.

23.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가. 정부기관 및 각종 협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방법

-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de Caracas)
 - 수출입 업체 정보
- 외국인 투자청(SIEX: SUPERINTENDENCIA DE INVERSIONES EXTRANJERAS)
 - 주소: ESQUINA DE LA BOLSA A MERCADERES, EDF. LA PERLA, EL SILENCIO 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 483-6666
 - FAX : (58-212) 484-4368
- 투자진흥 위원회(CONAPRI: Comision Nacioal de Promocion de Inversiones)
 - 주소: AV. Francisco Miranda , Centro Emoresarial Parque del Este, piso 12, la Carlota, Caracas 1071, Venezuela
 - 전화: (58-212) 237-5007/5647
 - 팩스: (58-212) 237-6028/6109
 - 정부보조금과 민간경제단체 및 기업기금으로 운영되는 투자유치

- 관세청(SENIAT: Servicio Nacional Integrado de Administracion Aduanera y Tributaria)
 - 수출입 업체 정보
- 수출자 협회(Directorio de Exportadores Venezolanos)
- 자동차 제조 협회(FAVENPA: Camara de Fabricantes Venezolanos de productos Automotores)
 - 전화: (58-212)571-5091/3698,573-4121
 - 팩스: (58-212)573-4221
 - 자동차 제조, 조립업자 정보
- 자동차 수입 협회(CANIDRA)
 - 전화: (58-212)571-0265,573-7646
 - 팩스: (58-212)571-5898
 - 자동차 수입상 정보

나. 전시회 주최기관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방법

- 자동차 악세서리, 부품 종합 박람회(Exposicion internacional de automoviles, Motos, Accesorios y Servicios)
 - 주최기관: ORGANIZACION EXPOCENTER
 - 전화: (58-212)959-4511/3211
 - 팩스: (58-212)959-3977
- 자동차 종합 박람회(Exposicion internacional y Nacional del Automovil en Venezuela)
 - 주최기관: EXPOSICIONES ORTIZ, C.A.
 - 전화: (58-212)751-1355/1555
 - 팩스: (58-212)751-1122

다. 전화번호부 및 Yellow Pages를 통한 바이어 발굴 방법

- 베네수엘라 자동차 명부(Directorio Automotor de Venezuela)
 - 전화: (58-212)751-1355/1755/1955
 - 팩스: (58-212)751-1122
 - 자동차, 부품 관련 수입상, 도매상, 소비상 전화번호부
- 전화번호부(CANTV-주재국 유선통신회사))
 - 전화: (58-212)596-0110/0121/0133/0203
 - 팩스: (58-212)562-0855
 - 업체 연락처 정보
- Total Guia(기업 총 명부)
 - 전화: (58-212)552-3287(팩스겸용)
 - 팩스: (58-212)552-3287
 - 홈페이지: www.totalguia.com(유료)
 - 기업의 모든 정보 수량: 제품, 제품취급형태, 설립 년도, 종업원수,



24.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가. 정부기관, 국영기업

- [중앙정부\(Gobierno de la Repu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포털사이트](http://www.gobiernoenlinea.ve): <http://www.gobiernoenlinea.ve>
- 농림부(Ministerio de Agricultura y Tierras): <http://www.mat.gov.ve>
- 통신정보부 (Ministerio de Comunicacion e Informacion): <http://www.minci.gov.ve>
- 교육체육부 (Ministerio de Educacion y Deportes): <http://www.me.gov.ve>
- 문화부 (Ministerio de Estado para la Cultura): <http://conac.gov.ve>
- 인프라부 (Ministerio de Infraestructura): <http://www.infraestructura.gov.ve>
- 국방부 (Ministerio de la Defensa): <http://www.mindefensa.gov.ve>
- 환경자원부(Ministerio del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s): <http://www.marn.gov.ve>
- 내무법무부 (Ministerio del Interior y Justicia): <http://www.mij.gov.ve>
- 노동부 (Ministerio del Trabajo): <http://www.mintra.gov.ve>
- 국회 (Asamblea Nacional): <http://www.asambleanacional.gov.ve>
- 대법원 (Tribunal Supremo de Justicia): <http://www.tsj.gov.ve>
- 감사원 (Contraloria General de la Republica): <http://www.cgr.gov.ve>
- 옴부즈맨 (Defensoria del Pueblo): <http://www.defensoria.gov.ve>
- 검찰청 (Fiscalia General de la Republica): <http://www.fiscalia.gov.ve>
- 선거관리위원회 (Consejo Nacional Electoral): <http://www.cne.gov.ve>
- 생산상업부 (Ministerio de Produccion y Comercio): <http://www.mpc.gov.ve>
- 외무부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http://www.mre.gov.ve>
- 재무부 (Ministerio de Finanzas): <http://www.mf.gov.ve>
- 기획개발부 (Ministerio de Planificacion y Desarrollo): <http://www.mpd.gov.ve>
- 보건사회개발부 (Ministerio de Salud y Desarrollo Social): <http://www.msds.gov.ve>
- 과학기술부 (Ministerio de Ciencia y Tecnologia): <http://www.mct.gov.ve>

- 에너지광업부 (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http://www.mem.gov.ve>
- 조세청(Servicio Nacional Integrado de Administracion Aduanera y Tributaria): <http://www.seniat.gov.ve>
- 통계청 (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http://www.ine.gov.ve>
- 예산청 (Oficina Central de Presupuesto): <http://www.ocepre.gov.ve>
- 투자진흥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Promocion de Inversiones): <http://www.conapri.org>
- 정보통신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Telecomunicaciones): <http://www.conatel.gov.ve>
- 공정거래청 (Superintendencia para la Promocion y Proteccion de la Libre Competencia): <http://www.procompetencia.gov.ve>
- 석유공사 (Petroleos de Venezuela): <http://www.pdvsa.com.ve>
- 가이아나 공사 (Corporacion Venezolana de Guayana): <http://www.cvg.com>

나. 은행, 금융기관

- 중앙은행 (Banco Central de Venezuela): <http://www.bcv.org.ve>
- 저축대부은행 (Banco Nacional de Ahorro y Prestamo): <http://www.banap.com>
- 산업은행 (Banco Industrial de Venezuela): <http://www.biv.com.ve>
- 연방은행 (Banco Federal): <http://www.bancofederal.com>
- 카나리아은행 (Banco Canarias de Venezuela): <http://www.bancocanarias.com>
- 볼리바르은행 (Bolivar Banco): <http://www.bolivar.com>
- 안데스개발은행 (Banfoandes): <http://www.banfoandes.com.ve>
- 델수르유니버설은행 (Del Sur Banco Universal): <http://www.delsur.com.ve>
- 신용은행 (Banco Venezolano de Credito): <http://www.venezolano.com>
- 연합은행 (Banco Confederado): <http://www.bancoconfederado.com>
- 엑스테리오르은행 (Banco Exterior): <http://www.bancoexterior.com>
- 가이아나은행 (Banco Guayana): <http://www.bancoguayana.net>
- 소피타사은행 (Banco Sofitasa): <http://www.sofitasa.com>
- 폰도코문유니버설은행 (Fondo Comun Banco Universal): <http://www.fondocomun.com>
- 신세계은행 (Banco Nuevo Mundo): <http://www.nmbc.com.ve>
- 토털은행 (Total Bank): www.totalbank.com.ve
- 프로빈셜은행 (Banco Provincial): <http://www.provincial.com>
- 베네수엘라은행 (Banco de Venezuela): <http://www.bancodevenezuela.com>
- 메르칸틸은행 (Banco Mercantil): <http://www.bancomercantil.com>
- 이탈캄비오 (Organizacion Italcambio/환전소): <http://www.italcambio.com>
- 카라카스 증권거래소 (Bolsa de Valores de Caracas): <http://www.caracasstock.com>

다. 상공회의소, 경제단체

- 카라카스 상의 (Camara de Comercio de Caracas): <http://www.ccc.com.ve>
- 라과이라 상의(Camara de Comercio de La Guaira): <http://www.camaracomerciolag.org.ve>
- 발렌시아 상의(Camara de Comercio de Valencia: <http://www.camaracomerciovalencia.org.ve>
- 카라보보주 상의(Camara de Industriales del Estado Carabobo): <http://www.ciec.org.ve>
- 파라과나 상의(Camara de Comercio e Industria de Paraguana / Falcon 주): <http://www.cacoinpar.com>
- 산안토니오 상의 (Camara de Comercio e Industria de San Antonio/Tachira 주): <http://www.ccipsa.org.ve>

- 볼리바르주 상의(Camara de Comercio del Estado Bolivar): <http://www.camaradecomerciobolivar.com>
- 아라과주 산업협회(Camara de Industriales del Estado Aragua): <http://www.ciea.org.ve>
- 카라보보주 건축협회(Camara de la Construccion del Estado Carabobo): <http://www.ccec.org.ve>
- 경영자협회 (Fedecamaras): <http://www.fedecamaras.org.ve>
- 프랜차이즈협회 (Camara Venezolana de Franquicias): <http://www.profranquicias.com>
- 무선산업협회(Camara Venezolana de la Industria de Radiodifusion): <http://www.camradio.org>
- 전기산업협회(Camara Venezolana de la Industria Electrica): <http://www.caveinel.org.ve>
- 부동산협회 (Camara de Bienes Raices): <http://www.camaradebienesraices.com>
- 약제협회 (Camara Venezolana de Medicamento): <http://www.cafame.org.ve>
- 광업협회 (Camara Minera de Venezuela): <http://www.camiven.org.ve>
- 통신협회(Camara Nacional de Empresas de Telecomunicaciones): <http://www.canaemte.org>
- 통신서비스협회(Camara Nacional de Empresas de Servicios de Telecomunicaciones): <http://www.casetel.org>
- 식품산업협회(Camara Venezolana de la Industria de Alimentos): <http://www.cavidea.org.ve>
- 자동차제조협회(Camara de Fabricantes Venezolanos de Productos Automotores): <http://favenpa.ven.org>
- 냉동공조협회 (Camara Venezolana de la Ventilacion, Aire Acondicionado, Refrigeracion): <http://www.venacor.com>
- 가스연합회 (Federacion de Empresas de Gas): <http://www.fedemgas.com.ve>
- 상업서비스협회(Consejo Nacional del Comercio y Servicios): <http://www.consecomercio.org.ve>
- 전자협회 (Camara Venezolana de Comercio Electronico): <http://www.cavecom-e.org.ve>
- 수출자협회 (Directorio de Exportadores Venezolanos): <http://www.ddex.com>
- 베-스페인 상의(Camara Venezolano Espanola de Industria y Comercio): <http://www.cavespa.com/index2.htm>
- 베-이태리 상의 (Camara de Comercio Venezolano- Italiana): <http://www.cavenit.com>
- 베-미국 상의 (Camara Venezolano-Americana): <http://www.venamcham.org>

라. 언론기관

- El Universal : <http://www.eud.com>
- El Nacional : <http://www.el-nacional.com>
- Tal Cual : <http://www.talcualdigital.com>
- Ultimas Noticias : <http://www.ultimasnoticias.com.ve>
- El Mundo : <http://www.elmundo.com.ve>
- 2001 : <http://www.2001.com.ve>
- Meridiano : <http://www.meridiano.com.ve>
- El Diario de Caracas : <http://www.eldiariodecaracas.net>
- Vea : <http://www.diariovea.com>
- La Religion : <http://www.iglesia.org.ve>
- Reporte de la Economia : <http://www.reporte.com.ve>
- Panorama : <http://www.panodi.com>
- La Verdad : <http://www.laverdad.com>
- El Carabobeno : <http://www.el-carabobeno.com>
- Notitarde : <http://www.notitarde.com>
- El Impulso : <http://www.elimpulso.com>

- Nueva Prensa : <http://www.nuevaprensa.com.ve>
- El Siglo : <http://www.elsiglo.com.ve>
- El Aragueno : <http://www.el-aragueno.com>
- El Progreso : <http://www.diarioelprogreso.com>
- La Nacion : <http://www.lanacion.com.ve>
- El Norte : <http://www.elnorte.com.ve>
- El Oriental : <http://www.elorientalonline.com>
- La Prensa de Monagas : <http://www.laprensa.com.ve>
- Frontera : <http://www.diariofrontera.com>
- Cambio de Siglo : <http://www.cambiodesiglo.net>
- La Voz : <http://www.diariolavoz.net>
- El Tiempo : <http://www.diarioeltiempo.com.ve>
- La Hora : <http://www.lahora.com>
- El Tiempo : <http://www.eltiempo.com.ve>
- Ultima Hora : <http://www.ultimahoradigital.com>
- Impacto : <http://www.diarioimpacto.com.ve>
- Yaracuy al Dia: <http://www.yaracuyaldia.net>
- Las Noticias de Cojedes : <http://www.lasnoticiasdecojedes.com>

마. 포털 사이트

- <http://www.yuada.com>
- <http://www.auyantepui.com>
- <http://www.terra.com.ve>

바. 기 타

- 옐로우페이지 (Caveguias) : <http://www.caveguias.com.ve>
- 관광안내사이트 (Venezuela Turistica) : <http://www.venezuelaturistica.com>
- 관광안내사이트 (Turismo Venezolano) : <http://turismovenezolano.com>
- 경매 : <http://www.DeRemate.com>
- 구직 : <http://www.cvfuturo.com>

25.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가. 외국인 금기사항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자존심이 대단히 센 사람들로 베네수엘라를 무시하는 발언은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이웃 국가인 콜롬비아 사람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와 하류생활(술집의 여급, 하층노동, 파출부등)을 하는 일이 많아 콜롬비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를 콜롬비아와 비교하거나, 콜롬비아 사람 같다는 등의 발언은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현 차베스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민들은 대단히 좋아하는 반면, 기득권층은 싫어하는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거의 군사독재에 가까울 만큼 군부가 독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치, 군부 등에 대한 얘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나. 수입관행

베네수엘라는 금리가 연 50% 이상으로 높고, 현지 은행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이기 때문에 L/C개설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L/C 거래보다는 D/A, D/P 및 T/T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2003년부터 외환관리위원회(CADIVI)를 통해 수입허가를 받아야 외환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CADIVI의 지나친 조사절차로 인해 수입대금지불이 3~5개월로 늦어지고 있어 이런 점이 우리업체와의 거래성약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현지 수입상들은 소규모 주문을 자주 한다. 수출자로서는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이점 또한 거래에 장애요인이 된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주문량이 늘 수도 있으므로 꾸준한 인내심을 갖고 성의껏 제품을 공급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 거래 시 유의사항

베네수엘라는 유선통신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무선통신은 최근 한국의 CDMA 셀룰라폰이 진출해 발달되어 있으나, 유선통신은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팩스송수신에 애로가 많다. 특히, 팩스기는 업무 중에 전화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고 퇴근 후에는 건물 전체 전원을 차단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팩스 송신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차를 달리하여 3-5차례 송신하거나 무역관으로 송신할 경우 대신 전달 가능하다.

또한, 현지인의 정서상 안면을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1년에 1회 정도는 현지를 방문, 바이어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업체가 현지업체와 거래 시 겪는 애로점 중 하나가 모든 프로세스가 상당히 느리다는 점이다. 세관, 은행 등 한국업체처럼 빨리 일이 처리되지 않으므로 우리업체로서는 수입상이 실제로 수입 의사가 있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일 처리가 늦으므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베네수엘라인의 1시간은 하루, 하루는 일주일, 일주일은 한 달이라는 조크가 있을 정도이다.

라. 비즈니스 에티켓

베네수엘라인은 격식을 갖춘 서신을 좋아하므로 비즈니스 오퍼 시에나 가격오퍼 시에도 격식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간단한 사항, 예를 들어 호텔료를 문의할 때도 전화로 문의하면 잘 대답을 안하고 레터로 문의해야 레터로 회신해줄 정도로 레터가 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이런 점은 업무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현지인들의 생활의 일부분이므로 존중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지인들은 문의에 대한 회신 응답률이 매우 적어 문의에 대한 회신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 상담 시 유의사항

현지 바이어 중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바이어는 20%미만이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

는 바이어가 50%이상이므로 상담 시 통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단한 스페인어를 익혀두면 바이어에게 호감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스페인어 구사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지인들은 직선적으로 NO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으므로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상담 결과 수입상이 수입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사가 있는 것처럼 관심을 보여 우리업체가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다. 현지 수입상들이 NO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우리업체의 서신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접적인 NO의 표시를 나타내므로 3-4차례 레터를 송신하였는데도 회신이 없으면 NO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통산 중남미 바이어들에게 공통된 현상이지만 베네수엘라 인들은 특히 시간관념이 없다. 약속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바이어가 없고, 또 약속을 핑크 내는 경우도 허다하므로 상담 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6.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베네수엘라는 2003 년 이후 외환통제 이후로 교역 시 결제방법에 대해 다음의 법령을 제정한바 첫 거래를 위한 계약 체결 시 주재국 결제방법에 대해 유념해서 알아두어야 후에 분쟁의 빌미를 피할 수 있다.

가. 결제방법

1) 2005 년 10 월 14 일 발표된 외환통제하 수입절차 10 단계

- 1 단계
 - 수입자는 회사를 RUSAD 에 등록해야 하며 RUSAD 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수입자는 온라인을 통해 AAD 에 외환 획득 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음

- RUSAD
 - the Currency Administration System, 외환관리시스템
 - Cadivi 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외환 수요자를 관리하는 외환관리시스템임
- AAD (Autorizacion de Adquisicion de Divisas)
 - the Authorization to Exchange Foreign Currencies, 외환획득증인서

- 2 단계
 - 수입자는 AAD 를 획득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주거래 은행에 신청해야 함
 - 은행에 신청 시 동반 제출해야 되는 서류
 - Proform Invoice
 - Freight
 - Insurance
 - 지불방법 및 구매일자가 기록된 공문 또는 계약서
 - P/O
 - 수출자 정보(주소, 대표자, 연락처 등)

- 3 단계
 - 수입자가 AAD 외환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Cadivi 에 회사정보와 함께 AAD 신청서, RUSAD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은행은 제출 받은 서류를 Cadivi 에 5 영업일 내로 재 송부해야 함
- 4 단계
 - 신청된 AAD 가 Cadivi 에 승인된 후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관련제품의 공급을 주문할 수 있음
 - 승인된 AAD 는 양도할 수 없으며 180 일간 유효기간을 갖고 있음
 - 180 일간 유효 기간의 시작은 Cadivi 가 통보한 일자를 기준으로 함
- 5 단계
 - 제품이 베네수엘라 항구(세관)에 도착할 경우 수입자는 Cadivi 에 통관, 관세 등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Copy of the Import Declaration Form
 - Copy of the Commercial Invoice
 - Copy of the Transportation Document(BL etc)
 - 제품이 도착하자마자 수입자는 항구(세관)에 소재한 Cadivi 사무소에 제품 (화물) 검사를 요청해야 함
 - 수입상이 요청하지 않을 경우 Cadivi 는 외환사용승인을 취소함
- 6 단계
 - Cadivi 에 의해 제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 "Verification Act"발급
 - "Verification Act"가 발급될 경우 수입자는 지체 없이 관세와 통관세를 납부
- 7 단계
 - 통관절차가 완료될 경우 수입자는 은행에 통관서류(관세납부 서류 포함), Commercial Invoice, BL, 수출입자간 계약서, 원산지 증명서 및 Cadivi 검사증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수출입자간 계약서, 원산지 증명서 등은 단순히 수출입자간 사적인 서류가 아니라 제 3 의 공공기관이 확인된 것이어야 하며 영어나 스페인어 등으로 작성된 것
- 8 단계
 - 은행은 접수된 수입자의 서류를 접수일자를 포함한 5 영업일 내로 Cadivi 에 제출해야 함
- 9 단계
 - Cadivi 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검토 후 하자가 없는 경우 ALD 를 받을 수 있음
 - ALD 는 Cadivi 가 수입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제출한 은행에 송부하며 수입자는 은행을 통해 ALD 를 받을 수 있음
 - ALD 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자는 해당하는 결재금액을 은행에 입금

- ALD (Autorizacion de Liquidacion de Divisas)
- the Foreign Currency Settlement, ‘외환집행승인서’ 로 해석됨

- 10 단계
 - ALD 를 받은 은행이 수입자로부터 결제금액 입금이 확인된 경우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으로 외국환(U\$) 송금을 요청함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수출자의 계좌로 ALD 에서 승인된 자금을 송금함

2) Cadivi 외환승인 절차 시 중요사항

- Proforma Invoice 와 Commercial Invoice 내용이 동일해야 함
- AAD 가 승인되었을 경우 Cadivi 는 180 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함
- Cadivi 제도하에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선금지급이 불가능함
 - Cadivi(또는 중앙은행)이 수출자에게 직접 송금하므로 수입자가 선금을 지급할 경우 2중 지급이 됨

3) LC 거래 시 특이사항

- LC 로 거래를 수행할 경우 10 단계 중 4 단계까지는 동일하며 바로 10 단계로 진행함
 - AAD 가 승인된 경우 즉시 대금결제 금액을 은행에 납부
 - 은행은 수입자가 대금결제 금액이 입금한 것을 확인한 후 Cadivi 에 관련 서류를 제출
 - 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Cadivi 는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ALD 발행 후 중앙은행에 외화송금을 통보 요청
- LC 거래를 수입자가 회피하는 주요 이유
 - 은행에서 LC 개설 시 대금결제 금액의 120-150% 수준으로 예치 조치
 - 베네수엘라 은행에서 LC 거래 시 각종 은행 수수료가 통상적으로 5-8% 수준으로 너무 많아 제품 단가 인상의 요인임
 - 은행업무 자체가 늦어 Cadivi 를 통한 거래기간과 차이가 없음
- 상기 모든 프로세스는 www.cadivi.gov.ve 를 통해 수입자가 파악할 수 있는 바 수출자는 수입자를 통해 언제쯤 외환이 승인되는지 문의할 수가 있음. 다만, 수입자는 가급적 자신이 신청한 외환승인 프로세스를 알려주는 것에 소극적임

나. 외환 통제 후 무역대금 결제상의 문제점

- 수출상에게 외환통제를 이유로 대금지급의 과도한 기간 소요
 - B/L 발행 후 딜리버리 40 일, 통관 10-15 일, Cadivi 대금결제 40-50 일등 90-120Day 의 대금결제 기간을 요구하지만 수출상의 경우 과도한 대금결제 기간으로 베네수엘라 수출을 기피하게 됨
 - Cadivi 승인기간이 최대 60 일정도면 완료되지만 바이어는 승인 후에도 Cadivi 를 핑계를 내세워 물품을 수출상에게 통지하지 않고 통관하여 Sampling 판매 후 시장성이 없는 경우 외환이 미 승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음

- 선량한 바이어의 선금지불에 따른 국내 수출자의 악용
 - 원칙적으로 사전결제는 불법이지만 과도한 지급기간으로 인하여 쌍방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수입상들은 자신의 해외보유 계좌에서 선금을 지불하기도 하는데, 이때 Cadivi 의 외환승인 후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에서도 대금을 직접 수출상에게 송부하기 때문에 수출상은 2 중으로 대금을 받음. 보통 수출상이 바이어에게 재 송금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여 무역관의 클레임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있음

27. 통관절차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수입신고서, B/L 원본, 상업 송장, 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필요한 경우), 품질증명서(자동차부품, 의약품 등)이다. 통관 시에는 반드시 통관사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물품 검사는 RANDOM SAMPLING의 방법으로 하는데, 동 방법에 의한 검사에서 잘못이 발견될 때에는 전수 검사를 한다. 또한 한번 문제가 발생한 수입상의 화물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전수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01년 까지만 해도 세관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세관 신고를 낮게 하거나, 아예 신고하지도 않고 물품을 빼내는 일이 자주 일어났으나, 차베스 정부 수립 이후 세관 검사가 상당히 엄격해 졌다.

이에 따라 송장 가격을 제대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일단 세관을 통과한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 수비대(GUARDIA NACIONAL)가 재검사를 하는데, 국가수비대는 원래 마약이나 무기 등 유해한 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를 해 왔으나, 근래에는 세관원이 제대로 화물 검사를 하였는지 재검사를 하고, 세관검사보다도 오히려 더 엄격하여 수입상 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국가 수비대는 보세장 입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화물이 최종 도착지까지 여러 번 국가수비대의 검색을 당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2003년 라과이라 직원들이 수입상으로부터 막대한 액수의 뇌물을 받아온 사실이 정보부에 발각이 되면서 정보부 직원이 전국 세관에서 조사를 벌인바 있다. 국세청은 라과이라세관을 필두로 향후 지속적인 세관행정을 전산화하여 부정을 막고 세관행정을 간소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UN의 지원 하에 설치된 세관 자동화 시스템은 시험단계에 있는데, 이를 거부하는 세력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세관 통관관행은 전산 시스템에 의한 것보다는 과거와 같이 검사를 하고 있는 형편이며 불법으로 통관되는 물품 또한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된다.

통관시에는 물품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필히 준비해야 하는데 한국산 자동차부품일 경우 사전에 수입상의 협조 하에 이곳 품질인증서(homologacion)을 받아, 수입자 측이 준비해야 한다. 의약품이나 식품인 경우 각각 보건복지부의 식품부의 등록을 마친 후 등록증을 보여야 통관이 된다. 필요한 인증서나 등록증이 없는 경우 물품의 통관이 거부되거나 수입자 측에 주관적인 벌금을 물게 되어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점검해야 한다.

< 2005년 10월 14일 발표된 외환통제하 수입절차 10단계 >

가. 통관 시 CADIVI의 점검강화

○ 1단계

- 수입자는 회사를 RUSAD에 등록해야 하며 RUSAD에 이미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수입자는 온라인을 통해 AAD에 외환획득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음

○ RUSAD

- the Currency Administration System, 외환관리시스템
- Cadivi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외환 수요자를 관리하는 외환관리시스템임

○ AAD(Autorizacion de Adquisicion de Divisas)

- the Authorization to Exchange Foreign Currencies, 외환획득증인서

○ 2단계

- 수입자는 AAD를 획득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주거래 은행에 신청해야 함
- 은행에 신청 시 동반 제출해야 되는 서류
 - Proform Invoice . Freight
 - Insurance . 지불방법 및 구매일자가 기록된 공문 또는 계약서
 - P/O . 수출자 정보(주소, 대표자, 연락처 등)

○ 3단계

- 수입자가 AAD 외환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Cadivi에 회사정보와 함께 AAD 신청서, RUSAD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은행은 제출 받은 서류를 Cadivi에 5영업일 내로 재 송부해야 함

○ 4단계

- 신청된 AAD가 Cadivi에 승인된 후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관련제품의 공급을 주문할 수 있음
- 승인된 AAD는 양도할 수 없으며 180일간 유효기간을 갖고 있음
 - 180일간 유효기간의 시작은 Cadivi가 통보한 일자를 기준으로 함

○ 5단계

- 제품이 베네수엘라 항구(세관)에 도착할 경우 수입자는 Cadivi에 통관, 관세 등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Copy of the Import Declaration Form
 - Copy of the Commercial Invoice
 - Copy of the Transportation Document(BL etc)
- 제품이 도착하자마자 수입자는 항구(세관)에 소재한 Cadivi사무소에 제품(화물)검사를 요청해야 함
 - 수입상이 요청하지 않을 경우 Cadivi는 외환사용 승인을 취소함

- 6단계
 - Cadivi에 의해 제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 "Verification Act"발급
 - "Verification Act"가 발급될 경우 수입자는 지체없이 관세와 통관세를 납부
- 7단계
 - 통관절차가 완료될 경우 수입자는 은행에 통관서류(관세납부 서류 포함), Commercial Invoice, BL, 수출입자간 계약서, 원산지 증명서 및 Cadivi 검사증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수출입자간 계약서, 원산지 증명서 등은 단순히 수출입자간 사적인 서류가 아니라 제3의 공공기관이 확인된 것이어야 하며 영어나 스페인어 등으로 작성된 것
- 8단계
 - 은행은 접수된 수입자의 서류를 접수일자를 포함한 5영업일 내로 Cadivi에 제출해야 함
- 9단계
 - Cadivi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검토후 하자가 없는 경우 ALD를 받을 수 있음
 - ALD는 Cadivi가 수입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제출한 은행에 송부하며 수입자는 은행을 통해 ALD를 받을 수 있음
 - ALD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자는 해당하는 결재금액을 은행에 입금

- ALD(Autorizacion de Liquidacion de Divisas)
 - the Foreign Currency Settlement, ‘외환집행승인서’로 해석됨

- 10단계
 - ALD를 받은 은행이 수입자로부터 결재금액 입금이 확인된 경우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으로 외국환(US\$) 송금을 요청함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수출자의 계좌로 ALD에서 승인된 자금을 송금함

나. Cadivi 외환승인 절차 시 중요사항

- Proforma Invoice와 Commercial Invoice 내용이 동일해야 함
- AAD가 승인되었을 경우 Cadivi는 18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함
- Cadivi 제도하에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선금지급이 불가능함
 - Cadivi(또는 중앙은행)이 수출자에게 직접 송금하므로 수입자가 선금을 지급할 경우 2중 지급이 됨

다. LC 거래 시 특이사항

- LC로 거래를 수행할 경우 10단계 중 4단계까지는 동일하며 바로 10단계로 진행함
 - AAD가 승인된 경우 즉시 대금결재 금액을 은행에 납부
 - 은행은 수입자가 대금결재 금액이 입금한 것을 확인한 후 Cadivi에 관련 서류를 제출
 - 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Cadivi는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ALD 발행 후 중앙 은행에 외화송금을 통보 요청

- LC 거래를 수입자가 회피하는 주요 이유
 - 은행에서 LC 개설 시 대금결제 금액의 120-150% 수준으로 예치 조치
 - 베네수엘라 은행에서 LC 거래 시 각종 은행 수수료가 통상적으로 5-8% 수준으로 너무 많아 제품단가 인상의 요인임
 - 은행업무 자체가 늦어 Cadivi를 통한 거래기간과 차이가 없음
- 상기 모든 프로세스는 www.cadivi.gov.ve를 통해 수입자가 파악할 수 있는 바 수출자는 수입자를 통해 언제쯤 외환이 승인되는지 문의할 수가 있음. 다만, 수입자는 가급적 자신이 신청한 외환승인 프로세스를 알려주는 것에 소극적임

28. 운송

가. 국제 공항

수도 카라카스의 관문은 SIMON BOLIVAR 공항이다. 이 공항은 카라카스 시내에서 약 25KM 떨어진 LA GUAIRA 해변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통상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교통 체증이 없는 경우 차로 약 40분 정도가 걸린다.

2006. 1. 5(목)을 기점으로 국제공항간 고속도로를 폐쇄하였는데 이는 연초부터 쏟아진 폭우로 인하여 지반이 이동하였고 과거부터 부실하던 고가 위에 건설된 철근 콘크리트 다리의 하반부 일부가 무너짐으로써 고속도로 이용이 정지되었다.

현재 카라카스-공항간 양방 1차선 신축공사 완료로 통행이 가능하나 우기 시 교통 트래픽을 피할 수 없어 출장자는 여유를 두고 스케줄을 잡을 필요가 있다.

기타 주요 도시의 국제공항은 다음과 같다

- SANTIAGO MARINO 공항 (MARGARITA섬)
- TACHIRA 공항 (TACHIRA주 SAN ANTONIO시)
- LA CHINITA 공항 (MARACAIBO시)
- VALENCIA 공항 (CARABOBO주)
- BARCELONA 공항 (ANZOATEGUI주)
- BARQUISIMETO 공항 (LARA주)

나. 국제 항구

주요 국제항구로는 수도권의 LA GUAIRA항구, CARABOBO주의 PUERTO CABELLO항구 ZULIA주의 MARACAIBO항구, ANZOATEGUI 주의 PUERTO LA CRUZ 항구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상품이 주로 도착하는 항구는 수도권 근처의 LA GUAIRA 항구와 대형 화물선의 접안이 용이한 PUERTO CABELLO 항구이다. PUERTO LA CRUZ 항구는 석유산업 중심지인 JOSE 공단에 인접해 있어 원유 및 가솔린 수출, 관련 자재 수출입 등에 이용된다.

카라카스의 관문인 LA GUAIRA 항구(SIMON BOLIVAR 공항)는 '99년 말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복구가 된 상태임. 한국에서 처음으로 베네수엘라를 방문할 경우 동 공항을 통하여 출입하게 되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한 사기가 빈발하여 주의가 요망된다.

다.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 서비스 회사

- Aerotransporte Rapicar, C.A.
 - 주소: Ave. Los samanes, Centro Plaza Paez, Nivel planta Alta, ofc.03, El Paraiso, Caracas, Venezuela
 - 전화: (58-0212) 484-7614, 483-6555
 - 팩스: (58-0212) 484-3885
- Alafletes, Agencia Latinoamericana de Fletamentos, C.A.
 - 주소: Puente Yanes, Edf. Beco, Piso 3, La Candelaria, Caracas, Venezuela
 - 전화: (58-0212) 576-6944,
 - 팩스: (58-0212) 576-6018, 577-6055
- Aerofletes
 - 주소: Av. Romulo Gallegos, Edf. Pascal, Torre B, P.B., Local 4-B, Caracas, Venezuela
 - 전화: (58-0212) 355-2669
 - 팩스: (58-0212) 286-2956
- Consignacion Tamayo, S.A. CONTASA
 - 주소 : CC. uslar, Piso 4, Ofc.41, Urb.Montalban la Vega,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0212) 443-8347
 - 팩스 : (58-0212) 332-5480
- C.A. Danzas Veneolana
 - 주소 : Carretera Petare Sta. Lucia, 5km, Sector El Limoncito, Filas de Mariche. Estado Miranda, Venezuela
 - 전화 : (58-0212) 291-2049, 291-2816
 - 팩스 : (58-0212) 291-2331/2575

29. 분쟁해결 절차

- 베네수엘라 기업과 교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서 서명 전, 결제방법, 납기에 대한 분명한 명시 및 합의가 필요하다.
 - 외환관리 위원회(CADIVI)의 외환허가기간으로 인해 종종 지불기간까지 3~5개월이 요구되어지기에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만일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거래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출보험공사를 통한 지속적인 문제 해결방안 검토를 통하여 양사간 신뢰도의 하락 없이 해결할 수 있다.

- 수입자의 의도적인 경우로 문제발생시 법률사무소를 통한 해결방법이 있는데 민간 기업 간의 무역분쟁의 경우는 주재국의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는 현지 소송에 의한 재판의 경우 소송서류를 스페인어로 제출해야 하고, 소송기간도 대체로 장기간이기 때문에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효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임. (이 경우 변호사 선임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됨)

□ 주재국 주요 법률사무소(변호사)

1) BENTATA ABOGADOS

- 주소: TORRE LAS MERCEDES, PISO 2, CHUAO, 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993-9004/992-0720
- FAX: (58-212)992-6609/992-6676
- EMAIL: lawyers@bentata.com
- Home page: www.bentata.com

2) RODRIGUEZ & MENDOZA

- 주소: AV. FRANCISCO DE MIRANDA, EDIF. PARQUE CRISTAL, TORRE ESTE, PISO 11, LOS PALOS GRANDE, 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285-4944
- FAX: (58-212)285-1379/284-4665

3) TINOCO, TRAVIESO PLANCHART & NUNEZ

- 주소: AV. FRANCISCO DE MIRANDA, TORRE COUNTRY CLUB, PISO 1, 2, 3, CHACAITO, 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952-9033/953-9033
- FAX: (58-212)953-1053/8365
- EMAIL: ttn@ttn.com.ve

4) TORRES, PLAZ & ARAUJO

- 주소: EDIF. POLAR, TORRE OESTE, PASEO COLON, URB. LOS CAOBOS, PISO 17, PLAZA VENEZUELA, 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709-5311
- FAX: (58-212)709-5300/5301

5) DERECHO: FORMA Y FONDO

- 주소: AV. LA ESTANCIA, CCCT PISO 1, OFI. C-107 CHUAO, 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959-8308/3645
- FAX: (58-212)959-2684/2805
- 회계법인 겸무

30. 유형별 분쟁 사례

가. 외환통제 후 무역대금 결제상의 문제점

- 수출상에게 외환통제를 이유로 대금지급의 과도한 기간 소요
 - B/L 발행 후 딜리버리 40일, 통관 10~15일, Cadivi 대금결제 40~50일 등 90~120 Day의 대금 결제기간을 요구하지만 수출상의 경우 과도한 대금 결제기간으로 베네수엘라 수출을 기피하게 됨
 - Cadivi 승인기간이 최대 60일정도면 완료되지만 바이어는 승인 후에도 Cadivi를 핑계를 내세워 물품을 수출상에게 통지하지 않고 통관하여 Sampling 판매 후 시장성이 없는 경우 외환이 미 승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음
- 선량한 바이어의 선금지불에 따른 국내 수출자의 악용
 - 원칙적으로 사전결제는 불법이지만 과도한 지급기간으로 인하여 쌍방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수입상들은 자신의 해외보유 계좌에서 선금을 지불하기도 하는데, 이때 Cadivi의 외환승인 후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에서도 대금을 직접 수출상에게 송부하기 때문에 수출상은 2중으로 대금을 받음. 보통 수출상이 바이어에게 재 송금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여 무역관의 클레임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있음

나. 수출대금 미결제

- 주재국 외환관리 위원회(Cadivi)승인기간의 과도한 지체와 수출업자의 불량품 선적으로 수입업자의 수출대금 미 결제(지체)사례가 있었음.
 - 수출업자-P업체(자동차 부품) / 수입업자-VEXPORT

VI. 투자

31.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대외 투자진출 통계

베네수엘라는 대외투자 진출에 대해서는 전혀 정부의 개입이 없으며 따라서 통계도 집계하지 않고 있다.

해외 투자가 가장 많은 업체는 석유공사(PDVSA)로 미국, 유럽 등지에 정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콜롬비아,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에 약간의 투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 아시아 투자는 PDVSA가 오리물전을 판매하기 위하여 일본 미쓰비시와 합작으로 일본에 세운 오리물전 판매법인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

대 베네수엘라 직접 투자액

(단위: 미\$)

	1월	2월	3월	한해 총 투자액
2004	55,152,372	46,986,386	24,415,759	126,554,517
2005	4,637,436	50,243,553	126,927,837	181,808,827

자료원 : SLEX (베네수엘라 외국인 투자진흥청)

주 : 연말잔고를 기준으로 한 실적임. 석유, 석유화학, 광물, 보험, 은행투자는 제외

업종별 투자액

(단위 : 미 달러)

2004년		
농림수산업	563,878	0.12
제조업	415,888,346	84.54
전 력	1,243,447	0.25
건설	1,152,037	0.23
광산개발	12,738	0.00
상업	14,374,437	2.92
운수·창고	1,595,168	0.33
사회서비스	1,938,064	0.4
기타서비스	55,165,203	11.21
계	491,933,322	100%

자료원 : 상동

2005년		
농림수산업	254,974.30	0.03
제조업	462,633,313.44	50.58
전력	1,475,115.63	0.16
건설	3,286,024.31	0.36
광산 개발	184,366.69	0.02
상업	6,719,372.22	0.73
운수·창고	390,816,678.94	42.73
사회서비스	181,823.66	0.02
기타서비스	49,070,976.18	5.37
계	914,622,645.37	100%

자료원 : SLEX(베네수엘라 외국인 투자진흥청)

국가 별 대 베네수엘라 투자액

(단위 : USD)

연번	국가	2003 년	2004 년	2005 년
1	독일	9,817,743.75	10,540,869.86	3,217,538.88
2	아르헨티나	139,821.08	9,429.91	110,590.40
3	아루바	5,620.00	0	499,960.00
4	오스트레일리아	60,049.59	0	0
5	오스트리아	205,175.46	0	0
6	바하마	1,434,180.66	3,197,654.93	3,321,125.64
7	바베이도스	0	250.00	204,000.00
8	룩셈부르크	9,744,726.32	1,537,759.29	867,781.43
9	베르무다스	931,643.64	15,046,033.83	1,052.97
10	브라질	120,955.00	1,752,925.93	99,984.85
11	카이만	11,960,658.17	0	400,240,143.32
12	캐나다	39,346.57	1,754,446.59	5,220.86
13	칠레	899,951.15	129,966.00	2,739.91
14	중국	11,352.69	0	0
15	콜롬비아	17,672,451.14	21,332,332.23	3,913,798.21
16	한국	10,752.69	14,553.73	0
17	코스타리카	1,764,011.05	0	915.23
18	쿠바	32,004.86	0	4,662.88
19	쿠라사오	691,095.86	4,142,152.72	6,524.31
20	디나마르카	0	1,950,727.85	1,046,063.28
21	에콰도르	0	98.00	496,282.32
22	미국	995,892,510.72	173,945,476.73	368,636,341.68
23	슬로바키아	0	0	310.82
연번	국가	2003 년	2004 년	2005 년
	스페인	11,158,029.67	20,836,923.58	30,601,778.53
	필리핀	0	0	9,607.34
24	프랑스	16,037,271.90	50,231,384.28	6,777,329.44
25	홍콩	18,634.99	0	0
26	인도	0	1,000.00	0
27	이스라엘	0	391.61	0
	이란	0	0	104,913.96
28	이탈리아	814,634.22	831,868.41	6,512.75
29	일본	9,089,249.91	0	50,718,380.64
30	레바논	35,973.80	0	0
31	모리시어스	2,109.22	0	0
32	말타	0	272,702.32	0
	리베리아	0	0	2,681.88
33	멕시코	98,302.28	399,130.62	259,721.07
34	노르웨이	12,898.60	0	0

35	네덜란드	50,520,253.42	2,343,134.57	25,604,975.39
36	파나마	21,257,032.90	3,897,010.65	10,989,482.26
37	페루	90,607.34	2,834,676.99	19,376.82
38	포르투갈	0	265,084.60	194.00
39	리히스타인	0	3,426,809.84	0
40	푸에르토리코	499,984.61	987,261.14	0
41	영국	2,625,256.45	1,694,660.90	2,806,760.63
42	도미니카공화국	0	33.93	0
	루마니아	0	0	10,400.00
43	스위스	3,368,974.53	157,104,799.57	1,327,280.15
44	스웨덴	0	1,243,447.13	0
45	우루과이	2,804,463.89	1,283,351.72	52,139.89
46	버진아일랜드	4,372,350.06	8,924,972.97	2,402,143.67
	합계	1,174,240,078.19	491,933,322.43	914,622,645.37

자료원 : 베네수엘라 투자청(SIEX)

32.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현황

현재까지 가장 규모가 큰 건으로는 지난 '97년 포항제철이 철강원료인 HBI 생산을 위하여 합작 법인 (POSVEN / Posco Venezuela) 설립 건으로, '97년 5월 Puerto Ordaz에 공장 착공, 2000년 6월 완공하였다. 우리기업이 75%의 지분을 소유하며 (포철 40%, 포스틸, 포스코 개발, 동부 각 10%, 현대5%), 미국 및 멕시코기업이 2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003년 철수하였다.

기타 제조업으로 평화산업에서 현지업체와 합작으로 못 생산공장을 운영하였으나, 2000년 들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우자동차는 제조업은 아니나, 판매법인으로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 참조)

'00년 및 '01년도, '05년도 한국의 대 베네수엘라 투자액은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베네수엘라의 비철금속, 석유화학, 자동차조립 등 분야에 4억4천만 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상품위주의 수출에 한계가 올 것에 대비해 베네수엘라가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 및 자원개발과 연계된 기간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기울여 진출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상이 될 주요 자원으로는 보오크사이트, 원유, 천연가스(탄화가스), 석탄, 철광석, 커피, 열대과일 등이 있다.

나. 기업 투자동향

주재국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2개사가 지사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하였다.

33. 투자 환경

가. 투자 매력도

베네수엘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미개발된 수많은 지하자원 및 관광 자원, 국내제조업체가 거의 없어 대부분의 소비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제구조 등 얼핏 보면 매우 매력적인 투자대상 시장 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불안, 정부의 비효율성, 낮은 노동의 질, 복잡하고 고용주에 불리한 노동법, 소수 10%에만 집중된 극심한 부의 편중 등으로 인해 외국인 기업이 성공적으로 투자 진출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많이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베네수엘라는 1992. 3월 대통령령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등록과정을 단순화하였다. 아래의 외국인투자 제한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설립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 투자청(SIEX-Superintendency of Foreign Investment)에 등록만 하면 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 투자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외국인 투자법 2095호에 정해진 일부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는 ANCOM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금융조달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주재국 내 금융시장에서 주식 및 채권발행 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99년 12월 개정된 헌법은 특히 자원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석유의 경우 외국업체와의 합작이 아니고 단독으로 개발권을 주던 개발 양허제는 금지가 되었다.

외국인은 다음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TV, 라디오 방송 및 스페인어 신문
- 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 전문직 종사자
- 석유, 철광 등 자원개발 분야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으나, 사안 별로 의회 승인 시 투자 가능

다.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우선 베네수엘라의 외국인 투자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 및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제한분야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조세감면, 금융지원, 특정부문 또는 조건을 구비한 업체에 대한 특별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지 정부기관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조세혜택을 받으려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산업의 하청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필히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부품조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인근 안데안 국가들과의 경제통합을 가시화하고 있어 인근 국가로부터의 부품 및 자재수입도 무세로 조달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99년 말 헌법개정으로 근로자들의 복지측면이 더욱 강화된 바 2001년 이후에는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세법, 석유관련법, 통신법 등이 개정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큰 변동이 없다. 다만, 석유 관련법이 변경되었으나 한국기업이 파악해야 되는 사항은 별로 없어 기재하지 않기로 하며 최근 논란을 벌이고 있는 투자관련법으로는 부가세 면제 조항으로 이해 관계자가 많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베네수엘라는 외국인투자 허가기준으로 고용증대,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 고도의 기술여부, 경영권, MARKETING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부문, 유통업부문, 전문 서비스부문, 석유 철강개발부문, 금융부문, 보험부문 등은 외국인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다.

라. 투자 유치 관련 법령

베네수엘라의 외자법은 ANCOM(안데안공동시장) 공통외자규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90년 초 정부가 신 외국인 투자법(대통령령 제727호)을 발표한 이후 이윤의 송금, 재투자 자유화, 로얄티지급한도 폐지 등을 통하여 국내자본부족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 선진기술 도입, 고용 및 외화획득 증대를 목표로한 외자장려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92. 3월에는 신 외국인 투자법(대통령령 제2095호)을 통해 외자도입의 무제한 허용, 외자허가제 폐지, 이윤송금, 재투자에 대한 제한폐지, 특허권, 기술계약에 대한 규제완화, ANCOM 가맹국의 현지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내국기업과 동등 대우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91. 5.1일부로 실시된 노동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간 노동시간이 종전의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고 야간 노동시간대의 경우 임금 가산률이 높아지는 등 노동자 보호 입법이 강화되었고, '91.9.1일부로 조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등 양면으로의 움직임이 혼재한 상황이다.

'99년초 취임한 차베스 대통령은 국내법의 대대적인 개정 작업에 나서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이 새로 발표되고 있다. 그리고 각 산업 관련 법령, 예를 들어 가스 관련 법령, 전기법, 통신법 등 투자와 관련된 분야의 법령도 새로이 바뀌고 있으므로 현지 투자시 이와 같은 제반 법령을 같이 살펴 보아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투자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 1990년 1월 공표된 법령 제727호(신외국인 투자법)
- 1992년 2월 공표된 법령 제2095호(상표, 특허, 로얄티에 관한 개정)
- 1993년 11월 공표된 법령 제3228(은행법 개정)
- 1999년 10월 3일 공표된 법률 제 356호(투자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0월 22일자 관보 특별판에 게재)
- 1999년 9월 17일 공표된 법률 제 319호(전기서비스 법률/9월 21일자 관보게재)
- 1999년 9월 5일 공표된 법률 제 296호(입찰법/10월 11일자 관보에 게재)
- 1999년 9월 17일 공표된 법률 제 318호(공공공사에 관한 법률/10월 25일자 관보 게재)
- 1999년 9월 12일 공표된 법률 제 310호(가스법/9월 23일자 관보에 게재)
- 1999년 9월 5일 공표된 법률 제 295호(광산법/9월 28일자 관보 특별 판에 게재)
- 2000년 3월 28일 공표된 법률 (금융에 관한법률/관보 36920)
- 2001년 10월 17일 공표된 법률(조세법/관보 37305호 게재)
- 2001년 11월 9일 공표된 법률 1546호(토지, 농지에 관한 법률)

마. 투자허가, 감독기관

투자허가, 감독기관으로는 외국인 투자청(SIEX)가 있는데, 동 기관은 재무부 산하의 외국인 투자관리청으로 그 기능은 외국의 대 베네수엘라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등록 및 관리와 외국인 투자 및 기술이전에 대한 지도, 감독을 맡고 있다.

외국인 투자청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SUPERINTENDENCIA DE INVERSIONES EXTRANJERAS(SIEX)
 - 주소: ESQUINA DE LA BOLSA A MERCADERES, EDF. LA PERLA, EL SILENCIO 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 483-6666
 - FAX : (58-212) 484-4368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유치전문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바,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외국인 투자유치 사무소(Conapri)
 - 주소: AV. Francisco Miranda ,Centro Emoresarial Parque del Este, piso 12, la Carlota, Caracas 1071, Venezuela
 - 전화 : (58-212) 237-5007/5647
 - 팩스 : (58-212) 237-6028/6109
 - 성격 : 정부보조금과 민간경제단체 및 기업기금으로 운영되는 투자유치 전문기관
 - 기능(주요 업무)
 - . 베네수엘라 외국인 투자환경 자료 발간
 - . 투자유치 사절단 구성, 베네수엘라 투자환경 정보제공 등

바. 외국인 투자제한

베네수엘라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국내투자와 동일시하고 있으나 언론 및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전문직종에는 외국인 투자를 20%로 제한하고 있으며, 석유, 국유자원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정권까지는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대폭 완화하여 13개에 달하는 한계 유전의 개발권을 외국기업들에게 양허한 바 있으나, 차베스정부 수립이후 '99년 12월의 헌법개정을 통해 석유의 개발권은 국가만 갖도록 하였다

외국인 투자가 규제되는 분야로는 국방, 석유, 철광석, 기타 천연자원 개발 및 기초 석유 공업, 은행, 보험, 리스업, 전문용역업(엔지니어링, 디자인, 공인회계, 변호사업 등), 보안 및 경비업, 방송, 서반아어 출판업 등으로 제한적인 외국인 투자(합작비율 20%까지)만이 허용된다.

사. 투자허가

베네수엘라는 1992. 3월 대통령령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등록과정을 단순화하였다. 아래의 외국인투자 제한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설립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 투자청(SIEX-Superintendency of Foreign Investment)에 등록만 하면 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 투자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외국인 투자법 2095호에 정해진 일부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는 ANCOM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금융조달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주재국 내 금융시장에서 주식 및 채권발행 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99 년 12 월 개정된 헌법은 특히 자원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석유의 경우 외국 업체와의 합작이 아니고 단독으로 개발권을 주던 개발 양허제는 금지가 되었다.

- 외국인은 다음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TV, 라디오방송 및 스페인어 신문
 - 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 전문직 종사자
 - 석유, 철광 등 자원개발 분야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으나, 사안별로 의회승인 시 투자 가능
- 베네수엘라의 투자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 1990년 1월 공포된 법령 제727호(신 외국인 투자법)
 - 1992년 2월 공포된 법령 제2095호(상표, 특허, 로열티에 관한 개정)
 - 1993년 11월 공포된 법령 제3228(은행법 개정)
 - 1999년 10월 3일 공포된 법률 제 356호(투자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0월 22일자 관보 특별판에 게재)
 - 1999년 9월 17일 공포된 법률 제 319호(전기서비스 법률/9월 21일자 관보게재)
 - 1999년 9월 5일 공포된 법률 제 296호(입찰법/10월 11일자 관보에 게재)
 - 1999년 9월 17일 공포된 법률 제 318호(공공공사에 관한 법률/10월25일자 관보 게재)
 - 1999년 9월 12일 공포된 법률 제 310호(가스법/9월 23일자 관보에 게재)
 - 1999년 9월 5일 공포된 법률 제 295호(광산법/9월 28일자 관보 특별판에 게재)
 - 2000년 3월 28일 공포된 법률 (금융에 관한법률/관보 36920)
 - 2001년 10월 17일 공포된 법률(조세법/관보 37305호 게재)
 - 2001년 11월 9일 공포된 법률 1546호(토지, 농지에 관한 법률)

34. 투자 인센티브

베네수엘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미개발된 수많은 지하자원 및 관광자원, 국내제조업체가 거의 없어 대부분의 소비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제구조 등 언뜻보면 매우 매력적인 투자대상 시장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불안, 정부의 비효율성, 낮은 노동의 질, 복잡하고 고용주에 불리한 노동법, 소수 10%에만 집중된 극심한 부의 편중 등으로 인해 외국인 기업이 성공적으로 투자 진출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많이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진흥청이 존재하고 있지만 경제협정을 통한 국가간의 투자 방식으로 진행되어 거의 인센티브를 찾아볼 수 없다.

베네수엘라는 1992. 3월 대통령령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등록과정을 단순화하였다. 아래의 외국인투자 제한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설립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 투자청(SIEX-Superintendency of Foreign Investment)에 등록만 하면 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 투자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외국인 투자법 2095호에 정해진 일부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는 ANCOM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금융조달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주재국내 금융시장에서 주식 및 채권발행 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99년 12월 개정된 헌법은 특히 자원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석유의 경우 외국업체와의 합작이 아니고 단독으로 개발권을 주던 개발 양허제는 금지가 되었다.

- 외국인은 다음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TV, 라디오방송 및 스페인어 신문
 - 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의사, 기자 등 전문직종사자
 - 석유, 철광 등 자원개발 분야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으나, 사안별로 의회 승인 시 투자가능

35. 타당성 조사

우선 베네수엘라의 외국인 투자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 및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제한분야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조세감면, 금융지원, 특정부문 또는 조건을 구비한 업체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지 정부기관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조세혜택을 받으려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산업의 하청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필히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부품조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2006년 6월 현재 MERCOSUR 국가(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와의 경제통합을 가시화하고 있어 인근 국가로부터의 부품 및 자재수입도 무세로 조달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99년 말 헌법개정으로 근로자들의 복지측면이 더욱 강화된 바 2001년 이후에는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세법, 석유관련법, 통신법 등이 개정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큰 변동이 없다. 다만, 석유 관련법이 변경되었으나 한국기업이 파악해야 되는 사항은 별로 없어 기재하지 않기로 하며 최근 논란을 벌이고 있는 투자관련법으로는 부가세 면제조항으로 이해관계자가 많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베네수엘라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국내투자와 동일시하고 있으나 언론 및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전문 직종에는 외국인 투자를 20%로 제한하고 있으며, 석유, 국유자원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정권까지는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대폭 완화하여 13개에 달하는 한계 유전의 개발권을 외국기업들에게 양허한 바 있으나, 차베스 정부 수립 이후 '99년 12월의 헌법개정을 통해 석유의 개발권은 국가만 갖도록 하였다. 또한 2006년 4월 석유를 포함한 자원 일체의 일명 국유화 법을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가 있을 시에도 자원 개발권의 지분 60% 이상을 국가가 가지게 되었다.

외국인투자가 규제되는 분야로는 국방, 석유, 철광석, 기타 천연자원 개발 및 기초석유공업, 은행, 보험, 리스업, 전문용역업(엔지니어링, 디자인, 공인회계, 변호사업 등), 보안 및 경비업, 방송, 서반아어 출판업 등으로 제한적인 외국인투자(합작비율 20%까지)만이 허용된다.

현재 정부 대 정부간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로 인해 사실상 사기업의 개인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36. 투자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가. 개요

1992.3월 개정된 대통령령 2095호(외국인 투자법)의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에 관한 각종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등록과정을 단순화하였다.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설립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 투자청(Superintendency of Foreign Investment, Superintendencia de Inversion Extranjera- SIEX)에 등록만 하면, 되며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 투자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2095호에 정해진 일부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의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는 ANCOM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금융조달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주재국내 금융시장에서 주식 및 채권발행 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대외차입의 경우 사전승인 또는 등록이 필요 없다.

나. 현지법인 설립절차

사전에 현지 변호사로 하여금 법인설립을 대행하게 함이 바람직하며,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일정치 않으므로 가격 및 서비스 비교를 위해 2-3명의 변호사를 면담 후 결정함이 바람직하다.

현지법인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 등록(Registro Mercantil)

- 사업자 등록소에서 신청 양식을 구득한 후, 회사 이름 3개를 선정, 신청 양식과 함께 사업자 등록소에 제출한다.
 - 등록소에서 동일한 이름이 없음을 확인한 후 회사이름 선택
- 정관작성 및 제출
 - 회사이름 및 주소, 사업종류, 설립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그리고 주주 성명 및 주소 등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 제출한다.
- 사업자 등록 시 사전 승인을 요하지 않으며, 등록 시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의 1%를 등록세로 납부해야 한다.

2) 납세자등록

- 사업자 등록 후 재무부 산하 국세청(Seniat)에서 납세자 등록(RIF 및 NIT)신청을 해야 한다.
 - RIF(Registro de Informacion Fiscal): 소득세 납세자 등록번호
 - NIT(Numero de Identificacion Tributaria): 판매세 납세자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 후 은행구좌를 개설함이 바람직하며, 구좌개설을 위해서는 보통 사업자 등록서(Registro Mercantil) 사본 1부 및 minimum deposit(은행마다 다름)이 필요하다.

3) SLEX 등록

- 사업자 등록 후 60일 이내 외국인 투자청(SLEX)에 등록해야 한다.
- 등록절차
 - 외환의 국내 반입 증명서류 또는 투자자의 납입 자본금의 일부로서 간주되는 재화반입 증명서(증명 서류는 bank statement 이거나 장비, 기계 등 재화 형태의 실물 투자를 입증하는 statement)
 - 회사 정관 : 투자자 본국주재 베네수엘라 영사의 공증을 받은 스페인어 번역본
 -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대표자(변호사)에 발행한 위임장(power of attorney)
 - 설립회사의 “외국인 회사(Foreign Company)” 분류신청서
 - * 외국인 투자지분크기에 따라 국내회사, 혼성회사, 외국인 회사로 분류됨.
- 회사설립 후 동 사실을 사업자 등록서 및 회사정관과 함께 반드시 대중 매체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 소요 기간: 보통 3주-6주간 소요

4) 법인 설립을 위한 법률 법인

- BENTATA ABOGADOS
 - 주소: TORRE LAS MERCEDES, PISO 2, CHUAO, 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993-9004/992-0720
 - FAX: (58-212)992-6609/992-6676
 - EMAIL: lawyers@bentata.com
 - Home page: www.bentata.com
- RODRIGUEZ & MENDOZA
 - 주소: AV. FRANCISCO DE MIRANDA, EDIF. PARQUE CRISTAL, TORRE ESTE, PISO11, LOS PALOS GRANDE, 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285-4944
 - FAX: (58-212)285-1379/284-4665
- TINOCO, TRAVIESO PLANCHART & NUNEZ
 - 주소: AV. FRANCISCO DE MIRANDA, TORRE COUNTRY CLUB, PISO1,2,3, CHACAITO, 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952-9033/953-9033
 - FAX: (58-212)953-1053/8365
 - EMAIL: ttn@ttn.com.ve
- TORRES, PLAZ & ARAUJO
 - 주소: EDIF. POLAR, TORRE OESTE, PASEO COLON, URB. LOS CAOBOS, PISO 17, PLAZA VENEZUELA, 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709-5311
 - FAX: (58-212)709-5300/5301

- DERECHO: FORMA Y FONDO
 - 주소: AV. LA ESTANCIA, CCCT PISO1, OFI. C-107 CHUAO, CARACAS, VENEZUELA
 - 전화:(58-212)959-8308/3645
 - FAX:(58-212)959-2684/2805
 - 회계법인 겸무

다. 회계 법인

- BAEZ, DASILVA & ASOCIADOS
 - 주소: CENTRO LIDO PISO 13, OFI. 131-A, EL ROSAL ,CARACAS, VENEZUELA
 - 전화:(58-212)953-5222
 - FAX:(58-212)954-0069
- C.A. URBAEZ-RIVERO-GONZALEZ Y ASOCIADOS
 - 주소: AV. VENEZUELA CON CALLE CARONI, EDIF. EL PAISA, PISO 3, URBANIZACION BELLO MONTE, PARROQUIA EL RECREO, CARACAS, VENEZUEL
 - 전화:(58-212)952-6305/5692
 - FAX:(58-212)952-5692
 - EMAIL: caurga@telcel.net.ve
- DELOITTE Y TOUCHE
 - 주소: MULTICENTRO EMPRESARIAL, LOS PALOS GRANDES, AV. ANDRES BRILLO, COM 1RA TRANSV. LOS PALOS GRANDE, CARACAS, VENEZUELA
 - 전화:(58-212)278-1211
 - FAX:(58-212)285-6960
- PEREZ- MENA, EVERTS LARIA, TORRES & ASOCIADOS
 - 주소: AV. FRANCISCO DE MIRANDA, EDIF. MENE GRANDE, PISO 2, LOS PALOS GRANDES, CARACAS, VENEZUELA
 - 전화:(58-212)209-4011
 - FAX:(58-212)285-0386/209-4381
 - EMAIL: pmeasoc@ccs.internet.ve

라. 투자방식

대 베네수엘라 투자방식은 국가간 경제협정을 통한 국제입찰, 프로젝트수주나 법인설립을 통한 개별 프로젝트 참여가 있다.

현재 한국과의 어떠한 경제협정도 맺고 있지 않아 정부 발주 대형프로젝트의 참여가 없는 관계로 무엇보다 정부차원의 경제협정체결이 시급하다.

주재국에는 삼성전자, LG 전자 등 2 개사가 지사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2000.6 월-2004.4 월: 포항제철 투자기업 POSVEN 존손 후 매각, 이후 한국의 투자기업이 없음)

37. 입지선정

□ 입지 선정 예 - 산업단지/VALENCIA 및 JOSE 공단

베네수엘라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으로는 CARABOBO주의 VALENCIA를 들 수 있다. 카라카스에서 약 200KM떨어진 VALENCIA는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항구인 PUERTO CABELLO를 인근에 두고 있어 원자재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발렌시아에는 여러 개의 공단이 자리잡고 있으며, 섬유, 자동차, 전자 등 여러 종류의 공장들이 입주해 있다. 한편, 카라카스 동부의 PUERTO LA CRUZ 항구 인근에 JOSE 공단이 조성되어있는데, 동 공단은 주로 석유화학 관련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입지 선정 시 최우선 되어야 할 점은 제조하고자 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지역을 물색한다. 농산물 가공인 경우에는 원자재의 공급이 원활한 곳, 소지재인 경우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소비처에 인접한 곳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장에 대한 혜택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정부나 시 정부를 접촉하여 마땅한 부지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현재 공장설립이 금지되어있는 곳은 카라카스 시내와 카라카스 외곽 고속도로 부근, 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정된 환경보호 지역 등이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주 또는 시정부의 허가를 얻는 경우 문제가 없다.

현재 정부주도하에 카라카스 인근지역에 철도가 신설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Valle del Tuy, Charallave 지역이 주요 공장부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38. 공장설립

가. 공장 부지의 선정

공장부지는 제조하고자 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지역을 물색한다. 농산물 가공인 경우에는 원자재의 공급이 원활한 곳, 소지재인 경우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소비처에 인접한 곳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장에 대한 혜택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정부나 시 정부를 접촉하여 마땅한 부지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현재 공장설립이 금지되어있는 곳은 카라카스 시내와 카라카스 외고가 고속도로 부근, 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정된 환경보호 지역 등이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주 또는 시정부의 허가를 얻는 경우 문제가 없다.

나. 공장 건축

공장 건축 허가는 시청에서 얻을 수 있다. 건축허가 신청에는 공장 부지의 위치, 건축 계획, 전기, 용수 및 하수 서비스 가용 증명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장건축 허가는 제출 후 30일 내에 발급되며, 30일 이내에 아무 회신이 없는 경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공장 건축이 끝나면 역시 시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는 건축 허가와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되었는지를 심사한다.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시청에서 담당하며 동 검사에는 건축허가서, 준공검사서, 토지 사용허가서, 건물 용도 설명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방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의 소방당국에 신청하며, 건물의 소방안전 시스템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6년부터 모든 공장 건축 시 소방관련 안전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상당한 벌금과 공장설립허가가 취소되기도 한다.

39. 투자관련 정부기관

□ SIEX (www.sieux.gov.ve)

- 사업자 등록 후 60일 이내 외국인 투자청(SIEX)에 등록해야 한다.
- 등록절차
 - 외환의 국내반입증명서류 또는 투자자의 납입자본금의 일부로서 간주되는 재화반입 증명서(증명서류는 bank statement 이거나 장비, 기계 등 재화형태의 실물투자를 입증하는 statement)
 - 회사 정관: 투자자 본국 주재 베네수엘라 영사의 공증을 받은 스페인어 번역본
 -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대표자(변호사)에 발행한 위임장(power of attorney)
 - 설립회사의 “외국인 회사(Foreign Company)” 분류 신청서(외국인 투자지분 크기에 따라 국내회사, 혼성회사, 외국인 회사로 분류됨.)
- 회사설립 후 동 사실을 사업자 등록서 및 회사정관과 함께 반드시 대중매체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 소요 기간: 보통 3주-6주간 소요

□ 외국인 투자유치 사무소(CONAPRI:Comision Nacional de Promocion de Inversiones)

- www.conapri.org

40. 투자관련 서비스 기관

가. 개요

대통령령 2095호(외국인 투자법)의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에 관한 각종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등록 과정을 단순화하였다.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 설립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 투자청(Superintendency of Foreign Investment, Superintendencia de Inversion Extranjera-SIEX)에 등록만하면, 되며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 투자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2095호에 정해진 일부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의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는 ANCOM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금융 조달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주재국 내 금융시장에서 주식 및 채권발행 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대외차입의 경우 사전승인 또는 등록이 필요 없다.

나. 현지법인 설립절차

사전에 현지 변호사로 하여금 법인설립을 대행케 함이 바람직하며,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일정치 않으므로 가격 및 서비스 비교를 위해 2-3명의 변호사를 면담 후 결정함이 바람직하다.

현지법인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 등록 (Registro Mercantil)

- 사업자 등록소에서 신청양식을 구득한 후, 회사이름 3개를 선정, 신청양식과 함께 사업자 등록소에 제출한다.
 - 등록소에서 동일한 이름이 없음을 확인한 후 회사이름 선택
- 정관작성 및 제출
 - 회사이름 및 주소, 사업종류, 설립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그리고 주주 성명 및 주소 등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 제출한다.
- 사업자 등록 시 사전 승인을 요하지 않으며, 등록 시 납입 자본금(paid-in capital)의 1%를 등록세로 납부해야 한다.

2) 납세자등록

- 사업자 등록 후 재무부 산하 국세청(Seniat)에서 납세자 등록(RIF 및 NIT)신청을 해야 한다.
 - RIF(Registro de Informacion Fiscal) : 소득세 납세자 등록번호
 - NIT(Numero de Identificacion Tributaria) : 판매세 납세자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 후 은행구좌를 개설함이 바람직하며, 구좌개설을 위해서는 보통 사업자 등록서(Registro Mercantil) 사본 1부 및 minimum deposit(은행마다 다름)이 필요하다.

3) SIEX 등록

- 사업자 등록 후 60일 이내 외국인 투자청(SIEX)에 등록해야 한다.
- 등록절차
 - 외환의 국내반입증명서류 또는 투자자의 납입자본금의 일부로서 간주되는 재화반입 증명서(증명서류는 bank statement 이거나 장비, 기계 등 재화형태의 실물 투자를 입증하는 statement)
 - 회사 정관 : 투자자 본국주재 베네수엘라 영사의 공증을 받은 스페인어 번역본
 -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대표자(변호사)에 발행한 위임장(power of attorney)
 - 설립회사의 "외국인 회사(Foreign Company)" 분류신청서
 - 외국인 투자지분 크기에 따라 국내회사, 혼성회사, 외국인 회사로 분류됨.
- 회사설립 후 동 사실을 사업자 등록서 및 회사정관과 함께 반드시 대중매체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 소요 기간 : 보통 3주-6주간 소요

4) 법인 설립을 위한 법률 법인

- BENTATA ABOGADOS
 - 주소 : TORRE LAS MERCEDES, PISO 2, CHUAO,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993-9004/992-0720
 - FAX : (58-212) 992-6609/992-6676
 - EMAIL : lawyers@bentata.com
 - Home page : www.bentata.com
- RODRIGUEZ & MENDOZA
 - 주소 : AV. FRANCISCO DE MIRANDA, EDIF. PARQUE CRISTAL, TORRE ESTE, PISO 11, LOS PALOS GRANDE,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285-4944
 - FAX : (58-212) 285-1379/284-4665
- TINOCO, TRAVIESO PLANCHART & NUNEZ
 - 주소 : AV. FRANCISCO DE MIRANDA, TORRE COUNTRY CLUB, PISO 1, 2, 3, CHACAITO,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952-9033/953-9033
 - FAX : (58-212) 953-1053/8365
 - EMAIL : ttpn@ttpn.com.ve
- TORRES, PLAZ & ARAUJO
 - 주소 : EDIF. POLAR, TORRE OESTE, PASEO COLON, URB. LOS CAOBOS, PISO 17, PLAZA VENEZUELA,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709-5311
 - FAX : (58-212) 709-5300/5301
- DERECHO: FORMA Y FONDO
 - 주소 : AV. LA ESTANCIA, CCCT PISO 1, OFI. C-107 CHUAO,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959-8308/3645
 - FAX : (58-212) 959-2684/2805
 - 회계법인 겸무

5) 회계 법인

- BAEZ, DASILVA & ASOCIADOS
 - 주소 : CENTRO LIDO PISO 13, OFI. 131-A, EL ROSAL,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953-5222
 - FAX : (58-212) 954-0069
- C. A. URBAEZ-RIVERO-GONZALEZ Y ASOCIADOS
 - 주소 : AV. VENEZUELA CON CALLE CARONI, EDIF. EL PAISA, PISO 3, URBANIZACION BELLO MONTE, PARROQUIA EL RECREO,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952-6305/5692

- FAX : (58-212) 952-5692
- EMAIL : caurga@telcel.net.ve
- DELOITTE Y TOUCHE
 - 주소 : MULTICENTRO EMPRESARIAL, LOS PALOS GRANDES, AV. ANDRES BRILLO, COM 1RA TRANSV. LOS PALOS GRANDE,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278-1211
 - FAX : (58-212) 285-6960
- PEREZ-MENA, EVERTS LARIA, TORRES & ASOCIADOS
 - 주소 : AV. FRANCISCO DE IRANDA, EDIF. MENE GRANDE, PISO 2, LOS PALOS GRANDES, CARACAS, VENEZUELA
 - 전화 : (58-212) 209-4011
 - FAX : (58-212) 285-0386/209-4381
 - EMAIL : pmeasoc@ccs.internet.ve

41. 노무관리

가. 개요

베네수엘라는 비교적 실업률이 높은 국가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석유 수입이 많아 사회 복지 근로자들이 험한 일을 하기보다는 실업 수당을 받고 노는 것을 선호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90년대 이후 경제가 계속 퇴락하면서 실업 수당 만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는 인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 침체로 일자리가 늘지 않아 실업률이 2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실업수당이 없어지며 최저임금을 높이면서 적극적으로 노동력을 증대시키고자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2002년, 2003년 정치, 경제 파업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위축되었으나 2004년부터 현재까지 사상초유의 고유가로 인하여 정부는 석유의 수출대금으로 정부주도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인력의 생산성은 여타 중남미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높지 못하다. 근무 시 지각율이 높고 공사간의 구별이 크지 않으며 직장에서의 이직률이 높아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인력 양성에 애로가 있다. 풍부한 인력에 비해 숙련노동자나 전문경영자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나. 임금 수준

베네수엘라의 최저임금은 467,500볼리바르(미화 약200\$)로 2006년 2월에 결정됨. 최저임금은 정부, 노동자, 기업 등 3자 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나, 합의에 실패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차베스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종전 임금을 144,000-500,000 볼리바르를 받던 근로자는 15%, 50만-70만 볼리바르를 받던 근로자는 10%의 임금인상을 결정하여 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직원의 급여인상은 회사의 사정이나 직원의 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를 정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01년도 급여 인상에 대해서도 노조에서는 20%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정부

가 이미 공무원에 대해서는 10%를 인상, 1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하여 민간부문의 최저임금도 10% 인상 선에서 결정되었다. 2002년2월 환율자유화에 따라 환율이 급등하여 물가가 상승하고 근로자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에서는 2002년 5월 1일 노동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190,880볼리바르로 확정하였다. 이후 2002년 정치 문제, 이에 따른 달러화 상승으로 2006년 현재 467,500볼리바르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1\$=2,650Bs 비공식환율)

다. 근로 조건

○ 노동시간

- 주간 근무자의 경우 주당 최대 44시간, 야간 근무자는 주당 최대 40시간, 주야간 혼합근무자는 주당 42시간이다.

○ 이익분배금(utilidades)

- 고용주는 매년 말에 당해 년도 순이익금의 15%를 근로자에 분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근로자들에 배당되는 이익금 분배액은 기 체결된 노, 사간 단체협약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저 15일 임금액에서 최고 4개월간 임금액으로 그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익 분배금은 통상 보너스의 개념으로, 공무원도 1개월~3개월 치의 이익 분배금을 지급한다.

○ 보너스

- 휴가 보너스로 1개월 치의 급여를 지불한다.

○ 휴가제도

- 1년간 근무하게 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기본적으로 주어지며, 매 1년의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 1일씩의 유급휴가가 추가되나 추가일수는 15일을 최대한도로 하여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 전 6주, 출산 후 12주의 출산휴가가 지급되며 출산 후 1년간은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복리 후생

복리후생제도로써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노동자용 식당을 구비하여 점심을 제공하며 노동자의 주택자금 확보를 위해 노동자 월 급여의 1%, 사용자가 2%씩 부담하여 주택은행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주택제도는 주로 국영기업에서 실시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는 회사가 기본급의 11%, 근로자가 4%를 부담하며, 고용보험으로 회사가 기본급의 1.7%, 근로자가 0.5%를 부담한다.

한편,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매월 교통비와 식사 보조비를 제공해야 하나 식당을 구비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업체의 경우 식사보조비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2005 현재 식사 보조비 대신으로 모든 공, 사 기업은 음식물을 살수 있는 Ticket을 발부하는 것이 의무이다. 또한 노동자의 교육의무사항으로서 사용자는 10명 이상을 고용 시 총인원의 5% 이상을 정부의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국립직원 훈련원에 위탁교육을 시킬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종업원 1,000명 이상의 기업체는 근로자 및 가족을 위해 초등학교 및 병원을 설립하여야 한다.

마. 해고절차와 조건

○ 해고통지

- 종업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1개월 이상 근무자는 1주일 전에, 6개월 이상 근무자는 15일 전에, 1년 이상 근무자는 1개월 전에, 5년 이상 근무자는 2개월 전에, 10년 이상 근무자는 3개월 전에,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사전 해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제 해고인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자는 2주일 전,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전, 1년 이상 5년 미만 근무자는 2개월 전, 5년 이상 근무자는 3개월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한다.

○ 해직수당(퇴직금)

- 1997년 6월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입사 1차년도 퇴직금은 임금의 45일분, 2차년도 퇴직금은 임금의 60일, 이후 매1년마다 2일씩 30일분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즉, 최대 90일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동 금액은 근로자가 자기 명의로 회사나 연금 재단에 예치시키되 퇴직 시 즉시 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당한 해고사유(JUST CLAUSE)에 의한 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전술한 해직 수당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한 해고사유로는 3일 연속 무단결근, 직무태만 및 고의적인 기물파손 등을 들 수 있는데, 해고통보를 받은 종업원은 노동법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결 시 해고직원을 복직시키거나 정상적인 해직수당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정당한 해고사유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실 시 구두로 경고하기 보다는 문서로 사유서를 그때그때 작성해 두는 것이 노동법정 분쟁 시 사측에 매우 유리하다.

바. 외국인 고용

'95년 5월 1일부로 개정된 신 노동법의 현지인 의무고용 관련 조항에 따르면 피고용자 10인 이상의 기업은 피고용자의 90%(과거 75%) 이상을 베네수엘라인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급여총액의 80%(과거 75%) 이상을 베네수엘라인에 지불하여야 한다.

사. 노조 결성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으며 그 활동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전체 노동자의 50%가량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며 10인 이상이면 노조결성이 가능하다. 또한 30인 이상이면 전국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부와 노동법원을 두고 있다. 전국노조연맹은 임금, 노동자복지 등을 대통령이나 전경련과 협의할 정도로 그 세력이 강하다. 노사협상은 연2회 정도인데, 노동자들은 주로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특히 주 산업인 석유 노조와 건설 노조의 활동이 강하며, 공무원, 교원도 노조가 있어 종종 파업을 일으키곤 한다.

차베스 대통령은 기존의 노조가 부패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잦은 파업으로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국노조연맹의 해체와 새로운 노조 결성을 시도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00년 12월 국민투표를 통해 노조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2001년 9월 현재 새로운 전국 노조를 구성하였으나 일반 노동자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너무 정치화되었다. 2002년, 2003년의 정치혼란을 겪으며 2006년 현재, 전국노조는 친 차베스파이며, 대통령은 이들을 위해 여러 복지혜택을 실시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 계속해서 정부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을 입법화하고 있으며 기업주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다.

42. 조세제도

가. 세제 개요

베네수엘라에서 세제를 총괄하는 부서는 재무부 산하의 국세청(SENIAT)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관세까지도 맡고 있다. 가장 중요한 세금은 소득세로 관세와 함께 조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자산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나. 법인의 소득세

법인 소득 세율은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과 세 소 득	세 율	누진 공제율
0 ~ 2,000 T.U.	15%	0
2,000 ~ 3,000 T.U.	22%	140T.U.
3,000 ~	34%	500T.U.

주 : T.U.(tax unit) : 1 T.U.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매년 조정됨.
2006년 8월 현재 1T.U.= 33,600볼리바르

- 양도 소득세 : 지방 증권거래소에서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1%의 세율이 적용된다.
- 지정 이익세 : 지정과 베네수엘라에 주소를 둔 외국법인의 대리점은 베네수엘라 법인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베네수엘라 납세자가 외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에 납부한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없으며, 베네수엘라 과세소득으로부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도 또한 없다.

법인의 소득세는 회사의 회계 년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제출된 연간 소득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서 제출 전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개인의 소득세

과 세 소 득	세 율	
	세 율	누진공제
T.U. 0 - 1,000	6 %	T.U. 0
1,000 - 1,500	9 %	90
1,500 - 2,000	12 %	135
2,000 - 2,500	16 %	215
2,500 - 3,000	20 %	315
3,000 - 4,000	24 %	435
4,000 - 6,000	29 %	635
6,000 -	34 %	935

- 세율: 거주자인 개인의 과세소득은 소득의 유형 관계없이 다음의 세율이 적용 봉급과 특별수당 같은 기타 유형의 보상은 원천징수의 대상이다. 거주자인 개인의 과세 소득에서 각종 공제와 다음의 인적 공제가 허용된다.
 - 납세자: 10 T.U.
 - 배우자와 거주자인 각 부양가족: 10 T.U.
-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법인의 소득세와 동일하게 외국 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없다. 과세 기간은 주요소득이 급료와 임금, 전문가 보수, 사용료, 이자, 기타 소득으로 이루어진 개인은 역년 기준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며, 주요 소득이 상업·산업활동, 농업, 가축사육과 어업, 광업활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계 년도 기준으로 신고서를 제출한다.

다. 비거주자의 소득세

- 납세의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다른 방법으로 과세되는데, 비거주자는 과세 년도 동안 베네수엘라에서 180일 또는 그 이하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자를 말한다. 전 과세 년도의 거주자는 현 과세 년도에 베네수엘라에서 180일 또는 그 이하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도 조세 목적 상 거주자로 남는다.
- 원천징수세율: 다음의 균일세율이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법인이 베네수엘라에서 획득한 소득에 적용된다.
 -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급료와 기타 보상: 34%
 - 베네수엘라에서 제공된 비상업적 전문 용역에 대하여 비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과세소득은 총 수입의 90%): 34%
 - 비거주자인 보험회사의 보험료 소득(과세소득은 베네수엘라 원천으로부터의 순 수령액의 30%): 10%

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은 '99년 5월 각료회의에서 승인되어 '99.6.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로써 기존의 사치, 도매세 (ISVR: 16.5%) 와 고가사치품에 대해 적용되던 10-20%의 특별소비세는 폐지되고 부가세로 통일되었다.

-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8-16.5%의 범위에서 매년 조정이 가능한데, 최초에 15.5%에서 2000년 8월부터 14.5%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후 2002년 16%로 상향된 바 이어 2004년 9월 15%, 2005년 9월 1일 관보로 현재 14%로 하향 되었다. 그러나 30,000USD 이상의 고급 자가용이나 500cc이상 오토바이, 헬리콥터, 비행기 등의 수입품 판매에는 24%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어 있다.
- 면세대상품목: 쌀, 달걀, 커피, 버터, 마아가린, 설탕, 우유, 소금, 고기, 옥수수 등의 식품류, 의약품, 학교기자재, 공공보건 및 의료기자재, 상하수도, 전기 등은 과세가 면제된다. 자유무역지대인 마르가리타 섬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마. 금융 거래세

베네수엘라는 부족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99년 5월 14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금융 거래세를 적용하였었다. 금융 거래세의 세율은 0.5%로 당좌예금, 저축예금, 요구불예금, 각종 유동성자금 및 신탁예금 계좌로부터의 자금인출, 제 3자에 의한 각종 환어음, 약속어음, 신용장 등의 현금결제,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의 회수, 청산, 양도 결제 및 금융기관의 대출, 은행간 대출, 은행 보증수표의 결제, 이자지급 등 거의 대부분의 금융 활동에 부과되었다. 그러나 은행 및 상공인의 반발로 2000년 5월부터 폐지되었으나 정부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하여 2002년부터 부활했다.

바. 법인 자산세

소득세와 동일한 회계 년도 동안에 어떤 종류의 상업활동에 관련하여 베네수엘라에 소재한 유형·무형자산 액면가액에 대하여 최소 1%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과세기준은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조정된 유형·무형 자산 가액의 순 평균액이다. 국세청이 논란 가운데 자산세를 2002년부터 1.7%로 인상하였다

사. 지방자치 면허세

지방자치 면허세는 베네수엘라 자치도시 영토관할 안에서 상업적, 산업적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부과된다. 매년 신고에 의하여 보고된 회사의 총수입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은 사업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세율표에 의하여 자치당국에서 정한다.

세율은 0.25~10%로 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하며, 대부분의 경우 0.5% 또는 그 이하이다. 자치당국에 따라서는 정액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아. 천연 자원세

국영석유산업에는 개발세와 기타 조세가 부과된다. 광업운영은 보통의 소득세에 추가하여, 특정품목을 채광하는데 따라서 다양한 여러 가지 조세가 부과된다.

자. 토지와 재산세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르나, 부동산 세금은 비교적 소액이다. 가격이 Bs 500,000이상의 부동산 양도인 경우, 양도가액에 대하여 1%의 부동산 양도 수수료가 부과된다.

차. 자본세

완전히 응모된 수권자본은 1/1,000의 비율로 과세된다. 자본세는 등록에 대하여 부과되며, 베네수엘라에 등록된 외국 법인의 지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43. 외환관리

가. 외환관리제도

베네수엘라는 2003년 2월 6일부로 외환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 현재 1USD=2,150볼리바르(정부공식환율) 차베스 대통령은 2월 5일 밤 외환규정 1호 및 2호를 통해 발표한 외환통제는 2003 12월 2일부터 실시된 총파업으로 석유생산이 중단되고 외환도피가 급증, 볼리바르화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다.

외환통제 하에서 개인을 포함한 기업은 외환의 사용을 위해서는 정부(및 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환규정 1호

- 베네수엘라에 유입되는 모든 외환은 중앙은행(BCV/Banco Central de Venezuela)에 집중하며 중앙은행은 모든 외환통제 법규를 관장
- 외환통제 관련법규의 구체적 운용은 5인으로 구성된 외환운영 위원회(Cadivi/Comision de Administracion de Divisas)에서 담당
- Cadivi는 외환의 신청, 등록 및 승인 절차를 마련하며 부정의 증거가 있을 시 절차의 중단
- 중앙은행은 필요 시 정부와 협의, 환율조정 가능하며 가용외환 확보 시에만 외환 판매
- 모든 자연인 및 법인은 자신이 구득하는 모든 외환을 사전 지정된 환율로 중앙은행에 매각
- 관련법령 발표 시까지 외환표시 외채증서(일명 Brady 증권)의 매입매각 금지
- 정부 명의로 체결된 국제규약 및 계약은 신규 외환법령의 우선적 적용 대상
- 공공기관의 채무지급 및 긴급 식품/보건 관련물품 구입용 외환은 Cadivi 절차 없이 중앙 은행이 직접 외환 배정
- 불법 외환거래 처벌을 위한 외환형사법(Ley Penal Cambiaria) 국회 상정

□ 외환규정 2호

- 정부와 중앙은행은 달러화 매입환율 U\$1=2,144Bs, 매각환율 U\$1=2,150Bs로 정함

나. 불법 외환 통제법(05,10,14) 요약

입법 9.5, 공표9.14로 정부 Gaceta(관보) 38272호를 통해 10.14일부로 입법화된 내용을 발효함.

제 1조 - 동법은 베네수엘라의 불법적인 환전과 그에 상응하는 거래를 구속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제 2조 - 동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① Divisas: 베네수엘라에서 합법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써 동전, 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화되는 서류, 유가증권 등 모든 것을 지칭함.

- ② Operador Cambiario: Divisas 수수, 송금 등 거래를 통하여 수수료 등의 이익을 수취 하면서 중앙은행, 정부, 입법기관 등 베네수엘라 국가에 등록된 모든 기관 및 종사자
- ③ Autoridad Administrativa Competente Designada por el Ejectivo Nacional en Materia Cambiaria: 베네수엘라 정부에 의해 지정된 합법적인 외환거래기관으로 국가는 Cadivi(La Comision de Administracion de Divisas)를 동 기관으로 지정함.

제 3조 - 동법은 자연인, 법인 등 모든 거래당사자를 구속하며 동법에 의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 거래당사자, 지시자, 보조자, 해당법인 등 관련인사 모두가 적용된다.

제 4조 - 자연인, 법인 등은 베네수엘라 영토 내에 있는 동안 미화 10,000불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외환관리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 동 법에서 예외적으로 적용 받는 경우는 18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이나 관광객이며 베네수엘라 국가에서 허용된 기관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는 동법에 외국인이라도 적용을 받는다.

제 5조 - 재화가 아닌 자산, 서비스 등 거래라도 미화 10,000불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중앙 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개시 후 15일 전까지 신고가 유효하며 그 이후는 거래가 불법 이며 당사자는 동법에 적용 받는다.

- 예외 되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 국가, 국가가 지정한 기관
 -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
 - 중앙은행에서 지정한 거래
 - 탄화수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조직법에 의해 지정된 회사

제 6조 - 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미화 10,000-20,000불까지 허가 받지 않은 거래가 있는 경우 벌금으로 베네수엘라 화페(Bs, 볼리바르)로 거래금액의 2배를 부가하며 미화 20,001불 이상 거래 시에는 2-6년까지 징역형에 처하며 합법적인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2배를 부과 한다.

제 7조 - 사기, 부정에 의한 거래, 위조 등을 통해 외환을 환전하는 겨우 3~7년까지 징역 형에 처하며 거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사기, 부정, 위조 등을 통해 거래하는 선의의 피해자도 무죄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감형한다.

제 8조 - 거래자가 합법적으로 거래할 경우 승인된 금액을 초과하고 자기의사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3-7년의 징역형에 처하며 2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9조 - 통상적인 불법 환전행위가 아닌 전자거래, 환치기, 3국간 거래, 카드를 통한 환전 등 불법환전 의지가 높고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였을 경우라도 동법에 의해 처벌을 받으며 벌금은 3배로 배증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 10조 - 공무원, 공직자 등이 불법 외환거래를 지원하거나 도움을 주었을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 11조 - 동법의 발효와 동시에 불법적인 외환거래가 있는 경우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며 유죄로 판결날 경우 동법의 처벌규정을 적용한다.

제 12조 - 자연인, 법인, 개인기업, 공공기업 등은 중앙은행, 국세청, 은행감독원, 외국인 투자청, 보험감독원 및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지시할 경우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 13조 - 동법에 적시된 처벌조항은 기본적으로 3년을 기한으로 규정하며 형법(刑法)에 따라 계산한다.

제 14조 - 재화, 서비스, 자산 등 화폐로 환산되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동법을 적용하며 적용 받는 당사자는 자연인, 법인 등 거래 관계자 모두를 지칭한다.

제 15조 - 제 4, 5조의 의무인 외환거래 행위의 신고를 행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부정신고, 서류조작, 위조 등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거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 16조 - 수출자가 중앙은행에 총액을 누락시키거나 일부만 신고하여 불법성이 발견된 경우도 동법을 적용 받아 거래금액의 2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7조 - 베네수엘라 정부는 관계기관을 정하여 부당 외환거래의 따른 제재, 벌금부과 등을 할 수 있으며 동법에 따라 정부에 의해 지정된 관계기관의 행위는 정당하다.

제 18조 - 정부에 의해 지정된 기관은 외환거래의 합목적성과 불편부당함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제 19조 - 동법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심사는 정부에서 지정된 기관에 구두통보 또는 서면 제출시 개시된다.

제 20조 - 외환거래 위반이 복합성을 가지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중복되어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관계기관이 사안마다 또는 원인마다 심사하여 징계한다.

- 석유공사(PDVSA)의 모든 외환수입은 출처에 관련 없이 중앙은행에 매각
- 민간기업의 적법하게 등록된 수입 및 외채 지급용 외환은 Cadivi의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구입 가능
- 외교사절단에 대한 외환운영은 국제관행에 준함

다. 외환 관리방침

지난 2월 6일부터 외환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외환통제 실무기관인 외환관리 위원회(Cadivi)의 규칙 제1호를 통해 향후 적용될 수입용 외환관리 방침을 밝혔다.

사전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2월 7일 긴급 발표됨에 따라 향후 많은 부분이 보완돼야 할 이 규칙은 21개조로 구성돼 있는데, 요약하면 중앙은행은 향후 수입용 외환 배정계획을 작성, Cadivi에 통보하며 Cadivi는 이 계획에 따라 수입상의 수입용 외환 사용승인 신청을 판단,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수입상은 승인일로부터 120일 내에 L/C 개설부터 통관까지를 마쳐야 한다.

수입대금 결제는 통관 완료 후 은행이 수입상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실제 수입에 소요된 금액을 산정, 중앙은행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외환을 배정받아 이뤄지게 된다. 통관 이전에 수입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Cadivi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지화(Bs) 보증금도 예치해야 한다.

이번 발표된 수입용 외환관리 규칙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환관리시스템사용자 등록(Rusad/규칙 제1, 2조)

모든 수입자는 Cadivi에 "외환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Rusad/Registro de Usuarios del Sistema de Administracion de Divisas)을 하여야 수입용 외환을 사용할 수 있음.

Rusad 신청은 Cadivi 지정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

- 법인의 경우
 - 상업등기
 - 적법하게 등록된 최근 주주총회 의사록 및 현행 정관
 - 납세자 정보 등록증(RIF)
 - 법적 대표자 또는 관재인의 신분증
 - 최근 3회의 소득세 신고서
 - 영업허가서
 - 최근 3회의 수입 신고서
 - 최근 3회의 부가세 신고서
 - 최근 사회보장세 납부증명서
 - 최근 INCE(직업훈련학교)세 납부증명서
 - 최근 재산세 신고서
 - 지방세 신고서
- 자연인의 경우
 - 신분증 또는 여권
 - RIF
 - 최근 재산세 신고서
 - 최근 3회의 수입 신고서
 - 현행 법률에 따라 상기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음

관련서류가 적법하게 갖추어 졌을 경우 Cadivi는 수입자 등록증(Certificado de Registro de Importador)을 발급함. 이 등록증은 현행 외환제도 하에서 수입활동 수행에 필수적 요소임.

2) 수입용 외환사용 승인 신청(제3, 4조)

Rusad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수입자는 Cadivi에 수입용 외환사용 승인(Autorizacion de Adquisicion de Divisas para Importacion)을 신청함.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음. (상기 신청은 매 수입 별로 이뤄져야 함(제12조).)

- 신청서
- 구매주문서(Orden de Compra) 사본
- 견적송장(Factura Pro forma) 사본
 - 견적송장에는 운임, 보험, 수수료 및 기타 수입관련 비목이 분명하게 명기돼야 함.
- 보증서(Fianza) 원본
 - 수입자가 수입화물의 선적 또는 서비스 계약체결 전에 전부 또는 일부의 금액을 사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자가 주 수입품목이 아닌 특별품목 수입시에는 "예외적 외환사용 승인 신청"(Solicitud de Autorizacion de Adquisicion de Divisas para Casos Especiales)을 하여야 함(제5조).

3) 수입용 외환사용 승인(제6, 7, 8, 9조)

Cadivi는 중앙은행이 설정한 외환배정 계획,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기본지침 및 정책 등을 고려, 외환사용 승인 신청을 판단함.

- 보증서(Fianza)가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
- 수입자는 외환사용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수입화물의 출발지에서 화물의 발송 또는 선적을 요청해서는 안되며 또한 서비스 구입계약을 체결해서도 안됨. 단, 보세창고에 입고되는 화물은 예외임(관련규칙 제정 예정).

수입용 외환사용 승인은 기명으로 하며 양도될 수 없음. 승인일로부터 120일간 유효함.

- 이 기간 내에 수입물품 통관 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함.
- Cadivi는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동 기간 연장 가능
- 외환사용 승인신청 명의인이 하수인(荷受人)이어야 함.
- L/C 개설도 외환사용 승인 후에 가능

4) 수입물품 세관도착 통보(제18조)

수입자는 수입물품이 세관에 도착하면 동 사실을 Cadivi에 통보해야 하며 Cadivi는 적절한 시기에 배정외환의 적법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물리적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관련절차는 향후 Cadivi 제정)

5) 통관서류 은행 제출(제19조)

수입물품의 통관 종료 후 수입자는 다음의 서류들이 첨부된 통관관련 서류를 지정된 은행에 제출함.

-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수입비목이 명시된 상업송장 및 첨부서류
- L/C 결제인 경우 L/C에 명기되어 있는 서류 사본
- 신용거래인 경우 수입자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 사본 / 공개계정(cuenta abierta)에 의한 수입인 경우 지급방법이 표시된 공급자 발행서류
- 기타 Cadivi가 경우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

서류접수 은행 또는 금융기관은 상기 서류의 사본을 원본과 대조 후 사본에 도장을 찍고 서류 접수자의 서명을 함.

6) 외환구입 수속 진행(제20조)

상기 서류의 접수 은행 또는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제 수입대금 결제에 사용할 외환 금액의 구입 수속을 진행함. (실제 사용할 금액 산정 시 수입자와 외국 공급자간 사전 협의된 기간 및 외환구입 승인서의 예상기간을 반영)

은행 또는 금융기관은 은행 근무일수 기준 5일 이내에 접수서류를 Cadivi에 송부함. (접수 서류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컴퓨터 자료도 동시 송부)

라. 기 타

1) At sight 결제 시 보증금 납부(제10조)

At sight 결제의 경우 수입자는 Cadivi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화물통관 이전에 외환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금액만큼 볼리바르(Bs)화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이 보증금은 수입자가 관련기관의 외환 적법사용 증명서(Certificado del Correcto Uso)를 받은후 환불됨. (Cadivi는 보증금 제도의 운용을 위한 관련조건 및 법규를 제정)

의료, 문화, 인도주의적 물품과 서비스의 수입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부의 예외 인정 (수입 금액, 물품 및 서비스의 종류, 기타 국익 차원에서 고려 가능한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예외 여부를 결정)

2) 분할선적 등의 금지(제11조)

분할선적 및 수입화물의 분할은 인정되지 않음.

단 수입화물의 성질상 그러한 방식으로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나 사전 Cadivi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재수출 또는 반송(제13조)

현행 외환규정에 의해 외환을 배정받아 내수용으로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개량 또는 변형 하지 않고 재수출 또는 반송할 경우에는 향후 Cadivi가 제정할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함.

4) 하자 보상금의 매각(제14조)

현행 외환규정에 의해 배정받은 외환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발생한 하자 - 미인도, 분실, 상실, 감소, 해손, 손상 등 - 로 인해 수입자가 보상받은 외환은 외환의 획득시점부터 은행 근무일수 기준 5일 이내에 지정 은행 및 금융기관을 통해 지정 환율로 중앙은행에 매각해야 함.

5) 수입물품 관련정보의 일치(제15조)

수입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수입자가 제공한 정보는 외환사용 승인서에 명기된 내용과 일치해야 함. 불일치 시 Cadivi는 외환사용 승인 취소, 외환지급 중지,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의 집행 등의 조치를 취함.

6) 미사용 외환의 포기 신고(제16조)

물품 및 서비스의 수입을 위해서 사용된 외환이 외환사용 승인서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수입자는 나머지 미사용 금액에 대한 포기 신고서를 Cadivi에 제출해야 함.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동 사실을 Cadivi에 통보하고 중앙은행에 대해 실제 수입에 사용된 금액만큼만 외환을 요청함. 동 금액은 본 규칙 19조에 명시된 수입자의 제출서류에 의해서 결정됨.

7) 내국 운송(제17조)

Cadivi는 수입물품의 내국 운송에 대한 규정을 제정함.

8) 비상상황 발생시(제21조)

Cadivi는 본 규칙에서 예상하지 않은 상황 발생 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이러한 경우 수입자는 "예외적 외환사용 승인신청서"(Solicitud de Autorizacion de Adquisicion de Divisas para Casos Especiales)를 통해 외환사용을 신청하여야 함.

44. 이주정착 가이드

가. 현지 생활여건

1) 한국식품 조달여건

현지 유일의 한국식품점인 LOTTE MARKET에서는 한국식품과 일본식품을 한국인, 일본인, 현지인을 대상으로 팔고 있으며 동 품들은 대개 3개월에 한 번씩 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베이스로 수입되고 있다. 한국인들이 기호로 하는 각종 가공식품들의 구입이 가능하나 판매가격은 달러의 상승으로 한국 내 판매가격보다 3-4배에 이르는 고가이다.

○ LOTTE MARKET 주소

- RES. ALCOMA LOCAL 7 Y 8, AV. 2DA C/3RA TRANSVERSAL LOS PALOS GRANDE, CARACAS
- 전화 : (58-212)285-2957

또한 중국식품 가게가 1곳 있어 동양식품을 팔고 있는데 동가게 주변 중국회관 내 공터에서 매주 일요일 새벽(5시-8시) 중국시장이 열린다. 이 시장을 이용하면 두부, 부추, 무등의 식품과 라면, 한국산 스낵, 쌀 등을 가게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한국, 일본사람들이 먹는 쌀은 주로 캘리포니아산 쌀인데, 수요가 작기 때문에 수입되는 물량이 작아 품귀 현상을 빚는 경우가 많다. 김치를 담그기 위한 배추는 몇몇 슈퍼(특히 Altamira에 있는 슈퍼 Patio, la plaza, Cada)에서 구입이 가능하나, 가격이 비싸 한국교민들은 김치가 아니라 쉰치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인의 수요증가로 한국인들의 거주지역의 슈퍼마켓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한국사람만 먹는 고춧가루, 한국 된장 등 기초 식품은 파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접 조달해야 한다.

2) 생필품 구입

대부분의 상품은 구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가격은 질에 따라 차이가 심하다. 최근 달러화의 영향으로 한국물가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편이다.

슈퍼 체인이 주택가 부근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장 보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 또 화란계 할인 매장인 MAKRO가 카라카스에만 2군데 있어 대량으로 사는 경우 MAKRO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단, MAKRO는 카드 발급제로 운영되기에 사전 카드를 발급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 이외에 대형 슈퍼 체인으로 EXITO도 운영한다.

3) 의료 시설

□ 병원

의료시설은 종합병원, 소규모 병원, 의원 등 비교적 많은 편으로 그 진료의 수준도 꽤 높은 편이다. 1회 진료비는 \$20전후이나,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비싸다. 분만비의 경우에도 정상분만에 약 미화 2,000\$이 소요된다.

일반 병원은 토요일은 진료를 안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평일에도 오후 5시경에는 진료가 종료되는 관계로 응급 시에는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해야 한다. 응급실에 갈 경우 미리 진료비의 일부(약 100\$ 정도)를 예치해야만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침 시술소도 수도권에 1군데가 있다.

□ 의료보험

예산부족 등으로 국공립 의료체제가 불비되어 있어 국민의 대부분이 적시에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의약품 및 의사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까지도 야기된바 있다. 따라서 중산층 이상은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고 있다.

의료보험이 일반 보험회사의 상품이다 보니 보험의 종류가 대단히 많다. 최고가액, 최저 커버 금액, 포함되는 질병의 종류, 미리 돈을 내고 후에 환불 받는 것, 보험회사가 직접 병원에 납부하는 것 등 보험회사의 상품과, 보험회사의 서비스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여러 상품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 약국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 이름만 대면 약을 판매한다. 감기약이나 설사약, 해열제 등은 슈퍼에서도 구할 수 있다. 감기약으로 NIPE, SINUTAB, CONTACT 600, 해열제는 TACHIPIRIN, TEMPRA 두통약은 ATAMEL, PARCEL, 소화제는 FESTAL, MAALOX, PANKREON 등을 많이 쓴다.

대형체인 약국을 주로 찾는데 대표적으로 유태인계의 LOCATEL, FARMATODO, FARMA OFERTA, FARMAHORRO 등을 볼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약들은 대부분의 서양 약들이 그렇지만 용법과 용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살 경우 약 뚜껑에 용법과 용량을 적어 놓아야 후에 그 약을 다시 사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약은 있는데, 어디에 썼던 것인지, 어떻게 먹던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현지에서 병이 나는 경우 한국약 보다 현지약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특별히 약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한국에서 많이 쓰는 웨스탈, 카네스텐 연고, 잔탁, 탈시드, 마데카솔 연고 등은 똑같은 이름으로 이곳에서도 구할 수 있다.

단지 한국적인 약, 예를 들어 청심환, 기응환, 정로환 등 한방약과, 파스 종류는 한국에서 가져오는 것도 좋다.

4) 레저 여건

카라카스 시내에 관광거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 자체가 문화와 역사가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주민들은 주말에 AVILA산을 등반하거나 해안을 찾는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 유명 쇼핑몰의 게임장이나 쇼핑몰내의 놀이동산을 찾는다. 한 기구를 탈 경우 약 1US\$의 티켓을 내야 한다. 카라카스에서 4시간 가량 나가면 카리브해의 깨끗한 수질을 바탕으로 한 해수욕장들이 있어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골프는 회원이 아닐 경우 치기가 쉽지 않은데 회원의 경우라 하더라도 1명씩만 초대가능할 정도로 모든 것이 회원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카라카스 시내의 골프장은 4곳이나 이들의 회원권은 \$5만 달러 이상의 고가이며 동양인들이 회원이 되는 데는 제약이 많다. 카라카스 시내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산악지대에 자리잡은 JUNKO GOLF CLUB은 비교적 저렴한 1만5천 달러 내외의 가격으로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 관계로 한국인이나 일본인들의 이용도가 높다. 그러나 이 클럽도 동양인들의 증가를 막기 위해 동양인들이 베네수엘라인으로부터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을 인정치 않고 있어 동양인들은 동양인들끼리만 거래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비회원들의 GREEN FEE는 \$75 정도로 비싸며 캐디 FEE는 \$18 전후이다.

5) 치안 상태

베네수엘라에 거주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의 하나이다. 특히 최근 들어 경제가 나빠지면서 큰 빌딩의 사무실이나 상점, 은행들에 대한 도난사고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지 경찰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일단 발생한 사건의 해결 비율은 지극히 낮은 실정이다.

또한 인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강하며 불법무기소지자들도 많은 관계로 항상 주의를 요한다. (카라카스 시내에서만 1주일에 약 40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빈민들이 사는 지역이나 도시내의 슬럼화한 지역은 각종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야간은 물론이고 주간에도 출입을 금하는 것이 좋으며 항상 동양인은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점을 염두에 두어 시골로의 단신 여행 등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급적 현지 불량배들과의 시비를 피하고 돈을 요구하면 주는 것이 좋다. 야간에 차를 운전할 경우에 신호등이 적색등이라도 반대편의 차량이 없으면 무시하고 달리는 것이 좋다. 가끔 신호대기 차량에 충돌을 들이대고 차를 빼앗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차량의 도난이 많은 곳으로 2000년에 분실 또는 강탈당한 차량이 무려 45,000대에 달한다. 2000년도 신차 판매가 15만대 정도였으므로 자동차 도난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 주차는 항상 주차장 등 안전한 장소에 하는 것이 좋다.

6) 한국인에 대한 인식

초창기 베네수엘라에 정착한 중국인들이 하급의 허드렛일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들이 많은 중국식당을 운영하며 기반을 갖추고는 있으나 이러한 초기 인식이 아직도 현지인들에게 남아있어 동양 사람들을 볼 때 국 별 구별 없이 CHINO(중국사람)라고 칭하며 비하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최근 한국산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시장침투 확대로 일정 층 이상의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상이 새로워지고 있으며, 2002년 월드컵 이후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2006년 월드컵, 삼성, LG, 현대, 대우, 기아 등의 한국기업으로 인해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다.

나. 이주정착가이드

1) 사증(visa) 취득

□ 일시 거주 사증

단기간이라도 영리활동을 할 경우 일시 거주 비자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상용 일시 거주 비자(transeunte de negocio, business transient visa)와 일반 일시 거주 비자(regular transient visa, transeunte regular) 2종류가 있다.

□ 상용사증(단기 또는 장기 출장 시)

해외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만 발급하며, 영사의 재량에 따라 도착 일시로부터 120일 또는 1년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나, 주재국내에서는 갱신이 불가능하다.

사증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최소 1년간 유효한 여권
- 사진 4장(4 X 4cm)
- 사업목적을 명시한 서한

동 비자는 ID카드(Cedula)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계약 등 영리 활동이 허용된다. 그러나 주재국 출국 전, 사증소지인은 소지인이 소속된 회사가 소지인의 주재국 체류기간에 생긴 소득에 대한 20%의 원천징수액(income withholding tax)을 납부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 일반 일시 거주 사증

1년간 유효하며 반드시 주재국내 제3자가 이민청(ONIDEX)에 입국신청서(Solicitud de ingreso, request for entry)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DEX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신청자가 지명한 해외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승인 사실이 통보된다. (신청→ONIDEX→외무성→해외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발급대상자 통보)

일반 일시 거주 사증은 회사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주재국 노동부로부터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서한으로 고용 관계를 입증해야 함. 신청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비해야 함.

○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구비사항

- 입국신청서: 동 신청서에 회사명, 주소, 주재국 내 영업활동 개시일, 회사정관, 사증신, 청직원의 직위 및 국적 등 관련 세부사항을 기재함.
- 회사의 납세자 등록번호(RIF, NIT), 사업자 등록 서류(Registro Mercantil), 고용 계약서(베네수엘라 내에서 공증받아야 하며, 회사 관계자가 서명)
- 사증신청인 및 그 가족의 상세한 인적 사항, 정면 및 측면사진 각 2장 (4 X 4 cm), 여권사본 2부.
- 가족관계: 베네수엘라 영사확인 결혼증명서 및 자녀출생증명서
- 수입인지세: 42,000 볼리바르(약 20불)
- 해외주재 해당 베네수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 주소
- 신청인의 의료검진서

경우에 따라서 최근 5년간 거주한 지역의 관할경찰서로부터의 범죄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요구하거나 재정 또는 사업설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주재국 교육부에 등록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재학증명서 등 자녀의 학교관련서류를 베네수엘라 영사 확인을 해놓을 필요가 있음.)

○ 가족동반을 위해 개인이 신청할 경우

- 입국신청서: 가족을 위한 사증을 신청하는 개인의 상세한 인적 사항
- 신청인의 봉급명세서, 납세자 등록번호
- 고용증명서 및 고용증명서의 회사 서명권자 ID카드 사본 1부.
- 은행잔고증명서
- 수입인지세: Bs 42,000(약 20불)
- 사증발급 대상자(가족)의 상세한 인적 사항

□ 거주사증(resident visa)

일반적으로 일시 거주 사증을 갖고 3년 연속 체류 시 거주사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민청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필요 체류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 거주사증 신청을 위한 구비 사항은 일시 거주 사증의 갱신의 경우와 동일하다.

□ 사증 변경

관광사증을 일시거주사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사증변경신청서(cambio de visa)로 신청해야 하며, 약 10일이 소요되는데, 여행사 또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 사증변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사항이 요구된다.
 - 사진 2장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수입인지세: 42,000 볼리바르(약 20불)

□ 사증의 갱신

일시 거주 사증은 반드시 매년 갱신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갱신신청서(solicitud de renovacion)
- 최소 6개월간 유효한 여권
- 사진 2장(4 X 4 cm)
- 수입인지세: 42,000 볼리바르(약 20불)
- 고용증명서
- 고용증명서에 서명하는 회사관계자 ID카드 사본(필요 시)

신청일로부터 약 20일(working days)이 소요되며, DEX는 오후 1:30-3:30간에만 신청서를 교부한다. 여행사 등을 이용할 경우 약 10일이 소요된다.

□ 사증 이전

일시 거주사증 또는 거주사증 소지인의 여권이 만료되거나 여백이 없어 새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신 여권에 사증이 이전된다.

- 사증 이전을 위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Solicitud de recuento)
 - 사진 2장
 - 신, 구 여권
 - ID 카드 사본 1부
 - 수입인지세: 63,000볼리바르(약 30불)

2) ID카드(Cedula) 발급

ID카드는 일시 거주 사증 소지인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1년간, 거주사증 소지인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일시 거주 또는 거주사증 취득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2개월 이후에 신청할 경우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ID카드 신청 또는 갱신 시 ID번호 및 지문을 날인한 신청 증명서(comprobante)가 주어지며, ID카드 발급 때까지 동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현행법규에 따르면 9세 이상의 국민은 항상 ID카드 또는 임시카드를 소지하도록 되어있다. 동 증명서, ID카드 및 사증사본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D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유효한 사증이 포함된 유효여권
 - 사진 2장
 - 소지인의 사진 및 사증이 들어있는 여권란 사본 각각 2부.
- ID 카드 갱신 시에는 ID카드 사본1부 및 여권사본1부 필요하며, 분실 시에도 동일하다.
 - 수입인지세: 갱신 시 120,000볼리바르(60US\$)
- ID 카드의 신청은 이민청에서 하는바, 주소는 다음과 같다.
 - 이민청 카라카스 사무소
 - 주소: Centro Comercial Plaza Las Americas, Piso 4, El Cafetal
 - Tel : 985-4451
 - 근무시간: 오전 7:30-12:00, 오후 1:00-4:00
 - 이민청 본부
 - 주소: Plaza Caracas, El Silencio
 - 근무시간: 외국인의 경우 오전 9:00 부터 15:00 까지

3) 주택 물색

베네수엘라의 주택사정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또한 치안문제를 고려, 비교적 상류층이 밀집해 사는 곳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선택의 범위도 또한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통상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은 구 주택가인 Altamira, Sebuca, Palos Grande, Santa Fe 지역과 신흥주택지역인 Valle Arriba 지역을 들 수 있다. 주택임차료는 상급 고급주택가인 경우 대단히 비싸 방 2개에 30평 정도의 집은 월세가 1,500\$에서 2,000\$ 정도는 주어야 한다. 또한 이들 지역은 작은집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통상 60평 이상의 집들이 많은데 이러한 집들은 월세가 3,000\$을 넘는다. 2002년과 2003년 정치문제와 경제문제를 거치며 외국인들은 물론 내국인들도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집을 구하기도 쉽고, 임차료도 다소 하락해 있는 상태이다.

가구가 있는 주택인 경우 규모에 따라 다르나 통상 300\$에서 1,000\$은 더 주어야 하는데, 가구가 없는 집일 경우에도 부엌 가구(가스 또는 전기 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정도는 딸려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가구들이 대개 부엌에 붙박이 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사를 할 경우 크기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 부촌에 위치하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월세가 3,000\$ 이상 들며 또 별도의 경비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아 별로 권장할만하지 못하다.

집을 구하는 방법은 통상 부동산을 통하게 되는데, 신문 광고도 대부분 부동산회사에서 게재하고 있다. 직접 집주인과 접촉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부동산을 통할 경우 중개료로 1개월 치의 월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미화 계약이 일반적이며, 통상 베네수엘라에서는 아파트 관리비는 집 주인이 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시 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집을 계약하게 되면 통상 2개월 치의 보증금을 요구하는데, 이는 나중에 집을 비울 때 원상복구를 잘 해놓지 않는다든지, 공과금을 완납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세입자가 완벽하게 해 놓았다고 자부해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집주인이 가진 트집을 잡아 변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할 때는 집의 상태와 가구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여 훗날 집을 비울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다. 자녀 교육여건

1) 자녀 교육 여건 및 공통 사항

카라카스에는 한인 학교는 없으며, 외국인이 보낼 수 있는 학교로는 현지 사립학교와 외국인 학교를 꼽을 수 있다. 국, 공립 학교의 경우 인구 80%가 빈민층인 관계로, 학교 수준이나 학생들의 질, 학교 시설 등이 형편없다. 그리고 한글교육을 위해 한인 교회에 토요 학교가 설치되어 토요일 오전 수업을 하고 있다.

현지 사립학교의 경우 일단 결원이 있어야 하나, 좋은 사립학교는 입학대기자가 많아 들어가기 쉽지는 않다. (베네수엘라 부유층들은 아이가 출생하면 유명 사립학교에 입학 신청부터 해 놓는다고 함) 또한 현지 학교에 입학하려면 문교부에서 실시하는 수학 능력 고사를 치러야 하는데, 외국인 학생이 스페인어로 출제되는 시험을 통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인 자녀는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카라카스에는 3개 외국인학교가 있으며,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입학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나, 교육비는 상당히 비싼 편이다. 또한 학교 선택은 주택 임차와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카라카스는 교통 체증이 심한 도시로 주택과 학교가 멀 경우 학생, 특히 어린 학생일 경우 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 또한 스쿨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여러 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픽업하기 위해 빙빙 도는 수가 있으니, 이 점도 고려 해야 한다.

학교의 학제는 가을 학기 시작으로 통상 8월에 시작하여 다음해 6월에 끝난다. 외국인 학교의 경우 유아원부터 시작 12학년까지 있는데, 9월을 기준(미국학교는 9월 30일, 영국 학교는 9월 1일 기준)으로 만 3세가 넘으면 유아원(Nursery)입학이 가능하며, 만 4세는 유치원 예비과정(Pre-Kinder), 만 5세는 유치원(Kinder)에 입학이 가능하고, 만 6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이 가능하다. 보통 1-5학년은 초등학교, 6-8학년은 중학교, 9-12학년은 고등학교 과정이다. 단 영국학교의 경우 미국계 학교보다 나이가 1살 낮아 만 5세에 초등학교 과정이 시작된다.

학교의 교복은 베네수엘라 전체가 통일되어있으며, 외국인 학교도 동일하다. 상의는 폴로 셔츠에, 하의는 검정 또는 파란색 바지 또는 치마이다. 상의는 유치원생은 빨강색, 초등학생은 흰색, 중학생은 하늘색, 고등학생은 갈색으로, 왼쪽 가슴에 학교 로고가 새겨져 있으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주문, 판매한다. 하의는 색깔만 맞으면 청바지 등 아무거나 상관 없다. 체육복은 통상 흰색 셔츠에 검정색 반바지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교복이 간단한 것은 베네수엘라가 계절변화가 없이 사철 모두 춘, 하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 아침저녁으로 추울 때를 위해 학교 로고가 있는 스웨터도 판매하고 있다.

입학서류로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영문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공증은 필요 시 주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으면 된다. 기타 예방접종카드도 있으면 좋으며, 사진은 여권 신청 시 아예 여러 장 만들어 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처음 입학하는 학생은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ESL 과정을 들어야 한다. ESL 수업은 방과 후 따로 받는 것은 아니며, 다른 수업을 대체한다. 통상 다른 학생들의 컴퓨터 수업 시간에 ESL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다. ESL 수강 기간은 학생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1학기 만에 빠져 나오는 수도 있고, 2년을 듣는 수도 있다. 보통 ESL의 비용은 따로 받지 않는다. 영어가 많이 부족한 경우 학교에서 과외 공부를 권유하며 교사를 추천해 주기도 함. 이 경우 방과 후 학교 또는 집에서 수업이 가능한데, 시간당 20\$-30\$의 비용이 소요된다.

수업시간은 아침 7시45분 ~ 오후 3시이다. 방과후에 특별 활동이 5시까지 이어진다. 특별 활동은 운동(배구, 축구, 농구, 하키 등)과 음악(합창, 밴드), 컴퓨터, 무용, 미술연극 등 다양하며, 교과 수업에서 일정 학점을 받지 못하면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봉사 활동 반도 있어 교내외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우등생 그룹(National High Society/NHS)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학점도 중요하나 리더쉽, 사회봉사 활동 등이 요청되므로, 여러 가지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학비는 학년 시작 후 3개월 내에 완납하게 되어있으며, 중도에 퇴학을 해도 나머지 학비가 환불이 되지 않는다. 만일 학비가 미납된 경우 퇴학 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2) 외국인 학교

○ Colegio Internacional de Caracas(CIC)

- 1971년에 설립된 학교로, 미국식 학제와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다.
- 학생 수는 약 400명으로, '99년 현 정부 수립과 경제 침체 이후 외국인들의 철수가 증가하면서 학생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 초등학교는 한 반에 20명 내외이며, 반 편성이 없는 중학교 이상은 1명의 담임교사 (Home Room Teacher) 가 맡는 학생 수가 10명 이내이다.
- 유아원부터 12학년 과정까지 있다.

- 학 비

- 입학금: 5,000\$ (Kinder부터 12학년까지)
- Nursery-Pre-Kinder는 입학금이 1,000\$이나, Kinder로 진학 시 차액 납부
- 등록금: 500\$ (Nursery부터 12학년까지 동일/ 매 학년 등록 시 마다 납부)

- 연간 수업료

- Nursery - Prekinder : 7,100\$
- Kinder-5학년 : 10,700\$
- 6학년-8학년 : 13,600\$
- 9학년-10학년 : 14,000\$
- 11학년-12학년: 14,400\$

- 학비는 6월 15일까지 등록금과 연간 수업료의 10%, 8월 15일 까지 연간 수업료의 50%, 11월 15일까지 나머지 40%를 납부한다. 즉, 학년 시작 3개월 내에 1년치 수업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늦게 납부하는 경우 500\$ 연체료를 내게 되어있다.

- 학비의 환불은 등록금과 10% 수업료를 납부한 후 7월 23일 이전에 퇴교한 경우만 환불이 된다.
- 학교 스쿨버스가 있으며, 월 이용료는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80,000Bs(약 113\$)

- 입학 신청서류
 - 입학 신청서
 - 여권사본
 - 최종학교의 최근 2년간 성적 증명서

- 입학 시험
 - 학년 배정을 위한 간단한 시험을 치름(수학문제와 지능 시험 문제가 출제됨)
 - 입학시험 결과와 간단한 영어 면접을 통한 영어 구사능력, 나이를 감안하여 학년을 결정
 - 영어가 부족한 경우 통상 6개월을 낮춰 입학하게 됨.

- 학교 보험
 -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단체 보험은 없으며, 학생 개개인이 별도로 가입해야 함.

- 학교 급식
 - 단체 급식은 없으며, 도시락을 지참하든지, 아니면 교내 매점에서 매식을 함.
 - 교내 매점은 빵과, 피자 등 간단한 점심 메뉴와 음료를 판매하며, 점심 한끼 비용은 약 4,000Bs(약 6\$) 소요

- 학교 연락처
 - 주소: Calle Colegio Americano, entre Los Samanes y Las Minas de Baruta, 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 945-0444, 945-0708
 - Fax : (58-212) 941-4161
 - email: cic@cic-caracas.org
 - URL: www.cic-caracas.org

- Escuela Campo Alegre(ECA)
 - 1937년에 설립된 학교로, 미국식 학제와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다.
 - 9학년까지만 있었으나, '70년대 말 12학년제로 개편

 - 학생 수는 약 800명으로, '91년 현 정부수립과 경제침체 이후 외국인들의 철수가 증가하면서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 유아원부터 12학년 과정까지 있다.

 - 학비는 외국인학교 중 가장 비싸다.
 - 입학금: 6,600\$ (Kinder부터 12학년까지)
 - Nursery-Pre-kinder의 입학금은 1,600\$이며, Pre-Kinder로 입학, 초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차액 5,000\$을 납부해야 한다.
 - 등록금: 600\$ (Nursery부터 12학년까지 동일/ 매 학년 등록 시 마다 납부)

- 연간 수업료
 - Nursery : 6,718\$
 - Pre-Kinder : 8,396\$
 - Kinder-5학년 : 13,028\$
 - 6학년-8학년 : 16,214\$
 - 9학년-11학년 : 16,304\$
 - 12학년 : 17,064\$
- 학비는 8월 31일까지 50%, 11월 20일까지 나머지 50%를 납부함. 즉, 학년시작 3개월 내에 1년치 수업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늦게 납부하는 경우 연체료를 내야 한다.
- 수업료 외에 교재대로 6-8학년은 150\$, 9-12학년은 240\$을 납부해야 한다.
- 11-12학년으로 IB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은 IB 등록비와, 수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 학비는 1년 단위 납부로 조기 퇴학해도 환불되지 않는다.
- 학교 자체 스쿨버스가 없으나, 운송회사와 계약, 스쿨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 버스이용료는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약 90\$ 수준이다.
- 입학 신청서류
 - 입학 신청서
 - 입학 설문지(현 재학 학교에서 작성 요)
 - 건강기록부
 - 여권용 사진 2매
 - 최종학교의 최근 3년간 성적 증명서
 - 각 신청서 양식은 URL에서 출력 가능
- 입학 시험
 - 별도의 입학 시험은 없으며, 영어 면접을 통한 영어 구사능력을 테스트하여 학년 배정을 한다.
- 학교 보험
 -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단체 보험은 없으며, 학생 개개인이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 학교 급식
 - 단체 급식은 없으며, 도시락을 지참하든지, 아니면 교내 매점에서 매식을 해야 한다.
- 학교 연락처
 - 주소: Final Calle La Cinta, Las Mercedes, Venezuela.
 - 전화: (58-212) 993-3922
 - Fax : (58-212) 993-0219
 - E-mail : admissions@eca.com.ve
 - URL : www.eca.com.ve
 - 입학 담당자: Mr. Joan Bastianini
- The British School Caracas
 - 영국계 학교로, 영국식 학제와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다.
 - 학생 수는 약 300명으로 유아원부터 9학년 과정(미국계학교의 8학년)까지 있다.

- 학비
 - 입학금: 대사관 및 회사 요율 5,880\$, 일반인 요율 3,530\$
 - 등록금: 515,000 Bs(약 275\$)
- 연간 수업료
 - Pre-School: 대사관 및 회사 요율 5,880\$, 일반인 요율 3,530\$
 - Kinder-4학년: 대사관 및 회사 요율 12,350\$, 일반인 요율 8,350\$
 - 5학년-9학년: 대사관 및 회사 요율 14,700\$, 일반인 요율 10,120\$
- 대사관 및 회사 요율은 정부 및 회사에서 학비보조가 있는 경우의 요율이며, 일반인 요율은 학비가 모두 개인 부담인 경우의 요율이다.
- 수업료는 1년분 선납이나, 9월 40%, 1월 35%, 4월 25%로 3회 분할 납부 가능하다.
- 1년치 선납의 경우 학비의 환불은 1학기 퇴학 시 60%, 2학기 퇴학 시 30% 환불되며, 3학기 이후 퇴학은 환불이 없다. (3학기제 임)
- 학교 스쿨버스는 없다.
- 입학 신청서류
 - 입학 신청서
 - 출생 증명서
 - 증명 사진
 -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있을 시)
- 입학 시험
 - 면접만 있으며, 어머니와 자녀의 영어 구사를 요구한다.
- 학교 보험
 -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단체 보험을 가입한다.
- 학교 급식
 - 단체 급식은 없으며,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 (교내 매점이 없음)
- 학교 연락처
 - 주소: Transversal 9, Este de la Av. Luis Roche, Altamira, Caracas, Venezuela.
 - 전화: (58-212) 266-2270, 265-5870
 - Fax: (58-212) 265-2141
 - E-mail: britishschoolcaracas@sa.omnes.net
 - 입학 담당자: Ms. Rhaiza Blanco